月刊 미사일

1962年 1月 31日 發行

1962 2호

特輯 民主主義의 成長을 위하여

韓國 革命과 歷史의 轉潮 · 金 基 錫

座談會 空軍과 그이와 生活과……

模範部隊를 찾아서 나를 따르라 (루포)



通卷 10號



(위) 송요찬(宋堯讚) 내각 수반(首班)은 지난 1월 24일 연초(年初) 순시차 공군 본부를 내방(來訪)하였다. 사진은 김 참모총장의 안내로 참모들과 인사를 교환하는 송(宋) 수반.
(아래) 지난 1월 19일 대한재향군인회(大韓在鄕軍人會) 회장 김홍일(金弘一) 장군은 본부로 김 참모총장을 예방(禮訪)하였다.

목차

한국 혁명과 역사의 전조(轉潮) · · · · · · · · · · · · · · · **김기석(金基錫)(2)**

<특집 ·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하여>

국가재건에의 길 · 정세웅(鄭世雄)(6)
혁명 제3 단계와 군인의 자세 · · · · · · · · · · · · · · 김팔봉(金八峰)(9)
개인주의와 공동체 정신 · · · · · · · · · · · · · · · · · 홍종인(洪鍾仁)(11)
한국사회구조의 특질과 민주주의 · · · · · · · · · · · · · 이만갑(李萬甲)(13)

<좌담회>

공군 장교 부인들이 말하는 공군과 그이와 생활과 · · · · · · · · · (16)

☆ 사회탐방 그 후의 생활 · · · · · · · · · · · · · · · · · · **편집실(44)**

군사과학
경탄할 지하 미사일 기지 · · · · · · · · · · · · · · · · · 이학재 역(34)
전략 공군을 진단한다 · · · · · · · · · · · · · · · · · · · 한기욱 역(37)
방공 구국 3개월 · 김영주역(4)

★월간 주요 신문 사설 요약 ★월간 주요 국제 시사 요약
인체와 방사선 · 구경섭(丘京燮) (53)

미국이여 우리를 도우라! · · · · · · · · · · · · · · · · · 외지(外誌)에서 (26)
소련의 시와 시인 · 장세원(張世元) 역 (30)

중공치하의 지식인 · · · · · · · · · · · · · · · · · · · **정죽원(鄭竹園) (85)**

<세미나>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 · · · · · · · · · · · · · · · · · · · 김낙봉 (60)
공산주의 세미나 · J.W.크로닌 (65)

<모범부대탐방>
나를 따르라! · · · · · · · · · · · · · · · · · 109비행대대, 10야전(野戰) 정비대대 (22)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 · · · · · · · · · · · · · · 이근우(李根雨) (56)
장병 페이지 · 기교단(技敎團) 편 (76)
범죄 예방의 길을 찾아서 · · · · · · · · · · · · · · · · · · 김동훈 (46)

수필
E 중위에게 · 모윤숙(毛允淑) (72)
군인 · 어효선(魚孝善) (73)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 · · · · · · · · · · · · · · · · · · 박희주(朴喜柱) (74)
시·무명용사를 기리는 노래 · · · · · · · · · · · · · · · · 박희진(朴喜璡) (75)
화문(畵文)·나상(裸像)이 있는 화원 · · · · · · · · · · · · 이순재(李舜在) (71)

세계 신문 이야기(호주편) · · · · · · · · · · · · · · · · 김기점(金基漸) (67)
☆세계 경이 순례<워싱턴> · · · · · · · · · · · · · · · · · 하 리 바 톤 (80)
☆독창력 테스트(상) · 유철종 (82)

△편집후기 · (88)

표지 · · · · · · · · · · · · · · · · · · ·

한국(韓國) 혁명(革命)과 역사(歷史)의 전조(轉潮)

역사는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거듭하다가 다시 동방에 돌아왔다. '서(西)'에 눌리고 '서'에 밀린 '동(東)'이 '동' 중에서도 가장 많이 눌리고 짓밟힌 한반도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로 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歷史)의 분기점(分岐點)에 서서—

김기석(金基錫)



<필자>

1.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로 나라를 근대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한 귀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크게 세 번 맡겨졌다. 1896년의 독립협회 운동 당시와 1919년의 3·1운동 당시와 그리고 1945년의 민족의 해방 당시와….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하여 세 번씩이나 맡겨진 이 역사적인 기회를 헛되이 놓쳐 버리고 말았다.

역사상에 나타난 민주주의 혁명의 첫째는 1779년의 프랑스 혁명이었다. 이 프랑스 혁명은 그 당시의 프랑스의 제3계급이 영도했고 그 목적은 루이 16세의 절대 군주제를 거꾸러뜨리는 데 있었다. 역사상에 나타난 민주주의 혁명의 둘째는 1848년의 유럽 혁명이었다. 1848년 2월 파리에 2월 혁명이 일어났고 연달아 유럽 각지에 혁명이 발발했다. 유럽 혁명은 1840년대의 혁명적인 노동자 농민이 영도했고 그 목적은 특권과 착취와 수탈이 없는 평화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데 있었다. 프랑스 혁명과 유럽 혁명……. 이 두 혁명은 같은 민주주의 혁명이면서 하나는 주로 정치 혁명, 하나는 주로 경제 혁명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혁명의 물줄기가 여러 가지 굴절을 거쳐 세계의 구석구석에 흘러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 한국에 4월 혁명이 일어났고 61년 연달아 5월 군사 혁명이 일어났다. 4월 혁명과 5월 군사 혁명은 한국 혁명의 하나의 상면(象面)으로서 한국 혁명은 실상 1960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1896년 독립 협회 운동에서 그 근원을 발한 것으로서 독립 협회에 의하여 한반도에 뿌려진 민주주의의 이 성스러운 파종이 64년이 넘도록 땅 속에 묻혀 있다가 1960년과 1961년에 지곡(地穀)을 뚫고 올라와 그 놀라운 광망(光芒)의 동방의 하늘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혁명—이것이 역사에 나타난 민주주의 혁명의 셋째일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유럽 혁명과 한국 혁명과……. 그런데 한국 혁명은 4월 혁명은 학생이, 5월 군사 혁명은 군인들이 이것을 영도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국제 공산주의 침략과 경제적·도덕적 부패로부터 조국과 전 민주 진영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프랑스 혁명은 정치 혁명, 유럽 혁명을 경제 혁명이라고 하면 한국 혁명은 제도의 변혁과 함께 이 주체인 사람을 바꾸려는 총체적인 혁명, 혁명을 넘어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1차 대전에서 제2차 대전으로 옮아올 때 전쟁의 양상 또는 성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제1차 대전은 순연히 무력에 의하여 영토를 확대하는 전쟁이었다. 제2차 대전은 무력 반, 이데올로기 반에 의하여 인민을 많이 획득하는 전쟁이었다. 제3차 대전은 이미 발발된 것으로서 무력이 뒤에 서고 이데올로기가 앞에 나와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 영토와 그 인민을 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혼과 인생관과 생활 감정과 작풍(作風)을 붙잡는 전쟁인 것이다. 무력 전쟁과 이데올로기 전쟁과……. 여기서 제1차 대전과 제2차 및 제3차 대전과의 사이의 전쟁의 양상의 변천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무력 전선을 제1 전선이라고 하면 이데올로기 전선은 제2 전선이 될 것이다. 제1 전선인 무력 전선이 아무리 견강하다고 해도 제2 전선인 이데올로기 전선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 뚫리우는 방위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국방이 수에 있어서 백만이 넘고 장비에 있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고 해도, 지휘관이나 병사의 이데올로기가 흐리고 국민들의 머릿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부실하다고 하면 이 부스러지는 조약을, 무너지는 담벼락 가지고 사나운 적과 싸워 이것을 물리칠 수는 없는 것이니, 이데올로기 전선의 견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무력 전선과 이데올로기 전선과—이 두 전선만 구비되면 국가의 방위는 완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이 무력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로 뒷받침되는 것 마냥 이데올로기 역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개인 그 민족의 생활 윤리·생활 기풍인 것이다. 이데올로기 없는 무력이 무력한 또는 위험한 무력인 것과 한 가지로 견강한 실천적인 기풍에 뒷받침되지 못한 이데올로기는 창백한 메마른 나뭇가지같은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역사의 진전을 향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1전선인 무력 전선과 제2 전선인 이데올로기 전선과 제3 전선인 윤리 전선과……. 이 세 가지 전선이 갖추고 또 서로 어울리어 총체 전선을 이루었을 때 그 겨레 그 나라의 방위는 비로소 벽석(碧石)의 무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유명한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은 일이 있었다. 중원의 한족들이 이 성을 쌓아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랬는데 중원은 세 번씩이나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다. 북방의 침입자들은 만리장성을 쓰러뜨리거나 그것을 기어 넘은 것이 아니고 성문을 지키는 파수병(派守兵)에게 뇌물을 주고 당당히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것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제1차 대전 직후 독·프 국경에 마지노선을 구축했다. 다시는 독일이 쳐들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선만을 믿고 그 선 뒤에서 마음 놓고 있었다. 그랬는데 제2차 대전이 터지기가 무섭게 이 선이 뚫렸다. 프랑스 사람들의 상하노소(上下老少)의 텅 빈 가슴패기로 독일 군대들이 성난 물결처럼 휩쓸려 넘어왔다.

한국에 한국 전쟁 휴전선이 국토의 허리를 끊고 건너 왔다. 이 휴전선은 현대의 과학과 물자와 기술이 총동원해서 구축된 가장 견고한 세계 최강의 방위선일 것이다. 자유 한국과 전 민주 진영은 이 선을 다시 없는 생명의 보루로 믿고 국제 공산당이 여기에 걸려 못 넘어오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는 과연 이 휴전선에 의하여 보장된 것일까. 한국은 예전의 중국이나 어제의 프랑스가 결(缺)했던 것을 여전히 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 방어선과 함께 사람을 구축했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성격을. 건강한 민족성이 우리들의 최고의 필요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체제와 정권담당자가 바뀌고 아무리 웅대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었댓자 참된 민족의 중흥, 국가 재건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형의 인간과 새로운 형의 지도자와 새로운 형의 민족성과……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최고의 필수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가 표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원조하지 못하고 국제연합이 결의하지 못하고 법이 이것을 제정하지 못하고 학생의 대시위가 이것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것은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피어린 자기 투쟁에 달린 것이니 한국 혁명이 예사로운 제도의 혁명이 아니고 제도를 바꾸는 자를 바꾸는 새로운 차원의 혁명인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혁도 변혁이려니와 이것과 함께 지금까지의 낡은 인간성 낡은 민족성을 바꾸려는데 한국 혁명이 혁명 역사에서 가지는 웅심한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서양 근세사는 오랫동안 공리주의 풍조에 끌려왔다. 이 유럽 사람들의 공리주의 풍조가 유럽 안에서 자기들의 민족국가의 건립을 마쳤을 때 그 세력이 유럽 밖으로 내어 뻗기 시작하여 이른바 서력동점(西力東漸)의 거센 물결을 이루어 서가 동을 누르고 서가 동을 경영하는 데 미쳐 강권주의·침략주의의 풍조를 보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생존경쟁, 약육강식의 그릇된 논리가 받아들여 지면서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영이 심한 권모쟁란(權謀爭亂)에 들어선 것이니 영란(英蘭)의 인도 경영 이후의 유럽 근세사는 맹자(孟子)의 이른바 "만취천언(萬取千焉) 천취백언(千取白焉) 불탈불염(不奪不厭)"의 대혼란을 이루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유럽 열강의 이 같은 팽창주의, 저들의 침략주의·제국주의는 자세히는 유럽 사람들의 성정 그 인생관 그 생활 기풍에서 좇아오는 것이니 저들의 세정주의 심정, 그 이익과 감각적 쾌(快)를 탐하는 성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개인의 이기주의 국가의 침략주의로 발현·추진되는 것은 면하기 어려운 형세인 것이다. 유럽 사람들의 이익과 감각적 쾌에 경도하는 심정, 이 심정이 근본적으로 가시기 전에 저들에게서 또 저들로부터 참된 세계 평화, 참된 협동 사회를 바라기란 어려울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나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손에 성서를 들고 입으로 진리를 설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침략 정책을 편드는 것이 한 가지 병 때문이고 국제 연맹과 국제연합이 그 엄숙한 헌장과 거대한 기구조직을 가지고도 한 걸음 한 걸음 국제 정략의 사랑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 가시기 어려운 질환 때문인 것이다. 이익과 감각적 쾌에 기울어지는 세정적인 심정은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을 종당 사망의 구렁에 이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것이다. 유럽 사람들의 이 운명적인 심정이 저들의 정치와 산업과 문화와 종교에 썩은 피를 운반하는 검은 혈관을 가로세로 얽어 놓았다. 이 썩은 피를 내어 보내는 심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정치와 산업과 문화와 종교가 한마디로 하여 저들의 문명이 씻겨지고 맑아지기란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나 유럽 혁명이 비록 민주주의 혁명이긴 했으나 제도의 혁명에 그쳐 인간성의 혁명에 나아가지 못한 데서 우리들은 유럽 사람들의 경우의 혁명의 한계와 운명을 읽어야 할 것이다.

5. 역사는 오랫동안 우회 곡절을 거듭하다가 다시 동방에 돌아왔다. 서에 눌리고 서에 밀린 동이 동중에서도 가장 많이 눌리고 짓밟힌 동반도(東半島)가 이제 새로운 역사의 향도자(嚮導者)가 된 것이다.

한반도에는 한반도 자체의 썩음과 유럽의 공리주의·물질주의 풍조를 근간으로 하는 밖엣 썩음이 한데 몰려 들었다. 한반도의 해안에는 이 오래된 썩은 물결이 교만하게 밀어 올려 좀처럼 몰려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허영, 탐욕, 권모, 분열, 당쟁, 사대주의, 게으름, 모략, 중상, 세도, 관존민비, 특권, 전횡, 사치, 음일, 연락, 허세, 아첨, 굴종, 이중인격, 매관매직……. 이밖에도 허다한 악과 부패가 창망한 물결을 이루어 갈수록 사나운 형세를 떨치는 것이었다.

제2차 대전 종전의 해인 1945년이 돌아와 아시아 대륙에는 다른 대륙과 한가지로 오랜 고난 끝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다. 1945년 민족의 해방과 함께 국토 분단 미소 길항(拮抗)의 새로운 고난 속에서도 1948년 국연(國聯) 감시 하의 총선거를 거쳐 마침내 정부 수립, 주권 선포에 의한 국권의 회복을 보기에 이르렀다. 한반도를 휩쓰는 썩은 물결은 민족 해방의 해인 1945년 8월 마땅히 물러 나갔어야 할 것이었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8월 한 달 9월 한 달 이 물결이 몰려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의 힘을 얻었음인지 이 물결은 한층 더 세력을 더하여 흉흉한 형세가 심해갈 뿐이었다. 1950년 공산 침략의 불법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역사 있은 이후의 가장 괴로운 전쟁을 싸웠다. 그리고 연달아 자유당 집권 하의 1인 정치, 강권과 부패에 찬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1960년 마침내 학생들에 의한 4월 혁명이 일어났고 민주당 정권 하의 무능·부패·혼란이 계속되다가 1961년 5월 군사혁명이 일어나 이제 광범한 국민 혁명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쟁 때 그렇지 않으면 4월 혁명이 있은 뒤에는 한반도의 썩은 물결이 깨끗이 그리고 완전히 물러나갔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 한국 전쟁이나 4월 혁명의 힘 가지고도 이 오래된 썩은 물결은 이것을 멀리 황해 저편이나 현해탄(玄海灘) 너머로 좇아 내지 못했다. 한때 물러가는 것 같이 보인 것이 도리어 화(禍)로 한반도의 교만한 물결은 마치 신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의인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이스라엘의 썩은 물결 마냥 역사의 '청(淸)'과 '선(善)'을 비웃기까지 하면서 그 '탁(濁)'과 '악(惡)'을 쥐어 뿌리는 것이었다.

6.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한국 군사 혁명은 역사의 명령과 정열 아래 한강 철교를 썩은 물결을 굽어보면서 건너갔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 한반도의 오래된 썩은 물결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순간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흐름(탁)과 어둠(암)은 그 좇아오는 연원이 길고 그 연달은 폭이 넓다. 깊이로는 고구려 패망 이후 1,300년에 걸쳤고 넓이로는 한토(漢土)와 유럽과 미 대륙에 연결되었다. 지금 한토(韓土)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단순한 국제 양 진영의 체제상의 대결이 아니고 세계의 '탁'에 연결된 한반도의 '탁'과 세계의 '청'을 향도할 한반도의 '청'과의 대결인 것이니 '탁'과 '청', '암'과 '조광(照光)'의 대결인데 한국 혁명의 역사적인 품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청'은 여러 번 한반도에 몰려든 '탁'을 물리친 일이 있었다. 독립 협회도 한반도에 몰려든 '탁'에 대한 한반도의 '청'의 이김이었고 3·1운동도 한반도에 몰려든 '탁'에 대한 한반도의 '청'의 이김이었고, 민족의 광복도 한반도에 몰려든 '탁'에 대한 한반도의 '청'의 이김이었고 한국 전쟁도 한반도에 몰려 든 '탁'에 대한 한반도의 '청'의 이김이었고, 4월 혁명도 한반도에 몰려든 '탁'에 대한 한반도의 '청'의 이김이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탁'과 '청', '암'과 '조광'의 싸움은 번번이 '청'과 '조광'이 '탁'과 '암'을 물리치는 데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다시 여기에 삼킴을 당한 반전·패배의 역사였다. '청'과 '조광'이 먼저 이기기는 했으나 적의 주력을 격파하지 못한데 전세 역전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5월 군사 혁명은 독립 협회에서 그 근원을 발한 한국 혁명의 결정적인 전상(展相)으로서 한반도에 몰려든 '탁'과 '암'의 주력 부대가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분쇄된 것이다. 적의 주력 부대는 분쇄되었다. 그러나 주력 부대의 분쇄는 적의 입은 타격이 결정적이라는 것뿐이고 아직 적이 완전히 소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의 잔존 부대가 혹은 대오를 갖추어 가지고 다시 일어나 처들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주력 부대 파괴 이후의 소탕전의 중요함이 있는 것이다. 한국 전쟁 때 B-29의 대편대폭격에 의하여 적의 주력인 임표(林彪) 부대가 낙동강 전선에서 여지 없이 분쇄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소탕전이 빠르고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공의 개입을 허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5월 군사 혁명에 의하여 한반도에 몰려든 오래된 썩은 물결, '탁'과 '암'의 주력 부대가 격파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다. 적의 주력 부대가 지상에서 소멸되었음으로 해서 도리어 그 잔존 세력이 지하로 내려가 묘하게 얽히고 재빨리 연결되어 대반격에 나올 시간과 기회를 저축하고 조차 있는 것이다. 한국 혁명이 5월 군사 혁명 단계로부터 광범한 국민 혁명에 번져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인 것이다.

한토는 오랫동안 고난과 비극의 역사를 엮어 왔다. 우리 이제 일어나 고난과 비극의 한반도를 승리와 영광의 한반도로 꺾어 돌릴 때가 돌아온 것이다.

한반도,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산과 들이 펼쳐지는 한반도, 산골짝에 저녁 연기가 올라가고 들에 백곡이 무르익는 한반도, 국조 단군이 우렁차게 터전을 열었고 삼국이 세머리 말인 양 앞으로 달려나간 한반도, 동명성왕(東明聖王)과 세종대왕(世宗大王)이 고심 경영한 한반도, 원효(元曉)와 의상(義湘), 율곡(栗谷)과 충무공(忠武公), 이준(李儁)과 도산(島山)의 나라인 한반도, 수많은 이름없는 예사로운 지아비 지어미가 그 고난 어린 생애를 바친 한반도, 그리고 인류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자유의 기수들이 몰려와 그 고귀한 피를 이 땅에 뿌리고 고요히 지하에 잠들어 있는 한반도……. 만일 저들이 그 목숨을 바쳐 한반도를 지키고 빛낼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수호하고 여기에 역사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 드림은 저들의 뜻을 이어 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요 또 권리일 것이다.

<필자·단국(檀國)대학장·서울특별시 교육 회장>

> 인간사에 있어서의 그 위기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계통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역사로 판단한다면 동시대의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위기라고 생각 않은 시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역사 그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하여도 부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
> —시드니·후크—

1)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만 승에서 천 승을 취하며 천 승에서 백 승을 취함이……빼앗지 않으면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성장(成長)을 위하여

특집(特輯)



쓰레기통 속에 버려졌던 시든 장미—짓밟힌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재건에의 벅찬 의욕과 전진을 맞아 찬란하게 소생되고 있다.

극한점의 조국으로 하여금 영광된 민주 복지 국가로 가게 하는 국가재건의 길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 정세웅 대령의 손을 빌려 다시 한번 밝혀 본다.

<편집자>

국가재건(國家再建)에의 길

정세웅(鄭世雄)

국(國)토 방위의 성업(聖業)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던 우리 국군은 구국제민의 대 이념 아래 궐기하여 역사적인 혁명을 이룩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제 혁명은 바야흐로 제2년째에 돌입하여 혁명 본래의 목표인 국가재건의 대계획 하에 그 본궤도에 올라 일로 혁명 과업 완수에 매진케 되었다. 회고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룩한 5·16 군사혁명은 세계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종교 혁명·산업 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위시해서 근세에 일어난 약소국가의 혁명과는 물론 5·16 직전에 있었던 4·19와도 그 성격과 정신적 면에 있어서 차이점은 현저한 것이다.

과거의 혁명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 야심의 충족 내지는 권력의 투쟁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권리 신장 혹은 정권의 장악을 위하여 이루어진 권력 혁명인데 반하여 이번 우리 5·16 군사혁명은 그 공약에서 명시한 바, 또한 짧으나마 근 반년 남짓한 지금까지의 업적으로 보아 정치적 야심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며 또 단순히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직 극한점에선 민족과 조국을 구한다는 일리 외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역력히 증명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5·16 군사혁명은 이를 발전시켜 국민 혁명으로 확대되었고 여타의 혁명과는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생활 정치 이념으로서 선진국가에서 난숙한 민주주의가 급격히 무비판적으로 직수입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도입은 반드시 단순한 피동적 입장에서만 취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36년간의 쓰라린 굴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부여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취해진 자세로서 스스로 이끌어 들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열의가 아무리 컸다 하여도 선진 제국에서 오랜 정치적 사회적 지반과 역사를 겪어 성장되었고 결실된 민주주의가 불과 1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동화되기에는 힘들었고 벅찬 것이었떤 것만은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이념으로까지 보편화되지 못하고 오직 정치적 이념으로서 그것도 정치 구조의 구축 원리로서 밖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생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구조의 튼튼한 기반이 되지 못할 때 그 구조는 외형상 형식상 또는 제도상 제아무리 훌륭한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수차의 개헌을 통하여 자유 우방의 어느 선진 민주 국가에 못지 않게 훌륭한 제도를 수립하였으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합법적 개헌이었던 불법적 개헌이었던 또는 나아가서 혁명이었던 그것이 단순히 우리 정치 구조에 손을 대는 데에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올바르게 광정(匡正)하는 길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5(五)·16 혁명이 국민 혁명으로서의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공약에서 말한바 혁명 과제의 기초가 온 국민의 절대적인 요청과 절실한 갈망 속에서 신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목표가 정확하였고 시의에 적합하였다는 것을 실증하고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혁명 과업의 달성은 그것이 단순한 정치 혁명이 아닌 국민 혁명인 이상 결코 단시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 혁명은 개개 국민의 정신적 내적인 혁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 각자의 인간개조를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결코 손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장기에 걸친다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혁명 과업 달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희구(希求)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공정신으로 재무장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제2차 대전 이후의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 현실로 보아서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아서나 반공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국민은 6·25의 쓰라린 경험으로 다른 어느 국민에 비해서도 반공에 대한 정신 무장이 되어 있다고 자인(自認)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6·25의 생생한 교훈이 점차 멀어져 가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 가는 동안에는 반공 체제마저 이완해 가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앞날을 짊어지고 조국 통일의 역군(役軍)으로서 선봉에 서야 할 학생 간에 대공 협상이라는 해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음은 마치 6·25 직전의 사태에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한 경향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도 원인이 컸다고 할망정 한편으로는 이북 괴뢰들의 교묘하고도 집요한 계략의 작용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재건과 확보는 반공 태세의 확립을 선결 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로 국민 도의의 재건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민주주의 이념을 도입하여 애써 민주적 정치 제도를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였고 무질서와 혼란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가기만 하던 원인은 우리 국민의 도의심의 타락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는 국민 도의의 타락은 그 원인이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 빈곤 등에 있었다고 할지 모르겠다. 물론 도의심의 타락은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각자의 도의심이 건재했던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 등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국민의 도의 재건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서 생각할 때 도의심 타락의 원인을 그에 전가하기 이전에 국민 자신의 책임에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민주주의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 성원 간의 자유성과 자율적인 자치 정신이 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東)서를 막론하고 민주적 선각자들이 오랜 시간과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쟁취하려고 한 노력은 전제적 억압과 타율적 지배를 배격하고 인간의 본연의 권리인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간 본연의 자유권은 전제적 지배자로부터의 해방은 의미할망정 동등한 사회 성원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의미하거나 정당한 법질서 앞에서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바로 자주성과 자율적인 자치 정신인 것이며 이는 또한 민주도의의 근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그동안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일제 식민지 강압 정책 밑에서는 그래도 얼마만큼이나 명맥을 유지했던 우리의 산림은 해방을 맞은 후의 수년 내의 우리 동포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헐벗게 되고 말았다.

상가에는 밀수품과 횡류품(橫流品)이 버젓이 활개를 펴고 있었고 골목마다 온갖 족속의 불량배 폭력배들이 그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매일 매일의 신문에는 온갖 패륜· 기위(欺僞) 파렴치 사건들이 쉴새 없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에까지 도둑의 나라 거지의 나라로까지 오명을 떨쳐야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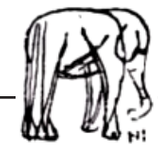
이러한 모든 사태는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고창하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 민주사회인 민주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질을 구유(具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막을 폭로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이념에의 길을 포기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일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법은 사회인 국민 상호간에 있어서의 자율적 규제인 것이며 민주주의에서의 준법 정신은 바로 자율심이며 자치 정신이며

그것은 또한 민주도의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도의의 확립은 민주제도에 앞선 문제로서 국민 혁명으로서의 5·16 혁명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자주 정신의 회복이다.
자주 정신은 자율심 자치 정신과 표리의 관계에 서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우리 국민은 일제의 혹독한 압제 밑에서 그 압박이 심할수록 더욱 우리의 민족정기를 굳게 지녀왔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이제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천지에서 마음 놓고 우리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민족 문화를 떳떳이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와서는 오히려 위축 일로를 걷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이것 역시 해방 이후의 여러 가지 혼란과 빈곤 속에 자신과 희망을 잃게 되고 물 밀 듯 들어온 외국의 문물에 현혹되어 열등감에 사로잡힌데서 나온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 상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인으로 그 동안에 더욱 혼란과 빈곤에 허덕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예를 제2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들어 보자. 이들은 대전의 전패국으로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혹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국제적 위신을 손상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들이 불과 10여 년 만에 다시 경제면에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을 목격할 때 물론 그들의 잠재적 실력이나 노력이 큰 원인이 되었을망정 불굴의 민족정신과 희망적 자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 왔던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자유우방과의 결속을 부르짖어도 그에 앞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을 찾고 정신적 물질적 면에서의 자립성을 갖지 않고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고 자주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 민족 발전의 지도 이념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중심된 지도 이념과 정신적 지주가 없을 때에는 내면적 으로는 자생성과 발전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외면적으로는 사대주의와 의타(依他) 근성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스스로의 특수성과 부분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을망정 모든 면에 서 타민족과 타국을 제압할 만한 우위성을 가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단결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것이 그들의 발전의 지도 이념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공동 이념도 역사적· 사회적·지역적 특수성과 변천을 고려하지 않고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외국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도입되고 이식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실된 자기를 찾고 자주성을 회복함으로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기반 위에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고 혁명 과업의 또 하나의 목표인 경제 부흥과 복지 사회 건설에 건실한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공동 의식에 투철하여야 하겠다. 공동 의식이란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념이란 사회생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이전의 봉건주의나 동양 윤리 이념이 상하의 종적 관계 위주로 한데 비하여 횡적인 평등 관계를 위주로 한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의 동양 윤리 사조의 영향으로 상하의 복종 관계에 치중하고 또 그것이 동양적 신분 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로 넓은 의미의 사회 이념으로까지 발전하는 계기를 저해해온 것을 부인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 이념을 소화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사회관의 인습에서 발전하여 횡적 평등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 성원 상호간에서의 인격의 존중과 사회적 책임의 자각에서 출발한 협조 정신의 함양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준법 정신 자율심 자치 정신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같은 원리 밑에 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성장 못했다는 과거의 반성은 이 부면(部面)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21면에서-
름 아닌 국민의 공동체라는 말인 것이다. 온 국민의 국가 생활의 공동 목표요 공동이익을 위한 가장 정성스럽고 자유로운 활동의 무대요 그 무대가 곧 그들 온 국민이 스스로 즐겁고 복된 살림의 목표라는 뜻인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없지 않았고 또 오늘에도 없다고 할바 아니다. 그러나 이러는 한 정신이 국민생활 주류가 되어 국가라는 정의(正義)의 상징체(象徵體)와 국민의 도의심(道義心)이 하나로 엉키자면 새로운 사회로 근대적 혁명의 세례를 온 국민이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이란 곧 국민의 통일된 목표와 이해관계의 수평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궁극의 발전도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의 공동 목표나 공동이익을 이룩하는 일이나 또 공동체 정신을 떨치는 일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냐? 흔히 뒤떨어진 사람들이 앞선 사람을 따라가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절차를 저버리는 일이 많다. 심하면 수단과 절차가 근본의 목적과 뒤바뀌는 일도 있음을 본다.
공동체의 정신을 떨치는 일은 지도자 혹은 지도층의 현명한 지도가 필요함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정신을 떨친다는 일은 온 국민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다는 일이어서 결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깨달음을 가진다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국민들이 스스로 발전의 의욕을 활발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일일 것이니, 이는 다름 아닌 국민의 생산 활동과 문화 활동의 새로운 결의와 실천이 따르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민 대중의 광범한 자유 토론이 항상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지도자는 국민 토론의 겸손하고도 명쾌한 사회자(司會者)로서 현명한 판단과 실천의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계급이나 사업가들은 항상 국민의 선두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조선일보(朝鮮日報) 회장)

혁명(革命) 제(第)3단계(段階)와 군인(軍人)의 자세(姿勢)

김팔봉(金八峰)



4·19 이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의 독재자가 넘어진 뒤에 많은 사람들이 4·19를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한 옆에서는,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3·15 부정선거 전후하여 경향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운동이 불똥 튀듯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시작한 뒤에 마산에서의 잔인한 사건이 한층 더 불 위에 기름을 부어 마침내 학생을 선봉으로 하는 전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시위운동이 경향을 휩쓸고 그 결과 경무대의 주인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혁명에 따르는 새로운 질서는 이룩되지 못한 채 1년을 내려왔었으니까, 4·19가 혁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은 말이다. 조직된 힘에 의한 낡은 질서의 개혁이 혁명인 이상, 이 같은 견해는 물론 옳다. 그러나 10년 이상 뿌리를 굳게 심은 독재정권을 때려 넘어뜨린 것만으로도 4·19는 혁명의 시초이었다고 나는 본다. "부정선거 다시하라……" "독재자 물러가라……"하는 민중의 고함 소리 때문에 그 부정선거로써 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이 마누라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 함께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었던 독재자가 초라하게 물러나지 아니했던들, 그 이후 이 나라의 정권은 도저히 평화로운 가운데 바뀌어지지 못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런 까닭으로 4·19는 5·16혁명의 시발점이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5·16 혁명은, 4·19 혁명으로 무너뜨린 금성철벽의 뒷자리에 허술하게 세워진 토담을 한숨에 걷어차서 무너뜨리고 재빨리 새 질서를 세우는 데 조직적 힘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5·16 혁명을 진정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기획원을 만들고 군사원호청을 만들고, 조달청을 만들고, 국토건설청을 만들고,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고,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고, 대학을 정비하고, 학사 고시를 실시하고, 거리에서 양담배를 없이하고 깡패를 없이하고, 밀수품의 자취를 감추게 하고, 기차여행을 명랑하게 만들고, 농지를 버리고 도회지로 떠돌아다니는 농민을 농토에 정착시키고, 어지럽게 쏘다니던 자동차와 기타 통행인들의 질서를 바로 잡은 것 등…… 눈에 뜨이는 현실의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을 주는 현상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느끼는 5·16 혁명 후의 신 질서인 것이다.
혁명정부는 혁명 후 4개월 동안에 그전의 법률을 개정한 것과 또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한 것 등, 합해서 5~6백 건의 법령을 공포하여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구축하는 「혁명 제1단계」를 지난 후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혁명 제2단계」를 1962년 9월부터 과감히 걸어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세워진 후 최고회의 박의장이 미국과 일본을 다녀옴으로써 혁명정부의 국제적 신망이 높아지고, 따라서 국민들의 혁명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 한편, 정부의 위신을 드높인 것이 그것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이 보아서 이번 군사 혁명의 제1단계와 제2단계는 성공적으로 과정하였다 할 것이다.
이제 1962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새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착실하게 실천하고 건설하는 혁명 제3단계로 들어간다. 이 같은 실천과 건설의 단계에서 우리의 군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군인들은 5·16 혁명의 주인이다. 군인은 혁명대열에 앞장서서 그 대열을 이끌고 왔으며, 또 앞으로 이 혁명대열을 이끌고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데까지 전 국민이 참가하도록 혁명대열을 크게 넓히어야 한다. 이같이 하는 일이 혁명 수뇌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민간인에게 정권을 양도하는 앞으로 일 년 반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나라 민주 공화국의 기초를 튼튼히 닦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자손만대의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같이 크고 무거운 사명과 책임은 비단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있는 고위층 군인이나 또는 혁명

정부의 각료들과 기타 공직에 앉아있는 군인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인들한테 맡기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의 조직체요,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의 행동은 군대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때문이다. 가령, 전쟁을 할 때 한쪽 방어 전지에서 일개 소대나 일개 중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경우에 일개 사단 혹은 일개 군단의 전선이 불과 수십 명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는 수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지휘관의 책임과 사명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사병들의 책임과 사명도 지휘관 만큼 무겁고 크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각자가 5·16 혁명을 이 나라 민족의 마지막 혁명으로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혁명대열을 키우고 이끌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일만 실행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만 망칠 뿐 아니라 혁명 주체 세력의 권위와 신망과 위신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의 앞날을 망치기 쉬웁기 때문이다. 문제가 이같이 중대한 까닭으로 혁명 제3단계에 다다른 1962년에 있어서 우리 군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마디의 말로 군인들의 자세라고 말하는 그 자세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몸가짐이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표현인 만큼 자세라는 말은 그리 간단한 말이 아니다. 사람이 흥분했을 때의 눈과 표정과 실망했을 때의 눈과 표정이 다른거나 마찬가지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가 바르기도 하고 비뚤어져 보이기도 한다. 이미 사람의 모양이 이 같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자세를 바로 갖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갖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같이 쉬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서 제멋대로 종작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이다.

혁명 제3단계를 과정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①방정(方正)하고 ②인내(忍耐)하고 ③순종(順從)하고 ④협동(協同)하고 ⑤봉사(奉仕)하고 ⑥용감(勇敢)하고 ⑦총명(聰明)해야 하겠다.

방정하다는 것은, 바르고 반듯하고 꼿꼿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괴로움을 참고, 욕심을 참고, 유혹을 이기고, 자연의 이치와 진리에 순종하며, 한겨레가 한 덩어리 되도록 뭉치어 협동하며, 국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정신에 투철해야 하고, 그리고서 항상 용감한 투지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 나가되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총명한 슬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방정·인내·순종·협동·봉사·용감·총명을 마음에 닦으면서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행실을 하루하루 반성하여 나간다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고, 어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던가 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날마다 자기반성을 거듭하기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전일보다 훨씬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하여서 군인들의 몸 갖는 자세가 그 바탕에서부터 바르고, 반듯하고 꼿꼿하고, 용감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된다면, 군사 혁명 대열의 크나큰 부대는 더욱 커지고, 희망에 가득 차고, 공산당을 이기고서 국토를 통일하는 길은 열리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기초 작업이다.

그담에 몸 갖는 자세를 위하여 이같이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동시에 항상 승공이념(勝共理念)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공산 오랑캐들과 마주 보고 앉아서 먹히느냐, 이기느냐 하는 판가름 길에 놓여 있음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의 자유를 말살하고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공산 오랑캐들을 이기고서, 진정으로 공포 없는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도루 찾아 주기 위한 신성한 사명을 맡은 나 자신이라는 자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같이 마음의 바탕을 닦고 몸 갖는 자세를 세운 후 승공이념으로 무장을 갖추었거든, 그 사람은 항상 그의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만 한다. 말로만 잘하고 행동은 그와 정반대 이어서는 남들이 그를 믿지 않는 때문이다. 전우와 동료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인이 또한 믿지 아니할 것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혁명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나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군인들은 진정으로 각자가 반성하여 민간인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실천과 건설의 혁명 제3단계의 임무에 참가하도록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필자·사회 평론가〉

☆근대 시민적 윤리와 행동 양식

종교적 외피를 탈피하고 근대 시민의 행동 양식을 규범한 것으로 프랑스 혁명 때 작성된 인권선언 즉,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보다 더 명쾌한 것은 없다. 그 요점은 처음의 6개 조에 요약되어 있다.

한 번 더 읽어 두자.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지녔으며 생존하는 권리를 가졌다.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정치상의 모든 집단은 인간의 자연적 또는 절대적 여러 권리를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유 재산 안전 및 압박에 저항하는 권리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 어떠한 단체, 어떠한 이에 반하는 권능(權能)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유란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자가 자연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와 동일한 권리를 향수하겠금 보증하면 되는 것이며 그 외의 한계는 없다. 이 한계를 정하는 자는 오직 법률뿐이다.

◇법률은 보편적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에 의해서 법률 작성에 협력할 수 있다.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히 행사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모든 요직 지위 및 공직에 앉을 수 있다. 그들에게는 덕과 재능에 따른 구별이 있을 뿐이다.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에 대해서만이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을 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개인주의(個人主義)와 공동체(共同體) 정신(精神)

홍종인(洪鍾仁)

단체의식=공동의식 결핍내지 부족을 마치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천래(天來)의 고질인 양 탄식하는 우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개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복되고 즐거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서구적 의미의 커뮤니티의 사상은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발전 의욕을 가지고 솔선하여 자기 목표에 일치시킬 때 우리도 떳떳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편집자>

우선 부탁받은 대로 대답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군 잡지 「미사일」이 나에게 부탁한 글의 제목이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이러한 것이라고 기억한다. 문제는 마치 어떤 졸업시험이나 자격검정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제목을 골라서 이야기해 보라고 부탁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는 개인주의란 말에 세속적(世俗的)인 그릇된 해석도 포함되어있는 듯하다. 하여튼 문제가 거창하여 어떤 학자이건 또 정치가 이건 이야기를 벌려 놓자면 얼마든지 깊고 넓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 없으나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 군인이나 청년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공장 직공이나 상인이나 농민이나 누구이고 오늘의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비추어 보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임을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 사회생활 가운데 부딪치는 가장 가까운 이야깃거리며 동시에 그때마다 그 해결이 요구되는 의문 또는 사회 모순(矛盾)의 실마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내걸고 여기에 무슨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느낀다. 그러나 부탁받은 대로 또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논문이 아닌 이야기로서 몇 마디 적어 보고자 한다.

1. 개인주의(個人主義)와 민주주의(民主主義)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기주의(利己主義)라는 말로도 혼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인 듯 싶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개인주의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보아 인간의 본성, 나가서는 개인의 발견이라는 데서 비롯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자유와 존엄(尊嚴)이 존중되며 동시에 독립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가 명백하여야만 비로소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 의사의 적절한 판단을 얻어 최대한도의 독립된 자유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어떤 신격(神格)을 가진 제왕의 권위나 권력에 예속될 것도 없고 또 기어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횡포한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이 모든 개인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공동 책임하에 건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개인주의라는 사상의 기초가 되어 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상의 발달은 봉건적(封建的)인 사회신분(身分) 관계를 타파함으로써 양반이니 상놈이니 또는 어떤 장인(匠人)이니 옛날식의 백정(白丁)이니 하는 신분상의 사회적 구속을 없이하여 모든 개인이 자유요, 또 평등일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이를 강력히 주창하여 사회의 정치상 산업 경제상 제도화하기에 이른 것이 곧 민주주의 사상의 시초요 제도의 기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발달의 가장 대표적인 시초의 결과로는 계약(契約)의 자유란 것을 들 수 있다. 혁명적인 행동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즉, 각 개인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자신의 책임과 권리에서 행동할 수 있다고 할 때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개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와도 그 자신들의 판단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준 삼아 권리와 의무관계를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산의 처분을 비롯하여 혼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독립과 자유는 사상으로서 뿐 아니라 법과 사회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까지 그 사상이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사상이 건전한 각 개인의 건전한 자유 활동에 의하여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이룩한다는 이상적 목표를 가지는 반면 개인의 자유가 곧 개인 간의 자유경쟁을 용허하게 되며 그 결과로는 사람에 따라서 남에게 손해 입힘으로써 자기개 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남의 이익, 즉 이웃(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공동 이익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예를 우리는 역사상에도 많이 보았거니와 우리는 이 나라의 최근의 정치, 경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태—즉 국가 사회가 무너지고 뒤집히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는 동안의 경위를 살펴볼 때 개인주의 사상은 건전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는 사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사회를 망쳐버리는 이기주의 —저만 잘 먹고 저만 잘 살고 그러기 위하여 온갖 불법과 부정도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권력도 폭력도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하며 권세와 지위를 탐하는 종류의 썩어빠진 정신으로 빗 흘러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주의란 것이 저마다 개인을 위주하는 주의라고 하여 완전히 이기주의라는 말로 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 변천과 혁명 과제

여기서 생각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회란 것이다.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다수가 모여서 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서로 모여서 산다는 것은 결코 두 남녀가 모여 부부를 이룩한다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것이다. 어떤 광야에서 아담과 이브라는 남녀가 생겨나서 자식을 낳아 그 종족을 퍼뜨리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것이다. 사회는 본래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겪고 같이 살기로 마련된 공동체(共同體)인 것인 것이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생활을 하기로 되었고 오늘까지 갖은 파란이 많았으나 인류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부족(部族)의 생활이오, 국가의 발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냇물과 같이 흐르고 있다. 항상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냇바닥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냇물이 넘치기도 한다. 가뭄과 홍수가 자주 생기는 동안에 또 얼어붙기도 하고 녹아 흐르기도 하는 가운데 냇물은 굽이굽이 어려운 흐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갈 곳은 바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자연적인 현상과 같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람은 그들이 가야 할 바 먼 이상 세계를 그리며 사회라는 냇물이 바른 길로 평탄히 흘러야 할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인류의 역사요 인간의 당연한 사회생활이라 할 것이니 우리들은 냇물이 마르지도 않고 또 냇물이 넘쳐 홍수의 피해를 입지도 않고 먼 바다로 늠늠히 많을 것도 적을 것도 없이 그득이 차 있는 바다로 냇물이 자연스럽고도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동뚝도 쌓고 산에 나무도 심는 온갖 시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이상의 표현이요, 끊임없는 사회개혁이요, 또 당면한 우리의 혁명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혁명은 곧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는 일인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며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무찔러 버리고 새로이 국가의 권력을 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해석상 틀림없다. 그러나 혁명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결국은 자유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또 군사정부로 권력의 주인공을 바꾸고 부패와 부정의 책임자들을 털어 내자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주인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이상 세계를 발전시킬 토대를 바로 닦아 나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근본 과제는 이 사회를 국민 각 개인의 정당한 의사를 토대로 하는 사회공동생활의 정신과 방도를 바로 세우고 그 방향에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근본구조를 혁신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늠름한 바다의 차 있고도 넘치지 않은 수평(水平)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의 최종의 역사적 목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공동체 정신과 발전 의욕의 계발

여기서 다시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 사회가 공동체이며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은 한 가지로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동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인 때문에 싫어도 한국 사람이오 또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싫건 좋건 한국의 법과 제도, 질서 속에 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한국 사람인 때문에 한국의 국가적 공동 목표와 사회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든 개인이 큰 깨달음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국민정신을 떨쳐야 할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협력하여 이룩할 공동 목표인 새 사회란 무엇이냐. 이는 우리의 역사가 보이듯이 오래 묵은 봉건적인 특권계급이 권력으로 뒤흔들던 옛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가장 합리적인 자유 평등의 사회를 이룩하여야 하는 일일 것이니, 이러한 근대적인 새 사회라는 실체(實體)는 정치 조직이나 문화의 계발, 그 혜택의 보급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한 모든 발전은 국가라는 것의 커다란 한 덩어리의 근대적 경영원리를 생각할 때 산업경제의 혁명적 발전을 도모하지 않아서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산업경제의 현대적 시설에 의한 자작자급(自作自給)의 자주 체제는 곧 국민 전반의 복리와 자립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살림이 무엇이며 혁명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개인주의란 것이 결코 이웃을 해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개인의 출세나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참된 깨달음을 가지고 나라의 흥망이 곧 각 개인 책임과 의무요 동시에 그 권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부강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커다란 국가라는 유기체(有機體)의 각기 한 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주의의 발달이 구라파에서 움터서 거기서 발달하여 오늘의 구라파와 미국 사회의 번영과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실물을 우리는 보고 있다.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흔히 쓰이는 말에 Community라는 말이 있다. 그 나라, 그 사회가 다

(8면으로 계속)

한국(韓國) 사회구조(社會構造)의 특질(特質)과 민주주의(民主主義)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이식된 민주주의는 영광스럽기만 하여야 할 한국의 현대사에 15년의 연륜을 기록하는 동안 정상적인 면보다는 비정상적인 면을 더 많이 드러내었다.
이에 국가 재건의 새 아침을 맞아 지금까지의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에 작용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이 세계의 석학 이만갑(李萬甲) 교수의 혜안을 빌려 분석해 본다.

<편집자>



내 견해로는 지금은 한국의 필요에 알맞는 형태를 발견하고자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험기라고 본다. 어떤 주어진 외국의 형태—그것이 영국식이든 미국식이든 또는 인도식이든 그것이 한국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내 의견으로는 민주주의적 본질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곧 정치적 경쟁의 권리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최대 자유의 필요이다. 이것은 최근 한국을 다녀간 공산권 연구에 있어서의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스카라피노 교수가 말한 내용이다. (「동아일보」 1월 11일 조간)

이 말을 좀 더 단적으로 말한다면 민주주의는 언론 자유와 의회 제도에 입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이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전된 민주주의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과거의 15년간에 걸친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언론 자유와 의회 제도에 대하여 회의 내지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허다한 현상을 목격하여 왔다. 그런 나머지 일부에서는 한국인은 때려야 알지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점차 강해져 갔다. 이리하여 사람들 중에는 선의의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이율 상반되는 두 개의 원리를 조화시킨 어떤 정치 형태를 모색하려는 기운이 농후해져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본고의 논점이 될 것이다.

× ×

한국의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은 그것이 내부적인 조건의 필요에 따라 자란 것이라기 보다 외부에 의해서 이입된 것이며 그것을 짊어지고 나설 튼튼한 계층의 배경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구의 민주주의는 시민 계급을 배경으로 하여 자라난 것이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짊어지고 나설만한 시민계급의 형성을 보지 못하였다.

이조(李朝) 말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사상을 도입해 온

사람들은 진취적인 양반들이지만 그들은 국내의 경제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투로 말미암아 국내의 정치 정세가 혼란하게 되어 어떤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또한 외국 물정에 접촉할 기회를 얻어 외국의 발전에 놀라고 그것을 선망한 나머지 점차 민주주의 사상에 매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개화파 선비들과 수구완고파들과의 싸움은 정치적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것이고 결코 경제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못 되었다. 그와 같이 생활의 내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촉구된 것이 아니고 대중의 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너져 가는 같은 지배 계급의 양심적인 인물들에 의한 민주주의 운동이 그렇게 견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2차 대전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하여 미국이 한국에 군정을 실시함에 따라 사람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만 변한 것은 외양뿐이지 실제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방식은 봉건적이며 권위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거기에는 아직 민주주의를 짊어지고 나설 시민계급이 튼튼하게 형성되지 못했으며 관료의 비호를 받아서 겨우 육성되고 있는 도중이었다. 이리하여 민주주의를 절실히 희구(希求)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인테리, 언론인들의 민주주의 관념도 생활의 현실 속에 뿌리를 박은 것이 못되며 관념적으로는 민주주의자인 듯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보면 다분히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진보 보수의 태도에 관하여 대학생을 조사해 본 바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대학생이 영국의 일반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고 있었다.

그러한 인테리, 언론인들이 주로 지지를 팔아먹는 직업 생활의 테두리 속에서 호흡하며 외국에 향한 자세로 선망과 모방을 일삼는 한편 현실에서 도피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든가 또는 허공에 뜬 무책임한 비판을 내리는 일에 도취하였다는 사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끌어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중 속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사고하지 못하면서 관념적으로 서구적 민주주의의 기성복을 착용하려는 층이 있는 반면에 폐쇄된 사회에서 전통과 구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층이 있다는 것이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의 중대한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농촌에는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읽고 쓰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수년전에 어떤 국한된 촌락에서 조사해 본바 가구주의 80여 퍼센트는 전혀 국민학교조차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극히 가족주의적이며 가족을 떠난 개인의 활동이 있기 어려운 농촌에서의 가구주의 역할은 몹시 크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경제·정치를 짊어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층이다. 젊은이나 부녀자는 모두 가구주의 주장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발언권은 가구 단위로 주어지기 쉬우며 그런 때 언제나 가구를 대표해서 나서는 사람은 가구주인 것이다. 그 가구주의 절대 다수가 근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을 때 거기의 생활 양태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의 상당수는 자기의 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직접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 까지도 이렇다 할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정치는 홍론에 입각한 정치이며 여론은 공중의 의견이다. 한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 가능할 몇 가지 방책이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공중은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리하여 한국인의 적지 않은 수가 아직 공중을 이룰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민주정치에 자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관의 수탈을 받아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의 압박을 덜 받기를 원하는데 그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그것을 찾겠다는 의식이 거의 없다.

한국이 근대화의 과정을 밟은 지 이미 반세기를 훨씬 넘었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실시한지도 십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치란 으레 나라에서 잘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관념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장을 뽑을 때에도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도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잘 반영시켜서 될수록 정부에게 덜 빼앗기고 덜 괴로움을 당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준(規準)에서 이장을 뽑는 것이 과거의 형편이었다.

자기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식이 약하고 정부가 자기들을 위해서 있으며 자기들이 좌우할 수 있고 또 좌우해야 하는 자기들의 정부라는 관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옳은 민주주의가 이룩될 때가 없다. 해방 후 한국은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지 못하고 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체제만은 훌륭한 보통 선거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대전이 끝나 자유·평등·평화·진보 등의 이상에 약동하고 있었던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제한 선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전혀 없었지만 만일 있었다면 그는 당장 반민주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매장되었을 것이다. 보통 선거 제도에 관한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에도 물론 지속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의 양지사항(諒知事項)인 것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특히 그런 사람의 수가 극히 많은 후진적 사회의 경우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일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아주 불우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불행한 사정들은 반드시 정치에 반영되고 시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그들 자신의 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행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보통선거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여하튼 선거권을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보다도 몰라서 혹은 속아서 자기들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대표자로 뽑은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셋째 번의 요인은 아마 관료들일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조 오백년에 걸친 관인 사회에서 생존하는 동안에 참으로 고약한 버릇을 키워왔다. 그것은 벼슬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버릇이다. 이조 오백년은 참으로 관리 만능의 시대였다. 그 시대에 양반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양반은 간단히 말해서 벼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4대 이내의 직계 가족 성원이다. 그들이 임금을 받들고 관인 체제를 공고하게 지켜온 치자 계급이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벼슬하는 사람은 양반 출신이어야만 했고 벼슬을 못하고 4대가 지나면 그 자손은 양반계급에서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었다. 양반에서 한번 떨어져 나가면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한번 벼슬만 하면 권세와 재부(財富)가 저절로 따라왔다. 양반이 어찌나 좋은지 아직도 시골에 가면 가문을 따지고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족보가 소중한 까닭은 자기가 어떤 벼슬을 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통한 벼슬을 한 조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족보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되며 가능하면 돈을 줘서 훌륭한 집안의 족보에 한 다리 끼인다던가 혹은 한때 「가짜 징용증(徵用證)」을 사는 사람이 있었듯이 벼슬을 사서 이름 있는 가계를 만드는 자까지도 있었다. 양반이 되어야만 남의 괄세를 안 받고 통혼도 괜찮은 집안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조시대의 관리는 왕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결코 백성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 체계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교였다. 유교는 인(仁)이니 의(義)니 신(信)이니 하는 것을 숭상하므로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것은 치자 계급 내에서의 행동 지침이지 피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백성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으며 사실 알 수도 없는 개와 마찬가지의 존재였다.

한국인에게는 당파심이 강하고 중상모략을 잘 하는 사회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의 민족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 어떻게 되어서 형성되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주로 이조시대의 관료 체제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처음에는 벼슬의 수와 벼슬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겠지만 점점 벼슬의 수에 비해서 희망자가 늘어가면 결국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말직보다는 큰 감투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자연 위에 앉은 사람을 모함하여 떨어뜨리려고 하게 된다. 이리하여 감투를 둘러싸고 쟁탈전이 벌어져 당파를 형성해서 중상모략을 일삼고 그에 부수해서 아유(阿諛) 고식(姑息) 면종(面從) 복배(服背) 등의 여러 가지 관료 근성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료 근성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관료의 덕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관리를 영어로는 Civil servant라고 한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공복(公僕)이 될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관리들은 말로만 하는 공복이 아니라 진실로 공복이라는 신념을 가진 공복이다. 그러나 한국의 관리의 대부분은 그런 민주적인 공복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전제적인 왕조 시대에서 행세하던 관리의 근성에서 얼마 탈피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근대적 관료주의의 특성은 봉급 제도와 정치적 중립주의(불편부당) 그리고 능률의 세 가지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리는 합당한 봉급을 받고 있지도 못했으며 신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취약했고 또 능률을 올릴만한 기술적 훈련을 잘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일본인이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초기에 먼저 손을 댄 사업의 하나는 봉급 제도의 확립이었다. 법합리주의적인 현대국가에서는 예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법이 잘 준수되게 하려면 법을 실천하는 관리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관료의 위세를 조절하고 부정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의회이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민주주의 신봉자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자가 많고 탐학하는 데 있어서 이조 시대의 벼슬아치와 정신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구투적인 관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몹시 크며따라서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의 역할이 크다. 관료가 옳은 이념과 적절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료가 전근대적인 가치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운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부패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조장하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자유·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치 이념이며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의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민주주의는 개인이 튼튼하고 그것이 잘 조직되어서 전체의 통합과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아직 개인의 자각 정도가 얕고 튼튼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옳은 민주주의가 육성되기는 퍽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로서는 국민 중에 민주주의를 짊어지고 나설 튼튼한 주도적 층이 있어서 국민 전체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 극히 조잡한 개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몇 개의 주요한 계층을 암시하고 그 계층들이 민주주의적 발전에 관련해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한 계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빨리 성장하고 튼튼해질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법 제 땅에 뿌리를 박고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식인이 관념적으로만 흐르지 않고 자기의 공동 생활체 내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생활의 방법을 찾아내는 한편 관료가 새로운 가치 체계에 입각한 사회적 양심과 기술적 지식을 갖고 나가는 것이 극히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서울 문리대(文理大) 교수)

공군장교(空軍將校) 부인(夫人)들이 말하는
가정(家庭)과 생활(生活)의 주변(周邊)



이와 생활(生活)과

시일 1월 12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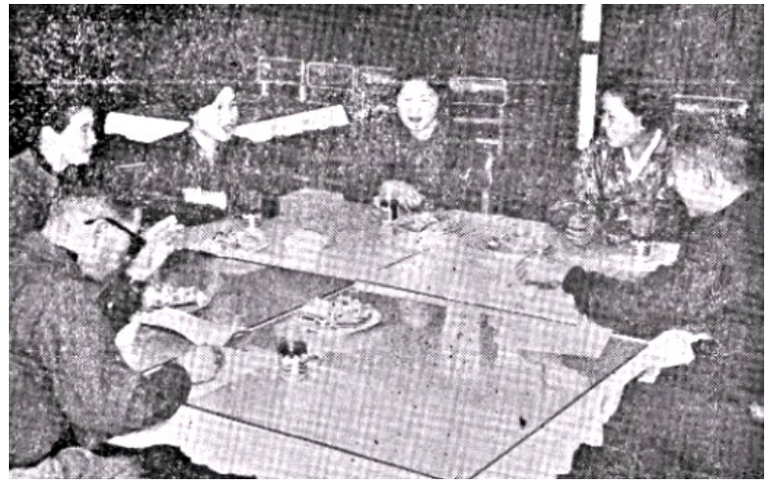
장소 공본정훈감실(空本政訓監室)

참석자
김교(金嬌) (이재우 대위 부인)
이인숙(李仁淑) (심수명(沈洙明) 대위 부인 고교 음악 교사)
오신근(吳信根) (김경태(金慶泰) 중위 부인 아나운서)
김병영(金炳榮) (이문규(李文奎) 중위 부인 교육사업)
사회 민재익(閔載翼) 대위

(기록·유기영)

<내조> 부대 일 가정에까지 얼굴 보아 피로 알아

사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주신 것만 가지고도 공군 장병들의 사기 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더욱 보람 있는 모임이 되겠군요.
-참석자의 소개가 있은 후-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플랜도 많으시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시고 계신지 그것부터 알고 싶군요.
오신근 제가 먼저 얘기하기가……
(웃음)
사회 솔선수범 하세요 (웃음)
오신근 특별히 내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이가 퇴근해 오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웃으며 맞아주는 것이 그이의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 결혼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사회 꽃 같은 것을 방 안에 꽂아 준다던가?
이인숙 왜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피로를 알 수가 있어요.
김병영 저의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지는 몰라요. 그이는 퇴근할 때 꼭 일거리를 가져와요. 부대에서 하다 남은 일을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밤이면 우리 방이 꼭 내 직장만 같아요. (일동웃음)
오신근 저도 비슷해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바쁜 몸이지만 그이가 일거리를 가져올 때는 제 일을 제쳐놓고라도 도와주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족도 단 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비둘기 부부라고나 할까요. (웃음)
김병영 댁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세요?
이인숙 한 달이에요.
오신근 전 3개월이죠.



공군(空軍)과 그

(좌담회 광경)

김병영 전 1년 1개월.
김교 전 11년이에요.
사회 제일 선배시군요.
<남편이 하는 일>
굳은 신념(信念) 불안해소(不安解消) 폭음(爆音) 소리 생활(生活)의 복음(福音)
사회 조종사의 부인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교 아까 새해 플랜 얘기가 있었지마는 다른 가정에서는 물론 다채로운 플랜이 있겠지만 저의 가정에서는 역시 비행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가정에서의 아내의 정신적 역할이 남편의 직장 업무와 직결되는 도가 높아서요.
사회 비행기의 폭음소리를 들으시면 느낌도 남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김교 남편이 타고 있다고 그것을 제일 먼저 느껴요. 그 소리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들려요. 그것은 분명히 생명의 소리, 약동의 소리, 우리 생활에서는 복음과 같은 소리에요.
사회 전번에 「미사일」에 실릴 소설을 모 작가한테 부탁을 했더니 조종사의 아내의 경우를 테마로 썼었는데 주인공인 아내가 불안을 느낀다는 그런 대목이 있더군요.
오신근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좋아서 공군이 좋아졌는지 공군이 좋아서 그분이 좋아졌는지? (일동 웃음) 역시 약간의 불안은 느끼겠죠.
김교 저는 바로 당사자입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결혼 전에는 조종사는 위험해서 결혼의 대상이 못 된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한 뒤에는 뚜렷한 신념을 자연 가지게 되요. 요즘의 비행 안전은 자동차보다 안전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특수한 기능으로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어요.
김병영 공군이라면 비행기를 타야 하잖아요. 한번은 그분이 비행기를 탄다고 자랑을 하기에 공군 장교가 그것이 무엇 자랑이냐고 했더니……(일동 웃음)
오신근 전 방송에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셈이죠. 그런데 그분은 공군에서 후방에 계세요. 그렇지만 전력의 가장 근본 되는 정신 무장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결혼동기>
조종사(操縱士)는 모두 애처가(愛妻家) 그이 좋아서 공군(空軍) 좋아
사회 결혼 동기가 퍽 궁금합니다. 아까 공군이 좋아서결혼을 했는가 그분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가? 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김병영 전 군인은 싫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좋아졌어요. (일동 웃음).
이인숙 역시 그분이 좋았군요 (일동 웃음)
오신근 공군이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서 공군이 좋아졌어요. (일동 웃음)
김병영 댁에서는 연애결혼?
이인숙 열열한—.


이인숙

김교 전 어릴 때부터—
사회 소꼽동무였군요. (일동 웃음)
김교 일반에서는 조종사라면 성격이 난폭하고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결혼에는 못마땅하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미안했어요. 조종사 치고 애처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일동 웃음)
사회 그러고 보니 모두가 그분이 좋아서 공군은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일동 웃음)
김교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늘이란 무한대한 넓은 일터, 거기서 남자다운 철학, 인생관 있잖겠어요. 그것이 좋아요.
김병영 조종사의 아내다운 남성관—(일동 웃음)
김교 프랑스의 소설가. 쌩·떼쥐베리가 쓴 조종사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야(視野)의 묘사 같은 것 같이 생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사회 한국의 산은 번드르하고 파아란 들 가운데의 한길을 달리는 버스가 움직이곤 있으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저는 이 버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 적이 있었죠. 저 속에 탄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가기 위해서 탔을 거라고.
이인숙 어쨌든 공군은 멋쟁이에요.
김병영 그래서 그처럼 열광적 연애를—(일동 웃음)
오신근 유니폼이 멋쟁이에요.
이인숙 지성적(知性的)인 냄새도 담뿍—.
김병영 공군 아내가 모여서 공군 자랑만 하세요? (일동 웃음)
김교 헌데 평복을 하면 형편없어요. 시골 면장 같아요. (일동 웃음)

〈일요일〉

결혼(結婚)하니 게으름뱅이 휴식(休息)의 원칙(原則) 방해(妨害) 없도록

사회 일요일은 어떻게들 즐기시죠?
김병영 그이는 자꾸 바둑 두자고 그러잖아요.
사회 부인께서 바둑을 아십니까?
김병영 아녜요. 조금 가르쳐 주고는 그래요. 탁구도 치고요.
오신근 스포츠 같은 것 좋다고 생각해요. 그이는 결혼 전에 곧잘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는 아주 게을러 졌어요. 저 때문에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일요일엔 뭣 하시죠? (김교 부인께)
김교 일요일보다 토요일 하오를 이용해요. 일요일은 맛있는 음식이나 해서 푹 쉬게 합니다.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게 하는 셈이죠.
오신근 전, 요리 솜씨가 없어서.....(일동 웃음) 토요일 하오가 휴일로서는 더 흐뭇한 감을 주더군요. 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교회에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밀린 일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바쁘더군요. 또 인사 가야 할 곳도 있구요.
사회 찾아오는 분도 있겠죠. 이를테면 부부동반 외출했다가 방문해 오는 경우라든가.
이인숙 있어요.
김교 하지만 미리 약속 없이는 방문 않는 것이 좋아요. 휴식의 원칙을 방해 않는다는 의미에서—저의 경우는 일요일을 푹 쉰다는 것은 비행 안전의 생명으로 생각해요.
김병영 정말 결혼하면 모두가 게으름뱅이가 되나 봐요. 날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신근 그런가 보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때로는.
김병영 전, 열전을 좋아하는데 그이는 냉전을 좋아해요. 말이 없고 식사도 들지 않고 누워버리거든요. (일동 웃음) 그래서 그럴 경우 전, 바둑판을 내밀어요.(일동 웃음)
오신근 바둑은 마음을 안정시킨다죠?
김병영 그렇다 그래요. 전번엔 책을 한 권 부탁했더니 바둑책을 사왔어요. (일동 웃음)
오신근 그이는 「여원」을 사왔더군요.
김병영 그분은 「여원」을 사와서는 재미있는 것을 먼저 다 읽고는 내놓곤 해요.
이인숙 낚시는 재미있나 봐요. 일요일에는 도시락을 싸서.....

미모(美貌)와 마음씨와 표정(表情)...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얼굴의 형을 지고 있다.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미모란 반드시 얼굴의 생김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마음씨가 나쁘면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 되지 않고 마음씨가 좋으면 태어난 얼굴 생김새가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풍기게 된다.

젊을 때는 타고난 얼굴 생김새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에 띄우기도 하지마는 세상의 경험을 쌓고 나이도 들고 항상 바르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게끔 노력하면 표정이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새 고상한 멋과 깊은 맛을 간직한 얼굴이 된다.

눈이며 코며 입, 그 하나하나가 이쁘다고 해서 반드시 얼굴 전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얼굴 전체가 풍기는 아름다움이란 별개의 것이다. 전체의 아름다움의 조화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뒷받침이 없고는 생겨나지 않는다.

미인은 그 스스로가 미인을 자처하여 자랑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만큼은 아름다움은 감소되고 만다. 가령 얼굴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명랑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함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타고난 얼굴의 미(美)는 소멸하기가 쉬워도 마음의 아름다움과 올바른 생활에서 생겨나는 얼굴의 아름다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아름다워진다.


김교

김교 일요일에는 부부동반이 필요해요. 낚시라든가 등산이라든가 함께 즐기는 데 뜻이 있잖아요. 참, 한국 남성들은 반성할 점이 있어요. 부인은 팽개치고 다른 여성과 곧잘 일요일을 소일하는 버릇, 좋지 않아요.
일동 정말 동감이에요. 나쁜 버릇이란 말이에요.
사회 이거 공격이 대단하십니다. (일동 웃음)

〈봉급 인상〉

하고픈 것 너무 많아 문제(問題)는 활용여하(活用如何)에 달려

사회 올해부터 봉급이 오릅니다. 가정생활의 스케줄도 달라지리라 보는데?
이인숙 그래서 꿈이 많아요. (일동 웃음)
사회 인상된 액수에 대해선 일정한 비율로 저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영 저금은 정말 필요해요. 중위 봉급 가지고 저축할 여유는 없지마는 그래도 몇 푼 해두었더니 전번에 해산할 때에 필요하게 썼어요. 그렇게 당국에서 저금을 장려하는 것은 부서져서 여러 가지 비극을 연출하는 계보다 얼마나 좋다구요.
사회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김병영 바둑 책이라도 사겠죠. (일동 웃음)
김교 책, 레코드 좀 갖고 싶은데 잘 안되요. 그래서 그간 못 가졌던 책이며 레코드를 좀 갖고 싶어요. 독서나 음악 감상은 정서 생활에 필요해요.
이인숙 전, 하고픈 것이 너무 많아서요. (일동 웃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가에 있다고 봐요. 실은 집이 없어 셋방살이를 하고 있자니 애로가 많아서 어떻든 집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오
오신근 신혼생활은 정말 돈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번다고는 하지만 구멍 뚫린 독에 물 담는 격이에요.
김병영 저는 지금 경우가 다르나봐요. 시어른께서 교육사업을 하시니까 저도 그 사업의 일원이 돼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출혈 운영이기는 하나 그래도 봉급은 어쩐지 푼돈같이 없어져요.
이인숙 그래도 그만하면 여유있는 생활이에요.
김병영 둘이 같이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인 서적은 많지 않아요. 책상이니 의자니 하는 것은 학교의 것을 가져다 쓰는데 자꾸만 의자가 빈약하다고 하며 사장 같은 커다란 의자를 사달라고 그래요. (일동 웃 음)
이인숙 봉급을 가져와도 얼마 달라 얼마만 달라 해서 도로 가져가곤 해요. 포켓머니를 절약해야겠는데
김병영 전번 날 밤에 부대 친구가 부랴부랴 와서 서두르며 나오라기에 비상 소집인가 했더니 얼마후에 얼굴이 붉으래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곤 술값 달라잖아요. 한달 치 용돈을 털어버리고 지금 야단이에요. (일동 웃음)
오신근 그이는 술 담배는 안 해요.
김병영 친구를 위해선 당신은 희생해야 한다고 그래요. 정말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에게는 극진이에요. 결혼 때도 그것을 약속했다고 그래요. 하기야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애정보다 우정을 우위에 놓아요.
오신근 그건 걱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이는 부대에서 꼭 집으로 돌아와요. 남자는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이 좋은데 나 때문에 고립되거나 않을까 걱정이 되요.
김병영 애정이 굉장하십니다. (일동 웃음)
오신근 경고합니다. 남편은 모름지기 부인을 사랑함을 생활의 제1위로 삼으라고. (일동 웃음) 물론 친구를 사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정을 파괴할 정도는 안 되죠. 오늘 이런 자리처럼 친목을..... 특히 휴일은 부인과 더불어.
사회 아이가 많고 하면 곤란해지죠.
오신근 가족계획—그런 거 있잖아요.

단점(短點)과 장점(長點)과 성격(性格)....

성격에 있어서 장점이니 단점이니 하는 것이 있다. 단점으로서는 가령 사교성이 없다든가 성질이 급하다든가 난폭하다든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란 단점이 장점으로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제력이 강하고 신중성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겁이 많은 사람은 심려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용기 찬 사람은 난폭한 성질이 되기가 쉽다.

문제는 노력 여하에 있다. 마음이 약하고 자손이 없는 사람은 신중을 기하고 자기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한다면 성과가 없을 이 없다.

장점이니 단점이니 하지마는 어느 것이나 동일한 소질이 단점이 되어 나타나고 장점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소질이 단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그것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타고난 천성을 아주 말살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 깃들어 있는 법이다.

그것을 선용해야 하며 그렇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양의 문제다.

× ×
×
× ×

(일동 웃음)

저축 절약(節約)을 제1위(第一位)로 무지(無知)한 인색은 금물(禁物)


오신근

사회 저축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인숙 속으로는 계획하고 있지만—. 직장계, 은행 같은 정기적인 저금 방법 같은 것.

사회 참, 이번에 한일은행에 좋은 방식이 있더군요.

김교 계는 한정이 차야 되고 은행은 언제나 응용할 수 있고 일장 일단이 있어요.

이인숙 저축은 꼭 필요해요. 비상사태, 이를테면 병원은 맞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병영 월급이 오르면 꼭 실천해야겠어요.

이인숙 사장님 의자부터 사야지. (일동 웃음)

오신근 저희들은 함께 번답시고 우선 쓰게 돼요. 외식도 하고.....

김병영 시집살이를 해야 사람이 된다잖아요. 전, 시집살이해서 외식 같은 버릇 없어요. (일동 웃음)

오신근 정말 절약 제일주의를 해야겠어요. 무 여섯 개 묶음에 2백환을 생각하면 합승 타는 것도 생각하게 되더군요. 무조건 저축할 생각이에요.

김교 요령 있게 쓴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헛되게 인색만 한 것 같아요. 지게꾼 삯 은 추잡스리 깎으면서 미장원에 가서는 필요 이상의 팁을 끊고. 지금 그런 환경이 못 되잖아요. 수해재민, 풍랑 재민의 경우를 생각하면 특히 군인정신을 발휘해야 하겠어요.

사회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계부 같은 것 이용합니까.

오신근 어머니께서 무척 권하시기에 결심하고 두 달 했더니 골치가 아파졌어요. 10환 20환 적고 보니 계 산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외출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불쑥 사는 예가 있잖아요. 역시 허영심이랄까?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가계부는 필요해요.

김교 처음엔 귀찮죠. 그러나 오래 계속하면 가계부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직장을 가지면〉

가정생활(家庭生活)에 불충실(不充實) 해점(害點)

이점(利點) 사회체험(社會體驗)으로 세정(世情)에 적응(適應)

사회 직장을 가지신 분이 많군요.



취미 오락난으로 퀴즐크럽난을 신설합니다. 퀴즈란 말은 많이 들으셨어도 퀴즐이란 말은 아직 낯선 말의 하나일 것입니다.

퀴즐이란 말은 최근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퀴즈라든가, 퍼즐(Puzzle) 또는 보난자 그람(Bonanzagram), 크로스 워-드(Croosword) 등을 총칭한 합성어로서 추리분석 종합력 및 독창적인 재치 등에 의한 문제해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퀴즐은 비단 문제를 풀어 본다는 오락성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로를 덜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두뇌세탁(Brain clining)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최근 외신에 의하면 이 퀴즐은 과학적 사고력 증진과 독창성의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이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합니다.

(장병 여러분은 같이 즐기시는 가운데 혹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이신 철요(凸凹) 박사에게 지면을 넘기겠습니다. 〈편집자〉

철요박사 : 엣헴 추운 겨울에 하늘의 용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퀴즐크럽의 박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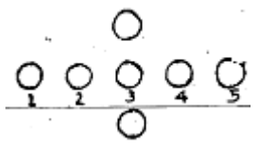
앞으로 격의 없이 한 집안이 되어 재미있게 앞으로 격의 없이이 크럽을 키워 나가십시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쉬운 걸로 달라고요? 벌써부터 이러시면 곤란한데.....

【문제1】다음 그림과 같은 일곱 개의 동전이 정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중 2개를 움직여서 가로세로 어느 쪽으로 보나 다섯 개가 되게 해보십시오. 잘 안된다구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 모르겠으면 OPage 해답을 보시도록)

다 푸신 분은 다음 문제로 넘어 가십시다.




김병영

같이 버는 애로도 있겠고 그 반면에 이로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오신근 아무래도 가정에 불충실해져요. 종일 피로해서 돌아오면 짜증내기 일쑤이고 이 점 남자가 더 하고. 책상 하나 옮기는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도 두서가 없어요. 저녁에 준비해도 아침에는 바빠요.

이인숙 식구가 단둘일 뿐인 경우에는 이(利)점도 있어요. 남편이 퇴근한 뒤 온종일 혼자서 지내기도 무미해요. 직장을 가지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사회와 직결시켜 시세에 적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적인 사회체험은 책에서 얻는 것과는 보다 실제적 효능을 가지니까요.

김교 정말 그래요. 서민의 가정주부 생활이란 천편일률적이고 권태 느끼기에 알맞아요.

김병영 저의 경우는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학교의 수업시간도 맡아있고 감독도 맡아있고 해서 밤에도 곧잘 나가봐야 해요. 부대에서 퇴근해와서 같이 앉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찾아와서 나가곤 해요. 얘기 중에 자리를 뜨면 퍽 불쾌하거든요. 더욱이 퇴근 뒤에 수업에 들어가면 미안해요.

오신근 직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가정 중심이에요. 그 분에게 지장이 있거나 하면 언제라도 그만둘 생각이에요.

사회 직장은 물론 가정 사리에 보탬을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돈을 번다는 관념만이 아니고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도 가능한 한 직장을 가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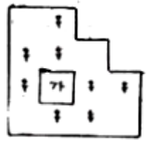
이인숙 그런 생각이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 경우에는....

사회 미국을 다녀온 친구의 얘긴데요, 택시를 탔더니 육십이 넘은 노인이 운전수이기에 어지간히 가난한 노인인가보다 생각해서 가족이 몇이며 그것으로 생활이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진 재산도 있고 아들 딸들이 모두 돈을 잘 벌어서 생활 걱정은 없고 놀고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지만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느냐고 반문을 당해서 얼굴을 붉혔다고 하더군요. 정말 배울만한 생활 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영 직장으로 인한 가정에의 불충실이 누적되면 곤란해요.

사회 대단히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문제2】 오리온 과자점에서 과자를 한 상자 샀습니다. 상자를 보니까 그림 1처럼 여섯 줄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뚜껑표면이 9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6개의 끈으로 좀 더 머리를 쥐어짜면 22개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게 성급하게 대어 들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해야지요.

[힌트] 이 종류의 문제들은 어떤 경우든지 개개의 끈이 다른 어떤 끈과도 모두 교차하도록 하되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줄이 교차하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끈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이에서 생기는 최대 공간의 수는 $\frac{n(n+1)}{2}+1$ 의 공식으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0Page의 해답을 볼 것]

[문제3] 아들 셋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그림과 같은 토지를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배하면 토지 내의 나무까지 똑같이 분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형제들은 모양까지 같아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는 '가'지역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기로 하고 나머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해답은 70면에〉



기문(奇問)

▲방금, 밤 12시의 사이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입술에 꿀이 묻었습니다. 당신은 그 꿀을 빨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닦아버리겠습니까?

▲자칫 했으면 죽을 뻔했다가 낫습니까? 자칫 했으면 살 뻔했다가 낫습니까?

5 · 16 군사혁명을 계기로 해서 국토를 재건하고, 새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기운은 바야흐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각 행정 단위별로 혹은 직장별로 재건 국민 운동 기관이 조직되어 이 성스러운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성 어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앞장서서 군에서도 활발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국토 방위의 임무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군대가 모름지기 혁명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틈틈이 여가를 선용하여 민족적 대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공군 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재건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서 그 활약상을 소개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타 부대의 재건 의욕을 더욱 촉진시키는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먼저 십전비(十戰飛)의 109대와 야전 정비대대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따르라

가슴들 언 땅에 우뚝히—
10전비 109대대 정비대대의 활약상

☆제109 요격 비행 대대

단계적 실천 목표를 설정
재건 활동 위한 특별 조직도

일천(日淺)한 역사를 가진 109대대는 조종사 훈련 교육을 비롯한 모든 작전 태세의 완비를 위하여 상하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109대대가 오늘날 우리들 앞에 클로즈업된 것은 대대장 조영환(曺永煥) 소령을 비롯한 장병들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09대대에서는 창설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재건 운동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 계획을 세웠다.

환경 미화(美化)로 마음을 다듬고

우선 제1차 계획으로 대대의 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꾸며 새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가자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이미 100%의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대대 본부 내의 각 사무실의 환경 정리하든지 청소 정돈 상태가 어디에서도 느껴 보지 못한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변소는 일류 호텔에 못지않게 다듬어져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세면대에서는 언제나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그 옆에는 비누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얌전하게 걸려 있는 거울은 말끔하게 닦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내무반에는 모두 철제 침대에 깨끗한 시트와 모포가 덮여 있는데 이것은 대대장 자신이 미군측과 직접 교섭하여 마련한 것이라니 정말 그 정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내무반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들 109대대원들이 한없이 부러워 진다.
그리고 조종자 휴게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우선 실내의 색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Green색 커틴이 창틈을 스며드는 태양광선과 알맞게 어울린다.
그뿐 아니라 휴게실의 비품 하나하나가 모두 가지런히 제 위치에 놓여 있어 우선 안정감을 주고, 벽에 걸린 그림, 사진, 그리고 진열장에 진열된 도서 등 그 하나하나가 모두 구색에 꼭 들어맞게 되어졌다. 책꽂이 차트판 장기 바둑 등 하나하나를 돈을 드려 장만한 것이 아니고 장병들이 틈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대의 환경 미화에는 대대 전 장병이 손질을 하여 이제는 어느 대대보다도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뒤에서 은밀히 힘쓴 장병 중에 특히 정비계 라인 반장 김홍준 준위를 빼놓을 수 없다고 대대장은 자랑한다.

장교부인들이 초청파티도 베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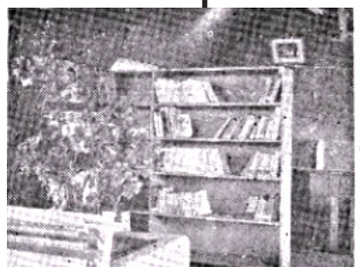
다음 제2차 계획으로서는 영내 사병들의 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인데, 우선 박쥐의 집이라는 사병오락실을 만들어 Radio 서적 등을 구입 비치하여 놓았다. 그리고 별도로 조종사 대기실에는 각종 차, 음료수 그리고 과자류를 준비한 자동 매점을 설치하여 놓아 그 이익을 가지고 앞으로 TV를 놓을 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지난 X-mas 때에는 무의탁 사병들을 김영식소령

루포

재건모범부대(再建模範部隊)를 찾아서



정비대대 도서실



나를

-뜨거운

부인 박여사가 주동이 되어서 초청 접대하고 이들을 즐겁게 해준 일이 있다.
앞으로 사병 복사의 향상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검토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박쥐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병 오락실에는 하늘색 커튼에 장기 바둑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여 야간 비행 훈련 중에도 비번 조종사들은 사병들과 정답게 간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계획은 앞서 말한 환경 미화와 사병 복지 문제를 어느 기준에까지 올려놓고, 다음에는 대외적인 면으로 눈을 돌려남을 돕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연말에는 그 계획의 일부로서 시내에 있는 3.1 고아원과 감천사양로원을 방문하고 사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1시간이나마 기쁨을 주었다.
이러한 재건 실천 계획을 세우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계획을 달성하려고 틈만 있으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열의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부서에 실천 책임자를 배치하고 올해 말까지는 도달 목표의 100%를 완성하려고 다음과 같은 조직을 하였다 (별표).

영외자(營外者)의 가정(家庭)에까지

그런데 앞으로의 욕심은 이러한 재건 활동을 각 영외자들의 가정에까지 침투시켜 보고 싶다는 게 대대장 조 소령의 포부라고 말한다. 내년 봄에 대대 주위를 환하게 장식하게 될 화초를 다듬는 조 소령의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굳은 결의의 빛이 떠올랐다.
편집자 주 : 본문 중 대대장 조 소령은 현재 SOC에 파견 교육 중 현임은 박경원 중령임

☆야전 정비대대(野戰整備大隊)

전통(傳統)있는 상조(相助) 꾸준한 재건 활동(再建活動)

다음에는 제109 요격 비행 대대 못지 않게 재건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제10야전정비대대의 활동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비대대에서는 재건 국민 운동 실천 요망에 맞추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장병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정비대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구(裝具)를 내 몸같이 용지(用紙) 절약 운동도

첫째, 승공(勝共) 이념의 확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조회를 이용하여 장병들에게 정신 훈화를 하고 별도 작업장별로 승공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회합을 갖는다. 또 종교 활동을 장려하고 정훈 교육의 체계를 별도로 내무반 중심으로 개편하고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Radio 신문 TV 등을 통한 교육을 병행한다.

제작년 10월 한국으로 온 이래, 한국 공군 장병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국에 오기 전부터 나는 한국 공군이 자유 세계의 일익으로써 한국 동란 시기를 통하여 큰 전공을 세운 것을 들었습니다. 역대의 여러 공군 참모총장 장임들의 영도하에 끊임없는 진보를 이룩하여온 한국 공군은 김신 장군이 참모총장에 방임함에 이르러 더 한 층의 진취를 가져 왔습니다.

귀국에 온 후로 한국 공군의 여러 작전과 훈련, 그리고 정보 및 후방 부대를 보고서 과거 국내에서 듣던 것이 조금도 사실과 틀림이 없었음을 알았으며 귀국 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면에 걸친 진보를 보았습니다.

작전사령부의 설립, 전천후기(全天候機) F86-D의 도입 그리고 항공본창의 거대한 시설의 건립 등입니다.

훌륭한 자유(自由)의 날개

중화민국(中華民國) 주한군사부무관(駐韓軍事副武官)
공군중교(空軍中校) 임량지(林良知)

이러한 모든 것은 나의 깊은 인상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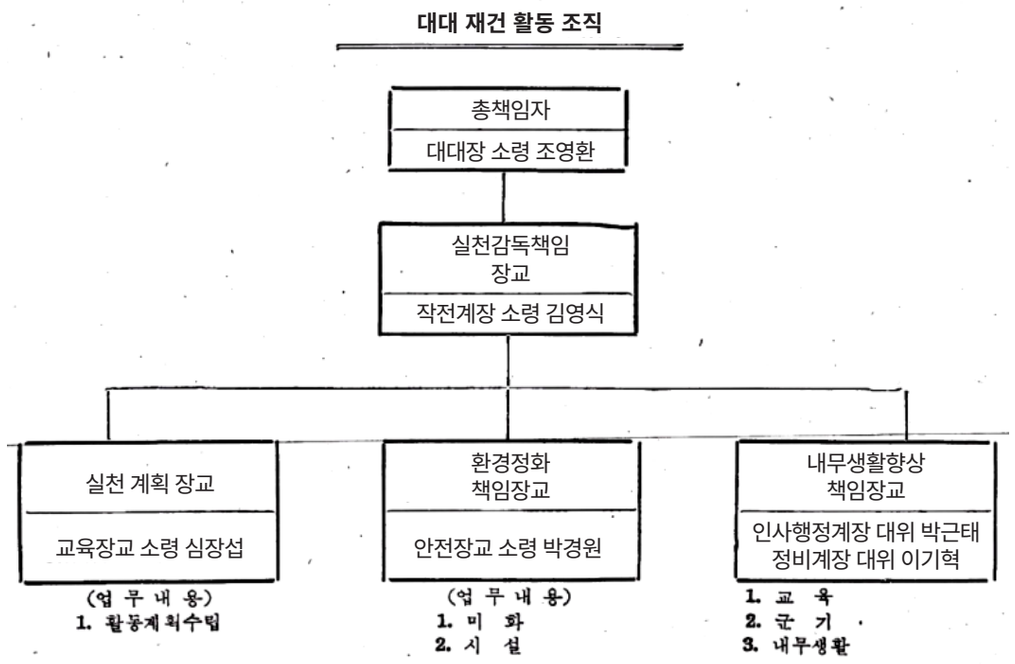
특히 한국 공군 장병들의 영예의 존중과 진충보국의 정신은 나를 더욱 감탄케 하였습니다.

중화민국 공군 총 사령 진가상(陳嘉尙) 대장이 내년 9월 한국 공군을 참관하고서 역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중 양국은 형제의 나라로서 한중 양국 공군은 심오한 우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 또 같은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공군이 힘을 합하여 공산당의 공군을 격멸하고 국가의 실지를 다시 찾고 자유를 회복하는 사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
중화민국공군(中華民國空軍)
중교(中校)는 대한민국 공군 계급으로는 중령임

(별표)



내가본 대한민국 공군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현대적인 공군으로서 면목을 일신했습니다. 현대적인 장비의 도입으로 장병은 우수한 기술을 습득했으며 한국 공군은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 공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투태세를 보다 완벽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 믿고 유능하신 김신 중장 휘하의 한국 공군은 침략을 저지하는 강력한 공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자유 세계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함에 있어서 한국 공군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소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 침략의 위협은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심각한 것이며 지금이 바로 인류 공동의 번영과 이상이 시련에 처해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본인은 한국 공군력과

현대장비로 일신(一新)

주한 미대사관 공군무관
공군소령(空軍少領) 랄프·W·엔젤

훌륭한 장비 사용 기술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주 사격장에서 실시된 사격 시범 대회에서 제10전투 비행단의 김직한 중령 및 제11전투 비행단의 변성기 소령, 그리고 다른 많은 우수한 전투 조종사들의 정확한 공격 술을 참관했으며 동석했던 여러 우방국가의 역전의 무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공격술은 우수한 후방 기술 장병들이 있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레이다 및 무선 정비사, 무장 정비사 행정 요원 헌병 및 기타의 많은 장병들이 폭탄이 목표에 명중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없지 못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은 알라트 룸이나 레이다 기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장병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등은 본인이 한국 공군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때마다 느끼고 감동한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박한 시기이고 우리들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도전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 바이며 끝으로 귀지(貴誌)를 통해서 한국 공군 장병 여러분과 접촉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내핍 생활을 군 스스로가 여행(勵行)하기 위하여, 우선 군수 물자를 절약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우선 모든 용지는 앞뒤 면을 모두 쓰자는 운동과 장비 공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를 결의하여 내 몸처럼 연장을 아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절전 절수를 한층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핍 생활은 무슨 커다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차차 본격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대장 전(田) 중령은 말한다. 그래서 벌써 그 실천으로서 오락실에서 나오는 이익금과 영외 장병의 성금으로 13개 내무반에 Radio 1대씩을 비치하였으며, 야식용 빵을 절약한 비용으로 X.mas 때에는 각 내무반에 1개씩 케이크를 선물해서 영내 사병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셋째로 부지런한 습성을 기르기 위해서 대대 자체 내에 영어 학교를 설립하여 어학도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미 제1회 수강생 20여 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작업 군기를 확립하고 작업반을 재편성하여 유휴 병력을 없앴으며 작업 능률을 올리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기지내(基地內) 불모지(不毛地) 개간계획(開墾計劃)도

이것은 좀 색다른 것으로서 앞으로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바인데, 기지내의 불모지를 개간하여 여기에서 산출되는 수확물을 모두 사병 복지 사업에 사용키로 한 점이다.

그래서 이미 수천 평의 불모지를 확보하고 그 토질 조사가 일단락되었고,
또 종자가 확보되어 있어 얼마 후부터는 땅을 파헤치는 힘찬 모습이 우리들의 눈에 뜨일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대대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 내무반 단위로는 토끼를 길러서 군무 이외의 틈을 타서 언제나 부지런한 습성을 기르기에 애쓰고 있다.

넷째로, 생산과 건설 의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내무반 주변에 '댑싸리'를 심는다. 그리하여 환경 미화와 청소용 비를 장만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둔다. 작년에도 자활 계획을 세워 돼지, 토끼, 닭 등을 질러보았지만 실패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확고한 계획을 세워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여 보겠다는 것이 전야섭(田埜燮) 중령의 포부인 것이다.

다섯째로, 장병들에게 상호부조와 정서관념의 순화를 위하여 만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그래서 정비대대에 벌써 도서실이 설치된 것은 옛날의 일이고, 실내 비품 하나하나를 전부 자대에서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도서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벽에 걸린 풍경화 정물화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서가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대대 도서실로서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책들이 꽂혀 있고 신구, 내외 잡지들이 얌전하게 진열되어 있다.

소공주(小公主)의 궁전(宮殿) 같은 오락실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오락실이 정비대대 장병들에게 커다란 안식을 주고 있다. 도서 담당 하사관은 앞으로 광범하게 도서 수집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운동에 적

(68면으로 계속)

미국(美國)이여!

우리를 도우라!

앞으로 아마도 10년 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치열한 냉전이 전개될 것이다.—미 대륙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전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죠세 휘그레스 씨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및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을 미국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죠세 휘그레스



코스타리카의 국민들은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의 소련 공산주의자들과의 최초의 투쟁을 했다.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를 통하여 수립된 코스타리카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폭력으로서 탈취하려고 일부 반동적인 정객(政客)들과 야합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서 코스타리카 국민 중 이천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공산주의자와의 투쟁에 대해 미 국민들은 거의 무관심했으며 절박한 위기도 파악치 못 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공격은 코스타리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국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광신적인 공산분자들은 전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전제주의적인 공산주의 지배하에 정복하고자 기도했던 것이다.

과테말라에서도 1954년에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를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발적인 사건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으며 곧 잊혀졌다. 쿠바가 완전히 공산 진영으로 넘어간 오늘날 미국민들은 카스트로만 쓸어뜨리면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이 끝나는 것으로 믿으며 어떻게 하면 카스트로를 쓸어뜨리겠는가? 하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 필자는 저윽히 실망치 않을 수 없다.

사실상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국민이 합심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 것이다.

지도를 보면 세력 균형이 소련·중공 진영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도록 기울어지게 하려면 어느 지역을 정복해야 할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인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앞으로 십 년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치열한 냉전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광대한 권력의 진공지대(眞空地帶)인 것이다. 더구나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십 년간에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는 현재의 두 배인 4억에 달할 것이다.) 더욱이 증가해가는 도시의 많은 중산 계급 및 온순한 농민 대중은 그들의 부족을 점차 인식해 가고 있으며 개혁을 위한 압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러한 진공을 메꿀 것인가? 우리는 시급히 서둘러야만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황폐했던 유럽 역시 진공 상태였다. 이러한 유럽의 민주주의적 부흥을 도운 것은 미국민이었다. 그러나 노력의 대가로서 미국은 강력한 우방과 풍부한 시장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재차 시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는 유럽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조건이 나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럽과 같은 산업혁명이나 사회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축적되어있는 부가 별로 많지 않고 그나마도 소위 올리가아치 (과두정치의 집권층)라고 하는 소수의 특권층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세금을 공평히 부과하고

토지개혁을 시행하며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부를 보다 광범위하게 분배하지 않는 한 재정 및 기술적 원조는 다만 소수 특권층의 배만을 불릴 것이다.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위해 올리가아치와 부단히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개혁 세력은 미 국민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특권층은 여전히 사회 개혁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에 맞추어 날뛰고 있다. 그들은 그를 소유의 신문사 및 방송국과 그들이 지배하는 정당을 이용하여 절박한 사정을 위한 조치까지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다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약점을 이용하는 데 능란한 훈련된 소수 공산주의자들이 언제라도 정권을 탈취하려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하고 필요한 사회적 개혁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또는 추방되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노련한 정치적 지도자들인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로물로 베탕코오트 대통령은 스무살 때 60파운드나 되는 쇠뭉치로 고문을 당했고 지금도 폭군이 그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던 상처를 지니고 있다. 니카라과의 자유독립당의 피난민 지도자인 라카요 화르환 박사는 고문을 당해서 눈이 거의 멀다시피 되었던 것이며 페루의 APRA당의 지도자인 빅토 로울 하야는 성년 이후 줄곧 망명 생활을 했던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코스타리카의 국민 해방을 위시하여 페루의 APRA당 등 강력한 민주주의적 혁신당들이 많으며 우리들은 이러한 단체를 연합하여 민주주의적인 국제적 운동을 형성하고 국제·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를 도우라!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라!

라틴 아메리카에는 개혁을 뜻하는 것이 굉장히 많으며 이러한 개혁은 서서한 발전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백오십여 년에 걸쳐 발전시킨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를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불과 수년에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 사회가 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소수의 부자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케네디 대통령은 말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십개년 원조 계획을 아메리카 대륙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부 및 수입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계는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의 올리가아치들을 상대자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무성 직원 중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특권층과의 접촉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공식 태도를 변경하였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민주주의적인 발언을 환영하며, 우리들의 진보적인 친구들을 베네수엘라, 페루 및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존슨 부통령이 아세아 방문에 앞서 공항에서 니카라과의 주미 대사와 기념 촬영한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진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전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통하여 유포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아직도 니카라과의 독재적 특권층의 편이라는 선전에 이용할 것이다.

미국인들 중에는 이미 개인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사람도 있다. 뉴욕에 있는 프랑스스 그란트씨가 영도하는 아메리카 자유·민주주의 협회는 라틴 아메리카의 망명객들을 도와주었으며 워싱턴 및 UN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발언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만약 미국 대통령의 용기 있는 획기적 발언이 미국의 언론계·실업계 및 국무성 관리들 간에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1960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혁신당 중 열 개의 당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을 본떠서 소련 및 중공이 직업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양성할 때 하듯이 민주주의 투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코스타리카의 산 죠세에 창립하였다. 이러한 정치 훈련 학교의 학생은 모두가 법률가, 교사 및 노동조합간부 등 20대의 젊은 남녀들이었다. 그들은 90일간에 걸친 새벽부터 밤까지의 교육을 통하여 당 기구 조직 방법

★ 필자 소개 : 죠세 휘그레스씨는 그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의 위협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1948년에 공산주의 지배하의 코스타리카 국회가 보수주의자인 오틸리오 우레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를 무효화하자 재빠르게 움직이는 학생 사무원 및 농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해방을 위한 6주간의 투쟁을 전개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훨씬 능가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씨는 합법적으로 선출되는 국회에 신헌법을 제정하고 우레일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코스타리카 정부의 수반으로 있으라는 요청을 수락했으며 우레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권고받았고 투표 결과 반대당의 거의 두 배에 상당하는 득표를 했다.

1958년에 임기를 마친 씨는 (코스타리카의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부인한다) 자주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청년 운동 및 노동운동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설하고 씨의 충고를 가장 존중하는 미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올해 55세인 씨는 몇 번이나 위험한 암살을 모면했다. 씨의 포부는 미 대륙에 통일된 진정한 자유를 위한 운동의 창설을 보는 것이다.

정치적 투쟁의 조직 방법, 언론 기관의 창설, 청년 운동 및 상공 조합의 조직 방법 등에 관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역사 및 경제를 배웠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토지 개혁 및 세제 개혁에 관해 배우며, 국제 관계를 배운다.

1960년 12월에 23명의 첫 번째 크라스가 수료했으며 그들 중 몇 명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독재자의 관헌에게 체포 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크라스는 학생이 53명이다. 이들 젊은 지도자들에게는 중대한 사업이 있는 것이다. 전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서 사회 개혁의 요청은 소규모의 적극적인 활동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혼합 경제 후 어떤 방향으로 사회 개혁을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민주주의로 유도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정당을 설립(設立)하며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장악하면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수행하도록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젊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조국을 공산주의자의 마수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훈련도 받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나 이러한 학교를 유지할 재원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의 봉건적인 제도하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정당들은 급진적인 선동자로서 우리들 민주주의 정당들이 적대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조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자산가들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민인 것이다. 하나의 미국 사설 단체가 우리들을 이미 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또 다른 단체들이 도와주게 될 것을 기대한다.

공명한 민주주의적 선거를 하지 아니한 민주주의 지도자 및 민주주의 정당의 형성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미주 기구(OAS)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미주 기구 감시하에 몇 나라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주 기구 감시하에서의 선거는 예를 들면 니카라과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니카라과에서는 독재자만이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는 페루에서도 필요하다. 페루에서는 1936년 이래 처음으로 APRA당이 1962년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입후보자를 내세울 계획이다. 관심을 경주해야 할 사항은 이것뿐이 아니다.

우리가 적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에게 선전함에 있어서 아무런 불편도 없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농장에서 라디오의 스위치만 틀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스크바로부터의 유창한 스페인어 방송이 뚜렷하게 들려오는 것이다. 이들 모스크바로부터의 방송은 소위 미 제국주의를 혐오하도록 왜곡된 시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최신 문제들을 보도한다. 모스크바(혹은 하바나)로부터의 방송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뿐인 것이건만 어째서 이를 무시해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개인적인 대규모 회사들은 고전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신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페루의 페드로 벨트란 수상의 온건한 개혁 정책까지도 반대하는 봉건적인 신문은 미국 회사들의 광고를 손쉽게 얻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반공적인 APRA당의 대변지인 신문은 광고를 얻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기이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 보수적인 신문들은 미국의 석유 이권을 공격하는 논설을 게재하건만 많은 미국 회사들의 광고를 얻고 있는 것이다.)

부의 보다 평등한 분배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의는 분배할 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원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들 라틴 아메리카인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수입이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인의 땀과 토지의 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인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가 생산하는 원료로부터의 현 수입은 12억 불이며 이것은 1951년의 그것보다 적은 액수인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약 삼천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내핍 생활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위험한 고난과 불안이 조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은 그들의 생산품을 싸게 팔지만 그것을 사는 부유한 공업국들로부터 그들의 생산품을 수입할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세계 시장의 커피 값이 싸기 때문에 코스타 리카의 커피 재배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미국의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불 50센트를 하루에 버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오백만 불에 상당하는 미국산 밀을 수입한다. 이러한 밀에 대해서는 근간 변함이 없었던 가격을 지불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농민의 부담으로 빵을 싸게 먹는 부당함을 피한다. 이러한 밀이나 혹은 기타의 미국의 생산품을 사기 위하여 코스타리카의 커피 재배원 노동자들은 20시간의 그들의 노동과 한 시간의 미국 노동자의 노동과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분개한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미국을 소위 착취자라고 비난하게 되며 라틴 아메리카는 결과적으로 공업 선진국들의 식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산의 원료에 대한 가격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무성에 종용했다. 미국이 국내 가격의 조절을 위해서 취한 조치와 유사한 것을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도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커피 가격은 1950년에 한 파운드당 90센트까지 올라 갔었으나 현재의 40센트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커피의 가격이 조정에 의하여 60센트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한 컵당 1센트만 더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곤경에 처해 있는 콜롬비아에게는 연간 15억불이라는 귀중한 수입이 되는 것이고 매년 보다 많은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브라질에게는 연간 40억불이라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코스타리카에게는 2억불이라는 연간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추가적인 수입은 부유한 커피 재배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임금을 올리고 산업 개발을 하는 데 이용될 것인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가격조절의 조건으로서 커피 재배자와 정부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세제를 공정하게 개혁하고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등 기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원료 생산국의 빈곤은 부유한 나라의 번영을 위협한다. 예를 들면 유카탄에서 생산되는 값이 싼 연사(撚絲)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농민으로 하여금 한 파운드의 버터를 수십 센트나 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위스콘신의 농민의 아들로 하여금 데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카탄의 국민들은 모든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민들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고사하고라도 신발조차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만약 20억이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국민들이 미국의 생산품을 살 수 있다면 미국에서 생업자를 구제하고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약될 것이다.

필자는 가족처럼 허물없이 썼다. 사실상 남북미를 막론하고 쿠바의 경우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모든 행동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필자도 미국과 인연이 개인적으로 깊다. 필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뉴욕에서 다년간 살았고 미국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제 필자는 가족적인 입장에서 남북미 대륙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업의 수행을 위한 통일된 사령부를 워싱턴에 창설할 것을 권유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냉전에 있어서 참모총장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하고 재치있는 인물인 미국 정부 내에서의 적절한 계급과 위치를 점하는 사령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은 쿠바와 같은 나라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를 담당할 이상적인 사령관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성장의 좌절 및 반미 감정 등 많은 문제에 대처하는 전미 대륙의 실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난히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측으로는 UN의 남미경제위원회의 핵심이 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있으며, 미국측으로는 서반구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종사해온 바 있는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포토 리카에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들의 도움은 지극히 귀중한 것이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한 기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범미개발은행, 미주기구(OAS)의 경제사회위원회, 개발차관기금 및 세계은행 등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관이나 전문가나 계획이 아니며, 우리가 미국에게 바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원칙에 입각한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성실인 것이다. 그것은 즉 다름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적인 사회 개혁을 미국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선도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우리와 같이 나눈다면 우리는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 인생론의 의의 자살자는 죽으면 그가 자살까지 해야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해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결한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된 문제와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 그 문제에 부딪혀야 한다. 문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하물며 죽는다는 노릇은 문제와는 하등의 관련도 없다.

인생론의 역할은 죽음을 죽음으로서 시인하는 데에 있다. 간혹 죽음을 내세워 사람을 위협하는 인생론자가 있는데 옳지 않다. 그와는 반대로 죽음에 대해 위협을 받지 않는 정신을 길러 주는 것이 인생론의 목적일 것이다. 인생론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닐 진데 죽음의 문제에 등한시할 수는 없게 된다. 현상 긍정의 생활 태도라는 말도 있으나 죽음이야말로 누구라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초의 또는 최후의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는 체념이 필요하다. 이것은 죽음을 정당히 이해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요 결코 현상 개혁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희생하는 정신도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그러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느냐에 있다. 여기에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완성이 있을 뿐이다.

소련(蘇聯)의 시(詩)와 시인(詩人)



이 글은 일본의 유명한 평론가 대택장일씨(大宅壯一氏)가 소련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필한 장문의 논문이다. 여기에 택출한 대목은 그 글 중에서 필자인 대택장일씨의 주관적인 논평을 빼고 견문에 속하는 대목만을 초택(抄擇)한 것이다.

또한 본문은 일본의 유력한 평론지 「중앙공론」 62년 1월호에 게재된 것이며 동지의 편집자는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권력 체제하에서 문화의 뿌리를 고사시켜 가는 소련 사회의 병매와 기형성을 파고든 역작——

(역자)

◇공산주의의 시는 권력과 더불어

소련 작가협회 본부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속에서 로스토프의 궁전의 구사(廐舍)가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있는 장소에 세워진 귀족의 저택을 그대로 개조한 건물인데 가가린의 축하회가 이 작가협회 본부에서 개최되었을 때 나도 참석하였다.

소련에서는 작가라면 누구라도 작가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작품을 발표할 수도 없고 출판할 수도 없으며, 상연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말하자면 작가가 작가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작가가 되는 것이다.

작가협회 건물 안에는 유명작가의 전지 크기의 초상사진들이 즐비하게 붙어있고 한 가운데에 후루시쵸프의 초상이 걸려 있다. 일본이 대동아전쟁 말기 그처럼 동조세상(東條世上)이 되어도 작가협회에 동조의 사진 따위 얼씬도 하지 않았었는데-.

가가린 축하회는 시인 스르코오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스르코오프는 스탈린 시대에 「용사의 노래」「용사의 어머니의 노래」 등으로 스탈린 상을 받은 시인이다. 가가린의 답사가 있은 후 협회원들의 한결같은 지루한 축사가 계속되었다.

제일 먼저 등단한 시인은 최연장자인 77세의 안토코어리스키었다.

그는 처음 탐미파(耽美派)로서 출발했다가 전향하여 공산주의 선을 따라 전시 중에는 「쇠와 불(鐵과 火)」「조국의 아들」 등을 발표하였고 공산당 선언 백년 기념의 서사시 「1848년」을 발표하여 스탈린상을 받았다.

계속해서 등단하는 것이 모두가 시인들이고 소설가는 페이진 뿐이었다고 기억된다. 모두가 선교사들처럼 능변가였는데 미리 준비한 시를 낭독하다가 자기 도취하여 앙분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자작시를 녹음해서 가져온 사람들도 많았다.

시를 서명해서 증정하는 사람도 있고 타이프로 찍은 것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새 연단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가가린은 깜짝 놀라며 이것을 혼자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 동무의 손을 빌려서 읽겠노라고 말했다.

솔직하게 그리고 좋게 해서 이 광경은 근사한 쇼며 찬사 콩클이었다. 모두가 최대의 찬사를 말하기에 있는 지혜를 짜내는 것 같이 보였다.

이 작가협회 정원에는 톨스토이의 동상이 서 있었다. 나는 그 동상을 바라보며 만일 톨스토이의 동상이 무엇을 느낄 수 있다면 이 광경을 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서 단상의 광태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몇 사람의 심사원이 있어서 잘된 작품에 대해서는 종을 땡땡하고 쳐 주었다. 원 아무리 벼락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소위 작가치고 이런 꼴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가린 찬미의 챔피온 선출!

◇공산주의의 시는 권력의 액세서리

기억은 나지 않으나 나는 언젠가 시와 시인에 대하여 「시는 인식 부정의 문학 형식」이라고 말하고 시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좋게 말해서 좋은 사람이요, 나쁘게 말해서 발육부전 또는 두뇌적 소아마비이고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타산적인 사람이라 써서 시인들로부터 대노염을 받은 바가 있었다. 나는 소련에 와서 소련의 사회와 소련의 문화를 목격하고 다시 시와 시인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었다. 동양에서는 시는 화조풍월적 전통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액세서리적인 것이라고 느낀 바가 있었는데 소련에서는 시가 권력에 따르는 액세서리임을 느꼈다.

내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은 마야 코프스키 광장에 있었다. 마야코

소련의 발레단

프스키는 스탈린 시대에 소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천재적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혁명 전부터 지하운동을 하다가 옥중에서 시를 썼고 10월 혁명 때는 「나의 혁명」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는데 그의 시론을 빌리면 시는 폭탄이요. 기폭이라는 것이다. 그는 1930년 37세에 자살하였는데 실연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마는 실은 당시의 소련혁명이 그에게 커다란 실망과 환멸, 불만과 혐오를 주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그의 최후의 작품은 「바아니아(입욕)」라는 것인데 평론가들은 이것을 여지없이 두들겨서 다시는 붓을 들 용기조차 없게 하였다. 소련의 평론가들은 정부의 의향을 대변하는 것이고 민중들은 무조건 이 비평에 따르기 마련이다. 소련을 여행하는 동안에 도처에서 시와 권력의 악수—아니 똥 가에 으스대는 파리떼처럼 권력의 주변에 시인들이 으스대는 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에 봉사하는 문학예술은 언제인가 정치에 의해서 타도되는 법이다. 필경 문학은 문학이지 정치는 아닌 것이다.

◇시(詩)는 영웅제조제(英雄製造劑)

소련에서는 어느 공화국 어느 도시에 가도 먼저 안내받는 곳은 시인의 동상기념적 기지로 판에 박혀 있다. 소련은 오랫동안 서구의 문화적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적 현상일지도 모른다. 시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거리, 학교 공공건물, 공원 등이란 드물 지경이다. 그중에서도 푸시킨은 소련 문단의 레닌적 존재이고 넘버투맨이 고리키다.

우크라이나에 간즉 세프첸코라는 민족 시인이 있어 여기서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합친 존재로 되어있다. 키에프시에는 예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붙인 거리, 학교, 공공건물의 사태(沙汰)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박물관이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그의 상이 많은 데는 두 손을 들 지경이다. 대리석상, 동상, 동판상, 벽상, 자수, 모자이크, 도기상, 피혁상, 초화상, 맥피상...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의 초상을 만들어 두었다. 자유 세계에서는 매스컴이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마는 이곳에서는 사천수백만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하나의 영웅을 제조하는 데 총동원된 것이다. 나는 비로소 소련식 영웅 제조의 현장과 그 제조공정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자유 세계에서는 민중~매스컴이 영웅을 만들어 상품화한다지만 공산권에서는 국가권력이 영웅을 만들어 이것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가권력에의 관심과 지지로 재제하는 것이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웅의 수명이 오랠 수는 없다. 트로츠키가 그러했고 스탈린도 그러할 것이다. 트로츠키에 관해서는 모든 문헌, 박물관에서 그 자취가 말살되었지마는 스탈린은 그의 독재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것을 완전히 말살한다는 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서태후를 말살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가능케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나라이다. 소련의 사전에서는, 적어도 소음의 수뇌자들 머릿 속에는 내옹은 아니라도 불가능이라는 어휘는 없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인의 민족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여 세프첸코를 아주 거상화한 것이 몇 가지 증거에서 분명하다. 시인이나 화가는 다른 어떠한 부류의 사람보다 영웅의 소재로서 적합하여 어떻게라도 가공하기가 쉽다. 소설가나 평론가는 그때그때의 사상을 명확히 표현한 증거 물건을 많이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변조, 위조, 왜곡하기가 어렵다.

소련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공화국에는 제마다 영웅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다. 알아보면 동일한 레벨의 인물이 많은데 그중에서 그야말로 적당한 한 사람을 골라서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시킨 것이다.

◇시인(詩人)도 1인 독재

공산주의 체제는 어째서 이처럼 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들은 동등한 두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비교하려 든다.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모든 주의의 유일선이며 다른 어떠한 주의와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공산주의를 다른 어떠한 주의와 비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흠이 나타나고 신성성을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자도 비교하게 되면 그 절대성 신성성을 상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집단 지도라는 형식이 생겨나곤 하는 것이다.

라트비아 공화국 수도 리가에 간즉 라이네스라는 시인의 기지가 매우 호장한데 인구 이백만의 이 소국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이 묘지에는 주변에 이 공화국 대표적 정치가, 군인, 학자, 음악가의 무덤이 있으나 라이네스의 묘표에 새겨진 '태양을 향해서 굳건히 서 있다'라는 말과 같이 라이네스의 무덤만이 영웅처럼 우뚝하고 다른 무덤은 태양 앞의 별들처럼 되어있다.

그루지아 공화국의 수도 토비리시에는 시가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토리크에토프라는 시인의 무덤이 있다. 그는 제정시대의 외교관이며 좋게 말해서 시에 대한 조예를 가진 관료정치가이다. 이런 자가 민족주의 리바이발·붐에 의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련 내에 있는 어떠한 공화국과도 이 같은 영웅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공화국에 비해 격이 낮아지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가령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수도 바구—에는 니자미라는 팔백 년 전의 송시인(頌詩人)을 찾아내어서 문화회관을 세웠다. 당시의 송시인이란 왕자에 송시를 바치는 것으로 생활하는 어용시인(御用詩人)인데 이 작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우즈베크 공화국의 수도 타시켄트에는 무슨 오페라 극장 앞에 나보이라는 시인의 동상이 서 있는데 알아본 즉 그는 15세기의 시인, 철인, 정치가를 겸한 사람으로 그 밖의 자세한 역사는 모르고 있다. 다른 공화국이 어쨌든 영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안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낡은 문헌을 뒤져서는 아마도 간신히 찾아낸 것이 나보이라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나는 시를 문학 중에서 가장 중세적이고 봉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동시에 양이 적고 압축되어 있어 수사나 인쇄가 간편하고 소량의 용지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는 매스컴 이전의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가 득세하는 이유의 또 하나로서 공산국가는 매스컴의 발달이 뒤늦어 있다는 것 매스컴이 억압 당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시(詩)·시인(詩人)과 소련 사회성

나는 소련에 있어서 시와 시인과 소련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소련에서는 어째서 시가 폭넓게 활개를 치는가?

먼저 내가 생각한 것은 후진국지대에서 시가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1. 사회적 계급적 분화가 늦어진 곳에서는 지식인의 대다수는 가능형으로 시인 그 밖의 문필가, 음악가, 예술가, 의사, 승려,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관리정치가 등을 한 사람이 하는 예가 많다. 최근까지 폴란드, 체코 기타 동구 공산위성국에서 음악가나 시인이 유력한 정치적 지도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2. 시는 히로이즘, 내쇼나리즘과 결부하며, 민중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알맞다. 짧은 형식 속에 내용을 압축해서 담을 수 있으며, 감정에 편하게 호소하는 점에서 산문보다 유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3. 시는 지하 활동 시대의 의사 전달에 적합하다. 소량이기 때문에 가지기 편리하고 화급할 때 처치하기 편리하며 동지적 단결을 강화하는 데 효력을 가지고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적합하여 수류탄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개는 그러한 상황을 벗어난 후에도 그 날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4. 시는 가두 진출에 편리하다. 거리에서 소설을 읽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시가 얼마나 가두 진출에 적합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에 비하면 라디오 같은 직접 매스컴에 속한다. 전달 범위는 좁다 하더라도 직접 전달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
5. 매스컴 또는 그의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언론이 통제되고 매스컴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소련과 같이 시가 폭넓게 행세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시는 매스컴~윤전기 이전의 것이요 공산

국~소련은 준후진사회(準後進社會)인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 시인은 권력 체제에 봉사하는 충실한 지적 노예가 아닐까?

소련의 시인들이 스탈린의 개인 숭배 우상화 신격화에 협력하여, 커다란 역할을 연출한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스탈린은 정치가로서 시인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소련의 수뇌부가 언제나 시·시인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온 것은 스탈린으로부터 배웠다. 가가린 축하회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바로 스탈린 시대의 연장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스탈린은 소년 시절 때 시를 썼다. 1895년 1월 발행 「이베리아」라는 잡지에 쥬가시비리라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했다. 나는 스탈린이 출생한 토비리시에 있는 그의 생가에서 그의 그 잡지를 볼 수가 있었다. 또 그가 쓴 「노(老)니니카」라는 시에는 사회주의에의 충분한 싹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가 신학도 시대에 쓴 것이며, 잡지의 권두에 게재되어 편집자의 주가 달려 있는데 편집자는 당시 구르지아 문화의 지도자로서 스탈린을 전도유망한 시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때문에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내면 생활을 파악하고 있어 자신의 권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그는 '예술가는 인간 정신의 기술가'라고 하여 예술을 이해하고 비호하였지만 실은 최종적인 그리고 엄격한 검열자였다. 소설이나 각본이나 오페라의 대본이나 문제점은 스스로 보고 결재하였으며 배우나 서커스의 연기에까지 눈을 돌려 마음에 거슬리는 점은 철저히 말살하였다. 아직까지 자유 진영 국가에 이와 같은 정치가가 생겨나지 않았고 또 생겨날 수 없으니 자유 세계의 문학·예술에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은 없다 하겠다.

인민 재판 받는 소련 영화

소련에 와서 의외로 놀란 것은 영화 관객이 상상 외로 적다는 사실이었다. 모스코바는 인구 오백만이니 육백만이니 하는데 영화관은 불과 오십이며 소련에 와서 소련인들의 영화관람 회수에 관한 통계를 알아보았는데 1958년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한 사람이 2년에 한 번 영화를 보는 꼴이다. 최근에는 관람객이 다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서방국에 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손쉬운 예로서 동경에 비해 보아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동경은 인구가 구백만인데 상설 영화관이 870, 그리고 일본 국민은 한 사람이 1년에 11회 영화를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제작 수도 서방측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연간 백이, 삼십본 정도이니 미국이나 일본 등 자유 진영 여러 나라에 비하면 문제가 안 된다. 그것도 최근의 이야기이고 스탈린 시대에는 7, 8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니까 각 도시의 영화관은 개거(皆擧)가 외국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키에프니 오뎃사하면 소련에서는 굴지의 도시들인데 영화관은 20개 전후이고 소련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곳은 불과 2개관,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미 몇 해 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삼류작들이었다. 이처럼 부족한 소련 영화를 메꾸어 주는 것은 체코 영화, 헝가리 영화, 폴란드 영화 등 위성국 것인데 그것도 모두가 삼류작들이어서 보기에 따분하였다.

간혹 알젠친 등지에서 수입되었다고 보아지는 미국 영화의 이미테이션물이 보이기도 한다. 일본에서 다소 동경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공산권의 문화가 기껏 이 정도냐 하고 생각되는 점이 이 밖에도 많았다.

어째서 소련 영화는 이처럼 부진이냐? 이 점에 관해서 나는 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① 기획의 여건에 제한이 많다.
② 시나리오의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③ 당이며 정부에 의한 검열에 가감이 많다.
④ 말하자면 신문인이나 조합 대표 등 이른바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오랜 시간이 소비된다.

어려운 여건을 뚫고 간신히 작품이 완성되면 당 간부, 정부 간부들이 이 점을 깎아라 저 점을 부쳐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신문인 또는 각종 사회 단체 조합 등의 대표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빠짐없이 주문(注文)이 많다. 이와 같은 비판에 의해서 때로는 아주 다시 제작하다시피 되는 작품도 있다는 것이며, 무사히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검열 과정을 겪는 데 5-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려서 그동안 정세가 변동되는 바람에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는 작품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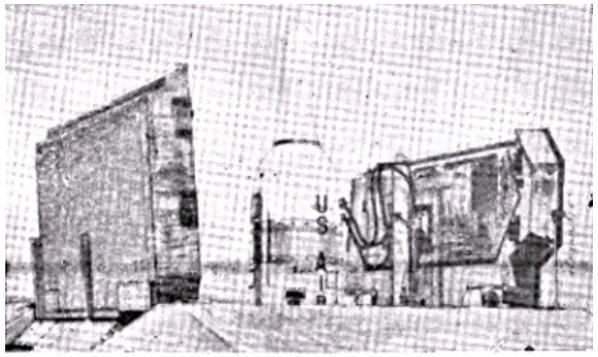
이 밖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모두가 관제품이라는 점을 빠뜨릴 수 없다. 종업원은 모두가 공무원이오 이들은 모두가 생활이 보장되어 있으며 제작에 아무리 시일이 걸려도 파산 염려는 없는 것이다.

또 실업할 걱정도 없다. 오뎃사 영화 제작소를 가보았는데 간부는 매일 회의로 시간을 소비하고 말단은 그동안 놀고만 있었다. 물어보니 1년에 2본 정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화관은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서방국의 것은 금지되어 있고 지금도 소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챠푸린 물이나 그의 대표작인 독재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소련 영화의 테마는 거의 판에 박은 듯이 전쟁물이거나 산업 영웅이다. 이것이면 대개는 무사히 검열을 통과하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만을 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대개의 영화관에는 줄을 지은 관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비교적 한산한 영화관을 들어가 보면 전쟁물이거나 산업 영웅물이고 좌석이 많이 비어있다.

그래서 나는 소련 영화에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인민재판을 받는 영화이고 둘째는 관혼장제의 요리라고 보았다. 관혼장제의 요리는 누구의 집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먹어 보았자 별미가 없고 대개는 요리가 식어(冷) 있는 것이다. 공산권 내의 민중은 오락결여아다.

오뎃사에서 전함포쨔무킨의 계단에 서서 나는 대감독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예술이 무참히 죽어갔음을 새삼스레 아쉽게 여겼다. (끝)



경탄(驚嘆)할 지하(地下)『미사일』기지(基地)

<타이탄> <아틀라스> <미니트맨> 등의 유도탄을 비장하기 위해 건조되는, 일련의 괴기한 지하 요묘(要墓)가 바야흐로 시공 중에 있다. 이 사상 최대의 건축 사업은 자유 세계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의 사령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자동차를 타고 덴버 수 마일 동쪽의 한적한 소로를 달리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들을 비볐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라비안·나이트 중의 한 장면이었다.

200톤이나 되는 문들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이웃 벌판 깊숙이 자리 잡은 잡초로 술을 뜬 언덕이 움직이더니 연필처럼 생긴 백색의 거대한 금속 물체가 조용히 땅속에서 솟아오른 것이었다.

그리고 옆에서 또 다른 은폐된 출입구가 열리면서 두 개의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공 같은 물건이 나타났다. 이어서 사람들이 급히 서두르며 제 일터로 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 거물 때문에 아주 작게 보였다.

한참 후에 이러한 광경은 처음에 나타났을 때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금속성의 거물이 보이지 않는 알라딘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인물·역자주)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땅속으로 돌아가고 사람들마저 사라지자 넓은 풀밭은 다시 먼저 처럼 허전해졌다. 그리고 땅속 깊이 각각 수 메가톤짜리 핵탄두를 탑재한 3개의 타이탄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광대한 요새가 존재하고 있다는 표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지구 주위와 공간에 경계 안테나를 뻗치고 있는 미사일 수들이 전 세계의 반에 퍼져있는 위험 상태에 대비해서 땅속 깊숙이 무휴의 획기적인 각종 방위 시설에 배치되어 있다는 흔적도 없었다.

이러한 지하 요새는 바야흐로 미국 전역에 피하여 시공되고 있다.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계획이며, 따라서 국방 시설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증보를 뜻하는 것이다. 땅속 깊이 철근 콩크리트의 발재관 속에 포상(砲床)을 설치하고 있는 이 거대한 미사일은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그때에는 땅 위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수분 내에 TNT 백만 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대륙 건너에 있는 목표에 퍼부을 수 있게 되어있다.

나는 최근에 3,000마일을 순회하면서 여러 단계로 건설 중에 있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보았다.

앞서 훈련을 시작할 때에, 통행인들이 흘긋 본 타이탄 유도탄은 콜로라도에 있는 로우리 공군 기지의 451탄도 유도탄 사단에 소속되어있는 것이었다. 전부 108개의 타이탄을 보유하고 있는 이 451사단은 최초로 지하에 건설된 사단이며 그 기지는 앞으로 시공될 많은기지의 원형으로 되어있다.

로우리 기지 사업의 건실한 조정자인 톰슨 대령은 많은 설계도로 꽉 찬, 임시 사무실에서 먼저 6피트로 축소된 타이탄 발사기지의 석고 모형을 보여 주었다. 그 중앙에는 천정이 둥근 커다란 방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휘소와 발전소였다. 여기서부터 땅속 깊이 넓게 구획된 3개의 발사관에 이르는 턴넬들이 많이 뻗쳐있었다. 철근 콩크리트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는 이 발사관 안에 길이 98피트의 타이탄이 자리 잡고 있는데, 모두 커다란 엘리베이터 위에 안치되어 있다.『우리는 70평방 마일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6개의 이와 같은 발사기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는 불가사의한 핵무기의 직격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헬리콥터를 타고 한번 봅시다.』

톰슨 대령은 지도상의 붉은 구역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중에서 보니, 로우리 기지 중의 이 지역은 벌거벗은 산과 바싹 마른 골짜기뿐인, 텅 빈 산야였다. 헬리콥터가 낮은 고도로 그 진로를 잡자, 1~A 발사기지의 구역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보이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편편한 벌건 진흙밭이 모든 것을 덮어 버린 것이다. 레이다·안테나를 지니고 있는 두 개의 번쩍거리는 100피트짜리 반구체와 세 개의 거대한 발사관, 그리고 1/4 마일 폭의 주연락 턴넬 좋은 모두 안전하게 땅속에 묻혀 버린 것이다.

우리는 큰 바람과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그리고 철모를 위병이 강철로 된 출입문을 열자 회전 층계를 내려서 기갑(氣閘)을 통과했다 . 그리하여 우리는 항천학자(航天學者)들이 달에 다 지으려고 상상하는 초소(생소한 개척지 위에 세워질 보탄식 방위사)처럼 신비로운 요새 속에 있게 되었다.

3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발사기지는 공기 조절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데 65피트 두께의 흙으로 덮인 가압된 철근 콩크리트의 거대한 지붕에 의해 지표의 충격과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 지휘소와 그 식당, 그리고침실과 11명의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된 오락실은 서로 얽혀져서 설치되어있다.

타이탄과 이를 둘러싼 철골 구조 또 이런 것을 실어 올릴 엘리베이터 그리고 정열된 모든 지상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설비는 직경 2피트, 길이 40피트의 거대한 스프링·코일에 걸려 있다. 그것은 마치 15층 건물이 공중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육중한 발사관 뚜껑과 종업원들을 위한 수 개의 비밀 탈출구를 제외하고는 지표에 이르는 통로는 하나도 없다.

이 발사기지가 핵 공격에서 생존하여 보복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기, 물, 음식 그리고 연료 등은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각 미사일 발사관에서는 직경 8피트의 둥근 턴넬이 금고 문짝 같은 기갑을 지나서 발사 조종실에 이르기까지 수백 피트나 뻗쳐있다.

우리가 1~A 발사기지의 중앙부에 들어서자 넓고 둥근 실내를 차지하고 있는 회색빛의 산뜻한 계산기와 씨켄서어가 숨을 죽이고 내는 딸각 소리와 붕붕 소리 위로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느껴졌다.

3명의 공군이 수많은 계기가 배열되어있는 밑에서 대에 앉아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사람의 두뇌만으로는 탄도 유도탄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다고 안내자는 말했다. 발사 과정 중에서 결정적인 명령은 계산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대륙간 탄도 유도탄은 가장 치명적인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아마도 공학 사상의 나의 가장 놀랄만한 공적일 것이다.

이 110톤의 거인은 대기권 끝에 있는 견고한 가상의 환대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발염 장치의 우렁찬 화염 위로 솟아올라 정확한 궤도상에서 정상적인 비율로 정밀하게 가속되어야 한다.

발사 과정에서 무장과 탄도 조종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이다. 그로부터 탄두는 지상 약 6백 마일 상공에 펼쳐진 무형의 커다란 탄도를 향해 미끄러져 올라간 다음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음속의 25배나 되는 속도로 (시속 약 16,000마일) 하강하고 이어서 마치 빛을 내고 떨어지는 별똥처럼 강하하여 적의 미사일 기지 비행장 도시 등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비록 발사하는 데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리고 또 발사해야 할 때가 안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발사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 그들의 한 임무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유일한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발사 명령이 있을 때는 곧 발사할 수 있게끔 타이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일 내부에서 그 기관을 작동시키는 수력학적 장치, 공기의 작용에 의한 장치, 전기 장치 등 묘한 규모의 전 부속품들은 반드시 전례 없이 매우 치밀하게 수검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는 고장 나기 쉬운 부속품들이 수없이 많아서 조금만 잘못 되어도 이 괴물은 망쳐지는 것이다.

불완전한 부속품은 마치 자동차 상인이 연료 펌프를 대치하듯이 재빨리 바꾸어 지고 노후한 것은 공장으로 보내진다.

가끔 미사일 종업원이 시험 기구의 발사와 우주에 관한 조사를 돕기 위해서 밴든버그 공군 기지에 파견된다. 이것은 훌륭한 훈련이다.

그러나 미사일이 워낙 고가이므로 이러한 기회는 무척 드물다. 그 대신에 종업원들은 모의 발사 훈련을 통하여 끊임없이 활동함으로써 타이탄의 발사와 연료공급에 필요한 빈틈 없는 팀·웍에 숙달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훈련을 참관하였다.

작전 장교가 주계기대(主計器臺)에서, 가벼운 신호에 의하여 각 항목을 확인하면서 긴 체크·리스트의 페이지를 넘긴다. 맞은편 벽에 높이 걸린 텔레비전 스크린이 발사대 위의 상황을 크게 나타내 보인다.

액화산소와 연료가 기압이 조절된 저장소로부터 미사일의 각 단계에 있는 탱크 속으로 주입되었다. 그리고 그의 동료가 계기대 옆에서 발사대 위에 있는 기구로부터 양호, 불량의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 -

<미사일 동력…양호> <라디오 주파수…양호> <추진… 양호>

그러자 높이 있는 발사관 뚜껑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타이탄과 발사 보조기 등 모든 것을 지표까지 165피트나 실어 올린다. 동시에 조종실 내의 정밀한 추적 기구에 연결되어있는 구면의 레이다와 라디오·안테나가 조금 떨어져 있는 좀 작은 보관고 속에서 솟아 나왔다.

1분 후면 타이탄은 발사되어 단독 비상에 오르고 반시간을 나는 이 500만 불의 기구는 전 세계의 운명을 손아귀에 쥘 수 있는 편도 항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연습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을 참관하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다.

지하 미사일 요새의 분산은 각 요새가 다수의 순회로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전 조직이 인간의 오관으로서 탐지할 수 없는 위험 징조를 경계하기 위하여 항성 주위에까지 뻗은 통신 조직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미사일 기지는 직격탄에 맞더라도 단 하나만의 파괴에 그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 18마일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산재는 교통과 보급에 관해 여러 가지 난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면 서부 기지에 있는 모두 9개의 발사기지를 순회하려면 8백 마일의 헬리콥터 여행이나 1,140마일의 도로 여행을 해야만 된다.

특별 전화선이 각 발사관을 그의 기지와 오마하에 있는 전략 공군 사령부 본부 그리고 국방성(펜타곤)에 연결하고 있다.

미사일 기지의 예비 공사는 아틀라스 타이탄 미니트맨 등의 대륙간 탄도유도탄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이 공사는 순차적으로 시공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많은 계획을 수행하면서 같은 때에 진행된 것이었다.

작전에 쓰이게 된 최초의 아틀라스는 아직껏 방비가 없어서 공격을 받아 피해 당하기가 쉽다. 그 다음것은 발사를 위하여 지면까지 끌어 올리는 발사대와 함께 관형의 평탄한 콘크리트·박스 안에 들어있다. 제일 마지막 것의 설계도는 타이탄처럼 발사관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모두 142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전 아틀라스 유도탄 대대는 1962년 초에는 임전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0개의 특유한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보유한 전부 14개의 타이탄 대대가 지금 편성 중에 있다.

이 가운데에서 처음의 7개 대대는 로우리 발사기지와 동형으로 될 것이나 그 외의 것은 땅 위로 올려지지 않고 발사관 바닥에서 직접 발사될 수 있는 진보 형태의 타이탄 II호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2세의 대륙간 탄도 유도탄인 미니트맨의 거창한 첫째 번 대대는 1963년에는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더 많은 대대가 견고한 지하 기지에 창설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미니트맨의 발사기지는 지하 60피트의 콘크리트로 된 단순한 관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니트맨은 관리인 없이도 보관할 수 있으며, 또 명령이 나면 몇 초 후에 무선의 원거리 조종으로써 일제히 발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설계도에는 적의 목표 파악상의 애로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멋대로 철로 위를 항상 이동할 특수철로 차량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 내의 모든 대륙간 유도탄 그리고 해외 기지와 혹은 폴라리스 잠수함에 설치된 모든 중거리 유도탄은 각 지정된 목표와 그를 명중시키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지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지나 잠수함 속에서 자기 미사일의 목표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핵탄두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정보를 혼자서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몇몇 사람이 일부분씩을 갖고 있으나 반드시 그 각 부분은 재빨리 종합되어 대통령의 명령을 확인하고 다시 타이탄이 발사되기 전에 재확인되어야 한다.

실수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시험용 유도탄은 사정안전장교에 의해 도중에서 소실될 수 있으나 작전용 대륙간 탄도 유도탄은 일단 발사되면 소실되거나 소환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륙간탄도유도탄의 몇 개의 지하기지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있지만, 대부분은 남쪽과 서쪽의 광활한 지역내에 있다.

그 위치는 비밀에 부칠 수가 없다.

적어도 10만 명의 사람이 확장되는 20개소의 기지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수십 명 이상이 토지를 매수하고 물을 찾는 것으로부터 탄탄한 출입 도로를 건설하기에 이르는 여러 형태의 일에 관계하고 있다.

물론 기지는 싸보타쥬로부터 엄밀하게 보호되나, 비밀의 환상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 발사기지가 완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디어츄레일, 셔가버쉬, 웨임고우, 척워터 등의 이름을 가진 외딴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 자신이 목표물처럼 집중 주시되어 있고, 집은 갑자기 우주시대의 두려워할 만한 대포와 직면한 일선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다.

"우리는 정부가 그 어느 곳에다 반드시 기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딴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일이 벌어진다면 이곳 스프링히일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처럼 최일선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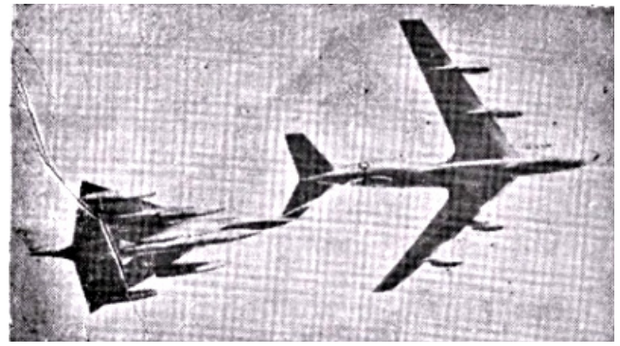
아칸사스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미사일 관계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아는 이는 마음 깊이 자신의 비극적인 책임감의 중압을 느낀다.

만약에 대통령이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그의 전화를 통하여 숙명적인 비밀 명령을 하달한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히 묵시록의 한 장면을 재연시킬 수 있다.

그들은 한 발의 오발탄이 필경 영원한 문명의 종말인 마지막 밤을 뜻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그들이 이 굉장한 괴물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은둔한 기도는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가운데 그 아무도 노한 끝에 대륙간 탄도유도탄을 발사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로버트·S·스트러더〉



전략공군(戰略空軍)을 진단(診斷)한다

80을 넘는 기지와 2,000대 이상의 제트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공군은 항시 24시간의 경계 태세를 견지하면서 가능한 공산군의 어떠한 기습이라도 즉시 격퇴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강력한 보복력을 갖고 있다.

핵전쟁(核戰爭)과 유인기(有人機)

새로운 무기가 계속적으로 발명되고 있으며 소련의 위협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과연 미국의 실력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 소련은 미국의 도시들을 몇 분 내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장거리 유도탄을 갖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유인 폭격기가 이미 폐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전략 공군사령부 및 예하 기지들을 답사하였다. 답사를 끝마치고 나서 필자는 미사일 갭 및 우주 시대의 새로운 무기가 존재하더라도 미국의 전략공군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능률적이며 자유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에게 자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 전략공군의 면모는 일신되었으며 그것은 미국민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자에게는 실망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유인 폭격기는 폐물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력 및 확실성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무기인 것이다.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복력이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전략공군(戰略空軍)의 전력(戰力)

오늘날 전략공군은 80을 넘는 기지에 이천 대 이상의 제트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7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장병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항공기 대수가 미국 군용기 총 대수의 1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략공군은 전 자유 세계 핵 공격 능력의 9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거대한 폭격기 중 많은 대수가 완전 무장을 갖추고 항상 체공(滯空) 비행을 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어떤 목표물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여 대의 항공기가 완전무장을 하고 15분 이내로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채 각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항공기가 이륙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은 소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의 절반인 것이다. 항공기가이륙하는 기술도 개선되었다. 이륙하는 기술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핵 전쟁을 미국이 먼저 시작할 리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전략공군은 소련의 핵공격을 받고 나서 출동할 것이므로 전략공군은 예비적인 전력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과거에는 각 폭격기의 이륙 때의 간격이 최저 1분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허리허리' 작전에서 각 폭격기 간의 이륙 시의 간격이 불과 15초로 단축되었다.

전략공군은 이들 유인폭격기와 함께 15분 내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중거리 탄도 유도탄 부대를 2개 대대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증강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하고 강력한 전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있다. 즉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확실성

있는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략공군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략공군 예하의 모든 작전에는 '우리의 목적은 평화다'라는 표어가 쓰여있다.

전략공군의 새로운 면모는 다음의 세 가지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항공기(航空機) 전략공군은 550대의 B-52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100대가 추가되고 있다. 구형의 B-52는 연료의 재공급 없이 육천 마일을 비행할 수 있음에 비하여 새로운 B-52G 및 B-52H는 구천 마일을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는 시속 650마일이고 최고 상승고도 5만 피트 그리고 20톤 이상의 핵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이에 보충하는 것으로서 1,400대의 B-47 제트 폭격기가 있으며 성능은 속도가 600MPH에 달하고 상승고도 4, 5000피트에 연료만 재공급하면 얼마든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속도 1,300MPH에 상승고도 60,000피트, 그리고 연료만 재공급하면 얼마든지 비행할 수 있는 경이적인 초특급의 B-58 폭격기가 100대 새로이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있었던 비행에서 B-58이 4개주를 횡단하여 1,400마일을 45구경 권총의 탄환보다도 빨리 비행했다. 동 B-58 폭격기는 전략공군에서 시행한 바 있는 사격대회에서 이미 폭격 상패를 획득한 바 있다.

공중(空中)대지상(對地上)미사일

공중 대지상 미사일의 사용은 전략공군의 유인 폭격기에 의한 전략을 크게 발전시켰다. 전략공군의 항공기들은 현재 하운드더그와 스카이볼트의 두 가지 핵탄두 유도탄을 장비할 수 있다. 하운드더그는 도달거리가 600마일이고 스카이 볼트의 도달거리는 하운드더그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유도탄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폭격기, 대륙간 중거리 유도탄의 첫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폭격기는 이들 미사일이 적재하고 목표를 향하여 멀리 비행해서는 적의 방위선에 도달하기 전에 발사하고 필요하면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스탠드 오후라고 하는 새로운 작전에 의해서 항공기가 왕복 비행하는 거리가 수천 마일이나 줄어들고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감소되며 또한 적의 방위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이곳을 이용하여 다른 폭격기들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부득이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보다 확대된 지역까지를 방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자장치 새로운 폭격기에는 종전의 항공기의 약 3배에 달하는 전자장치가 되어있으며 동 전자 장치에는 2톤이나 되는 적전파 방해장치가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의 레이다가 아군폭격기의 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적 레이다의 주파수를 혼란시키는 것으로서 적의 레이다를 마치 우리가 TV를 볼 때 갑자기 허옇게 되듯이 만들어 버린다.

군 폭격기가 같은 장치를 사용하면 적은 마치 우리가 TV를 보다가 허옇게 되면 찬넬을 바꾸듯이 레이다의 찬넬을 바꾼다. 그러면 아군 폭격기는 즉각적으로 적 레이다의 새로운 찬넬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련 상공에서 격추된 바 있는 U-2 정찰기는 같은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략공군(戰略空軍)의 작전(作戰)

전략공군의 폭격기들은 매일 밤 작전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B—52 폭격기의 훈련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B-52 폭격기는 기지에서 이륙하면 멀리 몇 천 마일씩 비행하여 나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미국 내 깊숙이 침투하여 최신형 방위장치 미사일 및 항공기에 의하여 방위되고 있는 목표에 대한 가상 공격을 감행한다.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B—52 폭격기는 얼핏 보면 제트여객기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폭격기들은 날개 밑에 네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장치할 수 있으며 폭탄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다. B—52에는 조종사, 부조종사, 전자장교, 항법사, 레이다 항법사 및 후방 기관 총수의 여섯 명의 승무원이 있으며 대 요격기 기관총은 레이다로서 자동 조준되는 것이 장치되어 있다. 여섯 명의 승무원은 모두 특수비행복을 입고 라디오가 장치된 플라스틱 모자를 쓴다. 가공할 정도의 무장을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은 모두 심각해지고 농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각자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직책으로서 불리어진다. 각자의 마스크는 주 산소탱크에 연결되어 있고 비상시의 탈출을 할 수 있는 사출 좌석에 앉아 있는다. 이륙한 폭격기는 기지로부터 5시간 비행해 나가서는 목표를 향하여 되돌아온다. 기내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두껍게 드리워졌고 핵폭발에 대비하여 통기구에는 두터운 커튼이 덮였으며 조명은 흐리고 적외선에 의하여 계기는 훤히 보인다. 엔진 소리는 안 들리나 안테나와 계산기의 소리가 들린다.

레이다 항법사가 조종사에게 "18분 30초에 최초 지점·발사 지점 27분 34초"

모든 승무원은 정확을 기하도록 훈련되었다.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만 미사일을 목표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항법 장치로는 세 종류를 사용하며 그중의 하나는 특정의 별을 선택하여서는 그 별을 기점으로 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표시하는 기구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승무원은 항상 정확한 자기 위치을 알 수 있다.

계속 비행하여 목표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설정된 최초 지상에 도달한다. 레이다 항법사는 같은 지점을을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 최종 절차를 취한다.

레이다 항법사로부터 조종사에게 : 최초 지점에 접근 중·목표 상공! 레이다 항법사는 스크린에 나타난 목표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계기를 작동시킨다.

그 위에서는 전자 장교가 갑자기 스크린에 나타나는 핵을 포착한다. 레이다인 것이다. 즉각적으로 반사 전파을 발사하여 적의 레이다를 방해하면 적은 레이다의 찬넬을 바꾸고 전자 장교는 또다시 적의 새로운 레이다 찬넬을 포착하여 방해한다. 이렇게 서로 옥식각신하는 동안 폭격기는 매분 10마일씩 이동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레이다 항법사가 교란전파를 발사하는 유도탄발사 스위치를 당긴다(훈련 시는 실제로 발사치 아니함). 이렇게 되면 적의 레이다에는 여러 개의 똑같은 목표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중의 하나만이 실제로 아군 항공기인 것이다.

항공기는 예정 발사 지점으로 접근해간다. 이러한 경우 실제 전쟁을 한다면 전략 공군 사령부로부터의 명령에 따라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것이다.

레이다 항법사가 조종사에게 말한다.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예정 경도 접근 중, 발사 경도 41·45, 44, 43, 42, 41 발사!"

실제 전쟁이라면 날개가 약간 흔들리며 5톤 중량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목표를 향하여 초음속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몇백 마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은 몇 분 내로 잿더미가 된다. 훈련 시에는 목표물에 장착된 감시기에 신호만을 발사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오마하에 있는 사령부에 보고를 하고는 되돌아가던가 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또다시 비행을 계속한다. 여전히 세 개의 미사일과 폭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 전쟁 시에는 무려 천여 대의 이러한 항공기가 체공하고 있거나 15분 내에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1,000대 중 1차 공격에서 파괴되지 아니한 항공기들이 이륙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상 전쟁의 작전 훈련같은 것은 1년에도 몇백 회씩 반복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쟁이 시작된다면 많은 폭격기가 지상과 공중에서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적이 미국 내 및 자유 세계 도처에 있는 戰略 공군의 기지를 동시에 모조리 파괴하지는 못하는 것이며 적을 섬멸하고도 남을 만한 폭격기가 그들의 방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보복할 것이다.

만약 전쟁이 시작되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총체적인 파괴력은 필설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것이며 전 문명이 파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핵폭발을 목격한 사람은 핵공격의 효과를 능히 상상할 수 있겠지만 각 미사일이나 폭탄이 100평방마일을 재로 만들 것이며 더구나 폭발 시에는 풍속이 200MPH에 달하는 폭풍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일(來日)의 전략공군(戰略空軍)

지금도 여전히 유인 폭격기가 가장 확실성있는 무기이기는 하지만 전략공군은 이에 못지않게 확실성 있는 ICBM(대륙간 탄도 유도탄)으로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65년에는 전략공군의 전력을 유인 폭격기와 대륙간 미사일의 반반으로서 구성할 예정인 것이다. 약간의 대륙간 미사일이 이미 발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63년에는 108개의의 타이탄과 12개의 아틀라스 미사일을 보유하도록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두 가지 미사일이 모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달거리가 600이고 15분 내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들은 모두 소련의 미사일 발전에 뒤지지 않기 위해 급 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정말로 우수한 미사일은 이미 시험 단계를 지나 생산 중에 있는 미니트맨 미사일인 것이다. 미니트맨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불과 수초 내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 깊숙이 만든 콘크리트 집 속에 장치하는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무게가 가벼우며 보다 확실성이 있고 아트라스 미사일을 조작하는 데는 76명의 인원이 필요함에 비해 미니트맨 미사일은 10명이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육지의 기지에서 발사되는 이러한 미사일을 보강하는 것으로서는 해군의 핵 잠수함대가 있다. 현재 취역중인 미사일 잠수함이 넷이고 1965년에는 또다시 25가 추가 취역하게 될 것이다. 이들 잠수함은 각각 도달거리 2,500마일의 포라리스 미사일을 16개씩 장비하고 있으며 적해안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얼마든지 비밀 기지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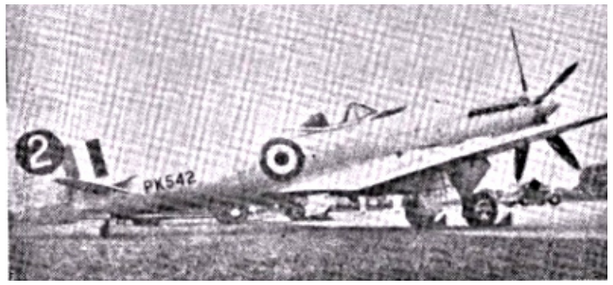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현재의 미국의 전력은 강대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련보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보다 많은 爆擊機 미국의 군 및 민간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급하게 미사일에 의존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시해 왔다. 현재 미국이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유인 폭격기 B-52H인 것이다. 또한 1962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B-70 폭격기의 몇 개 비행단이 전략공군에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B-70 폭격기는 비행속도가 2,100MPH(소총 탄환 속도보다 10퍼센트 빠름)이고 상승 고도 80,000피트에 막대한 중량의 무장을 적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떤 상원의원은 음속의 세배나 빠른 인간 조종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4대의 B-70만을 생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미국의 공군 장관 공군 참모총장 및 전략공군 사령관은 모두 퇴역한 전 공군 참모총장 토마스 D. 화이트 장군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화이트 장군은 현재의 B—52 폭격기가 B-70과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본관은 직책상으로 우리의 미래의 전력이 B-70과 같은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들의 공통적인 사문가적 충고가 무시되면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고 또다시 소련에 뒤지는 고배를 마셔야 할 것이다.

미사일計劃의 촉진 확실성 있는 미니트맨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은 거의 무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거의 무법적인 노동쟁의와 작업 중단으로 말미암아 미사일 기지의 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자금이 낭비되 고 있다. 실제로 국방예산에 무리가 없이도 1,000개의 미니트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보복력은 훨씬 더 강대해지고 적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천 개의 공격 목표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공격하는 데는 3개의 미사일을 계산하며 현재 80개의 전략 공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240개의 미사일을 준비해야 하는 적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인 3,240개를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43P계속)



방공구국(防空救國) 3개월 (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공군의 불굴의 투혼-

독일 제2공군의 제1진을 맞이한 것은 도버해협 상공의 초계임무를 맡고 있던 스피트·화이아 전투기대였다.
이 요격진에 잠시 후 메이트·스톤 상공에 있었던 허리케인 전투기대가 합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편대는 그대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흡사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개한테 물려가면서 전진해가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동안에도 과정에서 다시 4개 중대의 허리케인이 달려왔다.
그리고 지시대로의 편대로서 독일공군의 소위 무적함대에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그래도 독일공군의 대대는 런던 상공에 도달하였다. 탄창이 열리면서 기분 나쁘게 번득이는 폭탄이 전통을 자랑하는 런던시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떨어져 내렸다.
기수(機首)를 돌려 독일 편대들이 귀도에 오려고 할 때 이날 최대의 아니 영국전쟁을 통해서 최대의 영국 공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맨 처음에 덤벼든 것이 제12사단의 전투기 60대였다.
파일럿들은 영국에 망명하고 있었던 폴란드, 캐나다, 영국 등의 혼성 단대 부대로서 일진의 선풍과 같이 독일 편대에 덤벼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격상은 이제까지 독일 공군이 맞이한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다.
기수를 돌리기 시작한 독일 편대는 이 일격으로 간담이 서늘해져 떨었다. 허둥지둥 그들은 간신히 편대를 유지하면서 일제히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국 공군에게는 멋있는 전투 경험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의 우수성과 실력에 새삼스럽게 눈이 휘둥그래졌을 것이다.
더구나 런던 공격 귀도에 250대나 되는 영국전투기가 한꺼번에 덤벼든 것은 커다란 충격을 독일 공군에 주었다.
7월 10일 이해 독일 공군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영국 전투기의 이천 대 이상을 괴멸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렇지만 이날 영국 공군이 행한 반격은 얼마나 독일 공군의 공식 전과 발표가 과대한 것이었던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독일 공군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제2진이 런던 상공에 도달하였을 때 영국 공군의 방공 전투기대는 또다시 태세를 완비해서 멸적의기도 왕성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런던의 전면에는 이백 대의 전투기대가 각 기 빈틈없는 편대를 짜 가지고 잔뜩 버티고 있었다.
그 한복판으로 독일 편대는 뚫고 들어왔다. 독일 폭격기들은 1대당 거의 3대꼴로 호위 전투기가 붙어있었다. 이를 맞이하는 영국 공군 전투기대는 각 기지에서 따로따로 떠올라 공중에서 편대를 짜서 영격진(迎擊陣)을 전개하고 있었다.
영국 전쟁의 초기 몇 주간에 피하면 이것은 커다란 진보였다.
이날 만약 영국 공군이 이백 대를 손실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즉시 80대는 보충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비바부르크 생산상은 그 당시 그만큼 순조로운 보급이 가능하도록 관하의 항공기 생산과 수리 시설을 능률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항공기가 아니고 파일럿의 보충이었다.
항공기의 대량 생산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파일럿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확인의 집계였지만 그날의 전과는 영국 내각 각의실 흑판에 백묵으로 기록되어갔다.

격추	185대
미확인격추	42대
격파	75대
우리 쪽 피해	28대

9월 16일 영국 공군성은 공중전에서 격추한 적기 185대, 그 중 7대는 지상 포화로 격추라고 발표하였다.
전후(戰後) 독일 공군의 기록과 독일 공군 장교에게 확인해서 정확히 집계한 결과는 56대였다. 물론 그 당시는 이 사실을 영국 공군알 턱이 없었다. 그러나 56대의 격추만이라도 충분한 전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요일 즉 9월 15일에 영국 공군은 독일군의 영국본토 침공의 가망과 평화 교섭의 기틀을 끌어들이려는 히틀러의 야망을 완전히 단절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과 독일은 진창 구렁같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전후세력(戰後勢力)의 재접배(再接配)가 고려(考慮)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영국도 독일도 이 전쟁의 결과로 얻은 이익 배당은 대단히 나빴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의 오산(誤算)

한편 미국에서도 사태는 변동되어 갔다.
처음에는 한 해 여름 동안 영국이 나치 독일 공격에 견디어낼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럽 전쟁을 관망하고 있던 미국이었다. 그러나 영국 전쟁은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성취시켰다. 각국의 영국에 대한 감정도 봄을 만난 얼음덩이처럼 녹기 시작하였다.
8월에 전사한 버리·휘스크 중위처럼 혼자서 영국 공군에 지원하여 싸우고 있는 의용병의 수도 늘었다.
처음에 미국사람들은 이들 의용병을 유럽 전쟁에 지나치게 절의를 지키는 호전주의자들처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국의 전진적 용사들이라고 칭찬하기에 이른 것이다.
런던에 파견된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기자 혹은 공식 옵써버들은 존경과 신뢰와 칭찬으로 찬 보고를 앞을 다투어 미국으로 보냈다.
공평한 옵써버인 스트롱준장(미국 작전계획부차장으로 독일 공군의 영국 본토 공습의 전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런던에 파견된 미군 사절 단장)은 뉴욕에 귀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의 세력을 현저히 소모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폭격에 의한 군사적 손해는 비교적 적고 또한 영국발표에 의한 독일의 손해는 극히 겸손한 것이었다.
이렇게 멀리 대서양을 격(隔)한 미국에서 연속적인 런던과 그밖에 도시에 걸친 독일공습에 견디어 내는 영국국민에 대한 동정의 물결이 파급되어 갔다. 미국인들의 가슴에는 격정이 불릴 듯하였으며 이 같은 미국의 세론은 점점 높아져 갔다.

국왕(國王)과 국민(國民)

9월 15일 별로 의도한 바는 아닌데 영국 공군성이 발표한 엄청난 전과 발표가 여기에 더한층 박차를 가했다.
영국은 독일군의 미증유의 공폭을 받으면서도 공습만으로는 정복될 수 없다는 것을 주증(主證)하였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감정은 이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에서도 더욱 커다란 박차가 가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사람들이 이 전과 뉴스에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영국인들은 이 뉴스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형편이었음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국왕과 수상은 이 뉴스를 연설을 통해서 열심히 인용하였다. 그뿐 아니라 몸소 가두의 국민들 앞에 나타나 격려 행각을 하였던 것이다.
위기에 충만했던 이 12주간으로 해서 국왕은 영국 왕조를 더욱 존경받는 것으로 만들었다.
폭격 받은 가로 상에서 국왕과 국민들은 만났다. 이와 같이 해서 개인적 접촉이 있을 때는 새로운 상호 이해가 왕과 국민 사이에 움터간 것이다.
히틀러가 국왕이 거처하는 버킹엄 궁전을 폭격한 일, 자기들의 왕이 자기네들과 똑같이 고통스러운 전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국왕과 국민과의 감정 교류에 커다란 힘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영국 전쟁을 전술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국면은 독일군이 계획 변경의 시기를 그르친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독일군의 작전 행동의 모든 면에 나타났다.
1920년대의 절망적인 시대부터 독일 공군 재건에 동이 있었던 베텔란·파일럿과 제1선 간부들이 언제나 참모 본부가 내리는 지령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잘못이다.
그렇지만 독일 공군 장병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커다란 꿈이 서려 있었다.
독일군이 자랑하는 직관적 작전에 맹종함으로써 복수전을 완수하였으며 당당히 영불 해협을 대편대가 건너가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밀면 일격에 무너져 영국에 대한 승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제 독일은 12주간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모든 공군 병력을 동원할대로 동원한 것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히틀러를 위시한 독일 수뇌의 의견은 어쨌든 하루빨리 영국으로 하여금 화평 교섭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월에 영불 해협 상공에서 전개된 독일 공군력의 유시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고 교섭 유인에도 하등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8월에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을 때려 부수려고 대들었으나 오히려 무참한 실패만 맛보았다. 그러다가 9월도 다 갈 무렵 독일 공군은 런던 상공에서 강력한 영국 공군 전투기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의 전개는 히틀러를 중대한 딜레마에 빠뜨렸다. 즉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소련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중의 정면 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뒤로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불리한 결과로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히틀러는 대소(對蘇)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히틀러로서는 영국이나 독일의 같은 위세인 소련 공산주의 대항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영국이 화평 교섭에 응해오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었다.

당시 히틀러도 영국 수상 처칠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알고 있었다. 그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1941년 6월 22일 밤 독일군의 소련 침공의 보도를 접하고 처칠 수상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 것을 들 수 있는 동시에 나치 독일에게는 또한 청천벽력이라고도 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나치스 제도를 공산주의의 특징과 구별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욕망과 인종적 지배 이외에 아무 원칙도 없다. 잔학과 흉포한 침략의 능률에 있어서 그것은 인간적 흉악의 어떠한 형태보다도 지독한 것이다. 과거 25년간 나만큼 일관된 반공주의자의 예도 없을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에 관해서 내가 한 말을 한마디라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태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실되는 것이다. 과거는 그 범죄와 그 우거(愚擧)와 그 비극과 더불어 순식간에 사라졌다.……(중략) 우리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흔적을 모조리 박멸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어떤 자일지라도 이 목적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이야기를 다시 돌리기로 하자. 히틀러는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면 계속해서 다음해에는 모스코바로 노도(怒濤)와 같은 진군을 개시한 배짱이었다.

그 때문에 우선 독일 공군의 전력을 보존하고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독일 공군의 행동 가능 대수는 약 25% 감소라는 끔찍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더구나 히틀러는 영국에 대하여 최후의 공격을 걸어온 것이다.

10월에 접어들어 독일 공군은 영국 본토의 항공기 공장에 집중 공격을 가해 왔다.

이 공격은 영국으로서 유례없는 타격이었다.

런던시에 대한 가차 없는 보복 공격보다도 훨씬 깊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최후의 펀치였다.

이 공격과 병행해서 독일의 자랑인 U뽀드에 의한 해상 봉쇄 작전도 더 한층 강화되어 갔다.

독일군이 노리는 것은 모두가 영국으로서는 두려워할 만한 사태로서 절박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독일의 공격 기도도 시기를 잃었다. 히틀러는 그 해 여름 어떻게 하든지 영국과의 화평 교섭을 타결시키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대소전의 개전이 염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영독 전쟁 당초부터 히틀러가 이 항공창에 대한 집중 공격이나 U뽀드에 의한 해상 봉쇄를 실행하고 있었다면 전쟁의 귀결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히틀러는 쉽게 그가 바라던 화평 조건으로 영국을 굴복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폭격기가 부족하면서도 억지로 광범한 공중 전투로서 영국에 도전한 데서 히틀러의 오산의 시초가 있었던 것이다.

소개명령(疏開命令)

U-뽀드의 해상 봉쇄 강화로 영국은 공업용 원료 수입에 커다란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수입되고 저장된 재료로 지체없이 신품 비행기가 생산되었으며 수리되고 정비된 비행기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독일이 이것을 단절시키기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더구나 비바부르크 경은 히틀러보다 한 걸음 앞서고 있었다. 그는 영국의 전 항공기 공장을 분산할 계획을 벌써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항공기 공장의 분산은 소규모의 것은 벌써 착수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규모적 분산 계획의 실시는 비바르크 경의 정력적이며 때때로 충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활(敏活)한 활동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9월 7일 조선창(造船廠)이 공습을 받았을 때 비바부르크 경은 사무실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당시 벌써 비바부르크 경의 사무소는 런던 관청가에서 소개하여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밀뱅크·빌딩 최상층에 있었다.

독일 공군의 폭격기로부터 낙하하는 폭탄이 조선창으로 빨려들어 가는 것처럼 퍼부어지는 광경이 생생하게 보였던 것이다. 이 때 불타는 조선창이 비바부르크 경의 눈에는 어느새 항공창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흡상 악몽과 같은 강렬한 공포를 경에게 주었다.

그날밤 열린 각 의석상에서 비바부르크 경은 즉시 항공기 공장 분산을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 때는 항고기 생산량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을 때였다.

분산 조치를 취함으로써 항공기 생산은 다소 장애를 받을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비바부르크 경이 이와 같은 분산 명령을 영국 정부 특유의 용어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발하였을 때 런던의 조선창은 아직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었다.

항공기(航空機) 증산(增産)

비바부르크 경이 생산상에 취임한 것은 그 해 5월 중순이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 사나이는 자기 직책을 통하여 조국에 눈부신 공헌을 하였다.

당시 각 비행대에 배속되어 있던 스피드 화이아 전투기와 허리케인 전투기를 제하고는 보충기로 즉시 인도할 수 있었던 전투기는 불과 8대였다.

비바부르크 경은 항공기 생산 및 정비의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9월 14일경에는 전투기 병력보다도 획기적인 강화를 보았다.

독일 공군에 의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동기 725대를 보유하였으며 1주간에 신조기와 수리기를 합쳐서 168대가 공급되는 실정이었다.

비바부르크 경의 책임 완수는 타협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랄만한 개선이 이루어져 갔다. 이에 정비례해서 비바부르크 경은 미움도 많이 샀다. 그는 그때의 긴급한 요청을 분명히 계산하여 자기 임무의 분수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다툼질은 비바부르크 경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하나는 당시가 전선기였던 전투기용 부로닝 0303 기총을 20미리 기관포로 바꾸자는 비바부르크 경의 주장이었다.

또 하나의 다툼질은 생산성에 복무하고 있던 영국 공군 장병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하여 비바부르크 경이 특별 진급을 빈번히 신청한 일이었다. 예를 들면 후리맨 중장의 경우가 그것이다. 비바부르크 경은 후리맨 중장의 즉시 진급의 수속을 밟았다. 드디어 후리맨 중장은 대장으로 승진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공군성의 노여움을 샀다. 후리맨 대장의 승진이 발표되기에 앞서 공군성은 다음과 같은 엄중한 항의문을 비바부르크 경에게 게시하였다.

영국 공군성은 공군 장교의 진급 사항은 비바부르크 경의 사무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몇 번 있은 다음 부지불식간에 생산성의 별명은 공군 장교 승진 촉진성으로 알려졌다.

최선(最善)의 계약(契約)

기관포를 장비한 허리케인형 전투기가 지체 없이 전장에 급입된 것은 면목약여(面目躍如)한 비바부르크 경의 즉시 행동주의를 웅변으로 말하는 좋은 예였다.

어느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관포를 장비한 허리케인기의 주익 부분만 200대분을 생산하였다. 다음은 동체 신품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비바부르크 경은 기다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미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던 200대의 허리케인 전투기에서 주익을 떼어내도록 명령하였다. 즉 묵으 기체에 새로운 기관포를 장비한 주익을 달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예정보다도 몇 주일이나 빨리 기관포를 장비한 허리케인기는 전장에 급입될 수 있었다.

미국 생업계와의 교섭에서도 비바부르크 경은 충동적이라고도 할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국 제품의 수준에서 볼 때 비바부르크 경이 미국에 발주한 제품의 대부분은 조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누가 영독 전쟁이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한순간의 지체도 용납될 수가 없었다. 미국제 항공기는 설사 좋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환영을 받았떤 것이다.

비바부르크 경의 미국 산업계와의 교섭 가운데서 최선의 계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항공기 엔진 제작을 영국 공업계의 중진인 로루스·로이스 사제의 매린·엔진에서 미국의 무명사회 팟카드사로 전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한때 포드사가 계약 대상사로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드사는 영국이 교전 중이기 때문에 만일의 위험을 생각해서 영국 공군용 엔진 제작 교섭에서 손을 떼었다.

전문가들은 영국 공군 요구에 부응할 만한 능력이 팟카드사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바부르크 경에게 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에 비바부르크 경은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팟카드사를 크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였다. 이리하여 팟카드사는 규모를 넓혔다. 그 대가는 영국이 지불한 것이었다.

전쟁(戰爭)의 종식(終熄)

영독 전쟁은 10월 31일에 끝났다.

그러나 제2차 대전의 규모는 점점 확대될 징조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영독 전쟁은 끝나고 영국민들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어졌다. 이리하여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다시 생의 즐거움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긴장해서 한꺼번에 해방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다.

BBC방송의 여섯 시 뉴스에는 다시 경마 중계가 시작되었다.

대로에서는 전쟁과 공습의 참화를 말해주는 온갖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바부르크 경은 불만이 컸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는 추락 독일기의 잔해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을 명령하였다.

끝으로 그때 수상 처칠씨가 이 전쟁에 바친 찬사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는 제2차 대전 회고록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기구의 정상에서 우리 전투 조종사들의 정력과 용기는 시종일관 정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살아났다. 내가(처칠 수상)하원에서

'인류의 투쟁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수인에게서 이와 같이 커다란 은혜를 입은 예는 없다.'

라고 말한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끝-

<39에서>

전 인류의 무모한 멸망이 초래될 핵 전쟁을 인간이면 누구나 혐오한다. 그러나 자유는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미사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공할 위력의 보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며 공산주의자들도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다. 중공업 시설을 어지간히 한 바 있는 소련은 지금 소비재 생산 시설을 추가하고 있으며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재가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인식하고 있다.

전략 공군의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핵무기를 사용하여 세계를 정복하려는 오산된 위험한 시도로부터 소련의 국민을 포함한 인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기욱(韓基旭) 역)

그 후(後)의 생활(生活)



HLCA의
손대철(孫大哲)씨

Eci la voix de la Corco libre...(여기는 자유 대한의 소리입니다...) 유창한 불어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두터운 유리창으로 들여다 보이는 녹음실에서는 아나운서가 마이크 앞에서 열심히 방송 원고를 읽고 있는 것이 보인다. 기자가 들어선 곳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방송국의 메인 컨트롤 룸(Main Control Room)이었다. 흡사 서양식 조리대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음향 조절대앞에서 이것저것 스위치를 만지면서 작업에 열중하던 손대철씨는 다가선 푸른 유니폼의 기자를 발견하고 곧 알아차렸음인지 반색을 하면서도 두 손으로는 여전히 작업을 계속한다. 한국의 유일한 대 해외방송 시설 기구인국제 방송국에서는 영·일·중·독·불 및 노어 등의 6개 국어로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의 소리는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혁명 정부의 적극 외교를 명실공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동 국제 방송국에서는 대 북한방송도 실시하여 북한 공산 지역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하며 작업을 끝마친 손씨가 손을 내민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아까 전화를 건 M 대위입니다.' 기자는 사전에 손씨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겠다는 의사와 방문 목적을 전했던 것이다.
다음의 글은 다년간 무선 통신 정비사로서 공군에 복무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 방송국에서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손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대강 간추린 것이다.

<민재익(閔載翼) 기록>

서울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노라면 천안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서 지선인 장항선(長項線)으로 갈아타고 소박한 시골 기차의 분위기에 쌓여 한참을 실컷 자고 나면 대천에 이른다. 과히 높지는 않으나 푸른 산으로 둘러쌓인 아늑한 마을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 대천에서 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32년의 여름, 그것도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한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지랑이를 파 어 올리는 8월 20일에 농사를 업으로 하는 단란한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산과 들로 마음껏 뛰어놀고 바다에 뛰어들어 심신을 단련하며 소년 시절을 즐겼고 차차 자라면서는 가정환경에 따라 대천에 있는 농업학교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과목 중에서는 과학을 가장 좋아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족적 비극인 6·25 동란이 시작되었으며 평화스럽던 내 고향 대천의 마을에도 육중한 공산군의 전차와 함께 잔악한 공산주의자들의 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다. 그 당시 대천농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나는 중과부적으로 부득이 후퇴를 하던 국군과 UN군을 따라 남하했으며 1952년 6월에 하사관 병과 15기생으로 공군에 입대했다. 이것이 바로 기술자가 되려는 나의 꿈을 실천에 옮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며 항공병학교에서 신병교육을 끝마친 나는 1952년 8월에 공군통신전자학교에 입교함과 동시에 무선정비사과정(VHF - 초단파)의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꿈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한 나는 전 교과 과목에 걸쳐서 모든 역량을 경주(傾注)하며 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했다. 통신하사관교육과정 이수한 나는 통신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1953년 5월 당시 수원에 있던 미 공군 항로통신대대에 파견될 때까지 10여 개월간을 동교(同校)의 교수부 교재과 근무했다. 미 공군 항로통신대대에 파견되어서는 미군으로부터 초단파 및 단파(VHF 및 HF)의 교육을 받는 한편 지휘탑 무선 정비실에서 미군과 함께 합동 근무를 했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다. 우선 처음에는 언어가 잘 상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많았으며 그때 일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면 혼자 웃고는 한다. 미 공군에 파견될 때까지만 해도

실제 근무 경험이 짧았고 더구나 그 당시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통신 기재가 미군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뒤지는 것이었던 관계로 그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들 중에는 처음 대하는 것조차도 많았으며 이러한 관계로 미군들도 우리가 기재를 만지는 것을 꺼려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기재에 대한 탐구심은 나를 강하게 유감했으며 일부러 야근을 자청하여 밤에 정비실에 남아서는 아무도 없는 사이에 고장난 기재들을 마음껏 만졌다. 기술이 차츰 숙련되면서부터 이것저것 고장난 기재를 고치기도 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미군 동료들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기재를 맡기고는 고치도록 하였다. 3년간에 걸친 미군과의 합동 근무는 나의 기술 향상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은 1956년 8월부터였다. 그 당시 고급 하사관의 야간 대학 취학 장려라는 공군의 일반 교육 방침에 용기를 얻은 나는 낮에는 정비반의 선임 하사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저녁이면 서울에 있는 한양 공과대학의 야간부 전기 공학과에 다니면서 그때까지 실무에 부닥치면서 배워 온 기술을 이론상으로 재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의 엔지니어로서의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된 것이었다. 한양 공대 전기 공학과에 입학하기 전만 해도 나는 나의 본격적인 전기 이론의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을 닦기에 무척 고심했고 모시고 있던 여러 상관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다. 근무 시간 틈틈이 수학과 독어를 공부했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당시 공대를 졸업하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시던 장교임들에게 뛰어가 물었고 나의 이러한 열성에 감동하였음인지 묻기만 하면 모두들 친절히 가르쳐 주었고 이것은 나의 독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야간 등교시(그 당시 계급 하사)에는 저녁을 굶고 등교했으므로 밤늦게 귀영(歸營)할 시간이 되면 무척 배가 고팠고 하루종일 근무에 시달리고 또 밤늦게까지 강의를 듣고 피로한 몸을 이끌고 귀영할 때면 도중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솟았으나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다는 커다란 꿈은 종래 버릴 수가 없었기에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학업을 계속했던 것이다.
1958년 9월에는 6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으며 그 후에도 학업을 계속했따. 이듬해인 1959년 2월에 서울 중앙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방송 기술자의 모집 시험에 응시했으며 오랫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었음인지 영예의 합격을 하게 되었다. 동 시험에 합격한 나는 처음에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1961년 7월부터는 현 근무처인 국제 방송국에서 Audio Mechanic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역 후 방송국에 근무하면서도 밤에는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 강의를 들었으며 한양 공대를 졸업하고 나서 강사로서 서울에 있는 한미 종합 고등 기술학교에서 야간에 무선 공학 강의를 약 8개월간 담당하기도 했다. 같은 기술 학교에서 야간부 강사로 재직시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학생 중에는 군에서 기술부문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많았으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군복무시 자기가 종사하던 기술의 습득을 등한히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전역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기술들이 사회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면 종사특기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도 느낀 사실이지만 지금도 거리에서 푸른 유니폼의 신사를 만나면 어쩐지 가족을 만난 듯이 반갑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오늘날과 같이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소지하는 특기가 절대적인 무기이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다행히도 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행운을 가졌다면 이를 최선을 다해서 연마하라. 이것만이 전역 후 생활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 × ×

몸에 기술지녀야 할 시대
복무중 특기 연마하라

<손씨> 정비사(整備士)로 있으며 전문학업(專門學業) 마스터

군에 복무 중 기술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전역 후에도 계속하여 사회인으로서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해 온 손대철 씨는 현재 국제방송국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 복무 시부터 교제를 계속해 오던 공주사범출신의 재원인 권정원(權貞媛) 여사와 작년 1월에 화촉을 밝혔다.
작년 10월에 첫아들을 낳은 손씨 부부는 세 식구의 부유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손씨가 받는 봉급에서 매월 약간의 저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장래의 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요! 아직 기술인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는 씨의 가정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즐거움이 깃들고 다복하기를 빌었다.

× × ×

범죄 예방의 길을 찾아서



선악계를 범한 아담의 후예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신의 저주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인간사회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해 범죄 포화의 이론을 긍정하면서 체념적인 태도를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심정이 안타깝다.
이제 군대라는 특수사회를 도마 위에 놓고, 여기에서 연출되는 각종 범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가면서 범죄 예방의 길을 모색해 볼까 한다.

—1. 어느 도망병의 경우를 중심으로—

K 일병은 내성적이면서도 무척 의지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역경에서 허덕이게 되었으나 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을 격려해 가며 장차 유능한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더욱 쪼들려 가는 집안 살림 때문에 결국 학업마저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유능한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은 끝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공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어코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을 다져 먹었따.

그리하여 적지 않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기 하사관 후보생 모집에 합격되었을 때는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였다.

후보생 생활은 입대 전 생활에 비하면 커다란 호강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스팀이 들어오는 내무반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취참 나팔 소리를 들어가며 푹신한 침구 속에 들 때면 으레 가난에 시달리는 집안 식구들의 초라한 모습들이 떠오르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3개월간의 후보생 생활이 끝나자 그는 ××학교에 배속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원하던 기술교육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육에 충실했다. 그리고 제법 군대 생활에도 익숙하게 되었다.

어느덧 그가 입대한 지도 반년이 넘는 어느 일요일이었다.

일찍이 외출을 해서 집에 가보니 와병 중이던 70고령의 아버지가 신장염으로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치료는커녕 생계조차 곤란한 형편이었다.

K일병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기 주위에서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을 머릿 속에 그려보았으나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이리저리 싸다니며 약값을 마련해 보았으나 그것도 헛일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고 어느새 귀영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늙은 아버지와 끼니를 굶는 가족을 내버려 두고는 차마 발걸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그냥 귀영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귀영을 단념하고 아버지의 치료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인가……."

K일병은 쓰디쓴 화랑 꽁초를 연거푸 빨아가며 좀처럼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방황했다. 어느덧 귀영 시간인 20시 30분이 가까워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식구들의 애절한 눈초리를 뿌리치고 나설 수는 없었다.

마침내 K일병은 군적에서 떠나 취직을 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스물두 살의 젊은 나이로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것 같았다.

그는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다. 일가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취직을 간청해 보았다. 그러나 좀처럼 시원한 대답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서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서울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낯선 타향에서는 한층 어려운 일이었다. 끼니를 굶고 한데서 자면서까지 이리저리 헤매보았으나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냉혹한 사회 현실 앞에서는 그의 끈질긴 인내력과 강한 의지력도 무력하기 짝이 없음을 차츰 깨닫기 시작하였다.

대전과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무려 두 달 동안이나 헤매었건만 도무지 뾰족한 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야속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하늘이 그대로 내려 앉는 것 같았다.

"세상 일이 이처럼 허무할 수가 있을까?"

그는 한동안 미친 사람 마냥 멍하니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자 차츰 도망병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면서 견딜 수 없는 범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갔지만 산 사람은 끝내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마침내 K일병은 지나간 과오를 깨끗이 속죄하고 새로이 출발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튿날 아침 일찍이 공군××헌병대 역전 파견대에 자수하였다.

그리하여 만3개월 4일간에 걸친 그의 도망병 생활은 끝을 맺고 준엄한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법에도 인정은 있어 이와 같은 K일병의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 그 후 그는 공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 경비법 제9조(도망죄)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 ×

이상이 K일병의 범죄 경위였다.

그러면 과연 K일병의 범죄는 불가항력이었던가?

우리는 이 경우를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능히 예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직속 상관 상급자는 항상 부하를 감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애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상기 K일병의 경우에서 상관이 그의 가정 형편을 알았다면 그의 부친은 공군 가족 진료소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상하간의 밀접한 정신적 결합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정신적 결합이 이루어졌었다면 위의 경우에서 K일병은 서슴지 않고 상관에게 상의했을 것이다.

K일병이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친우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의논이 없었다는 사실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더욱 철저한 방범 교육이 요청된다.

전시 하의 도망죄가 사형 또는 다른 형벌로 처단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고 있었던들 K일병은 그처럼 당돌하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이 완전히 가추어질 때 K일병의 경우와 같은 유사 범죄는 능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혁명공약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월간(月間)

주요(主要) 신문(新聞) 사설(社說) 요약(要約)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혼연일체가 되고 근로정신을 숭상하며 도의적 심성을 가다듬고 늘 학습할 줄 아는 백성이 될 때, 인간개조를 통한 도의 재건과 경제 재건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며 사리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 정신을 발휘할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와 겨레는 내일의 부강과 자손만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 근로, 도의, 학습을 행동강령으로 삼자.

우리는 1962년을 가리켜 건설의 해라고 정하였다. 또 인간개조의 해라고도 하였고 민정 복귀를 위한 준비의 해라고도 일컬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자는 염원을 표상한 말들임에 불외한 것이며 우리들의 이러한 염원을 성취함에는 실패에서 얻은 교훈들과 후퇴를 되풀이 않겠다는 반성을 간직한 채 앞을 향하여 줄달음질치는 길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주 국민이 되어야겠다. 우리를 에워싼 국제 정세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자주독립 국가의 하나의 국민으로서 단결할 때 타파할 수 없는 장해는 없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국토 양단의 민족적 비운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우리는 노동을 숭상하는 국민이 되어야겠다. 노동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재물을 창조해 낸 것이다. 봉건적인 신분 망념에서 벗어나서 노동을 천시하고 근로를 기피하는 악습에서 탈피해야겠다.

우리는 도의적인 심성을 가다듬어야겠다. 도의의 쇠퇴는 사회적인 혼란과 각종 범죄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존속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초보적인 사회의식에 반이라도 눈을 떠서 보다 나은 도의를 진작시켜야겠다.

우리는 학습하는 인간이 되어야겠다. 동서고금의 현철들의 가르침을 빌 것까지 없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깨우치고 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직장 가정 할 것 없이 일상생활을 통한 학습을 부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해의 행동 강령으로서 자주와 근로와 도의 그리고 학습을 위하여 맹세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의 재건과 인간의 개조와 더불어 통일의 비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1월 2일자)

☆박 의장(朴議長)의 신년도(新年度) 시정(施政) 방침(方針)을 보고
—결국 국민의 마음씨에 달렸다.—

1월 5일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천명한 신년도 시정 방침의 요점은 ①반공 태세의 강화 ②선린 외교 ③행정 체제의 정비 ④사회 정의의 구현 ⑤자립 경제에의 새 출발 ⑥국민 교육과 사회 정책의 진작에 있다. 이를 요약하면 국민 도의와 국민 경제를 재건하여 자유 민주 사회를 이룩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호한 자표의 과감한 실천은 혁명 정부의 노력만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범국민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 국민은 반공에 투철해야겠다. 다만 소극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박 의장이 시청 방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공 민주 이념을 확립하고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앙장(昂場)하여 국민 정신을 진작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능가하는 도의적 민족 이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의의 퇴폐가 중요 원인인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고 자립 경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재건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장차 이 나라의 공업화를 궁극 목표로

각 기지 내무반장 여러분!

당신의 내무반에는 항상 우울한 기분이 풀리지 않는 구름처럼 꽉 차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의 장벽이 반원 간에 혹시 있지나 않습니까?

만에 일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곧 걷어 버리십시오. 이 화근이 더 커지기 전에 곧 그러한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반원들을 웃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늘 아니하면 당신의 내무반은 내일 우울할 것입니다.

내무반원 여러분!

당신은 옆의 전우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화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공연히 짜증을 내지나 않습니까? 먼저 껄껄 웃으며 그에게 당신의 너그러운 손을 내어 볼 만한 아량은 없습니까?

× ×

영내(營內)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娛樂)

파안자(破顔子)

사람은 항상 긴장해서 살 수는 없다. 문명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그만큼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심신을 쉴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오락이 더욱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와 도의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경제의 재건은 도의의 재건을 촉진할 것이요, 도의의 재건은 경제의 재건을 유도할 것이다.

경제의 재건과 도의의 재건은 결국 국민의 마음씨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박 의장의 시정 방침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필코 국가를 재건해야겠다는 불퇴전의 결의가 솟아오르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경향신문」 1월 6일 자)

☆인간개조(人間改造)의 현실적(現實的) 바탕
-올바른 민주정신과 개척 정신의 추구로부터-

인간개조라는 말은 혁명정부가 지난 자유당, 민주당 치세에서의 정치적 부패와 무능이 가져 왔던 여러 가지 사회악과 무질서 상태에 대하여 국민 정신 혁명의 한 모토로 내건 것이리라.

요즈음 김 중앙정보부장이 최근 가짜 정보원이 날뛰고 있어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경고한바 있는데 준열하게 구악을 다스리고 있는 명치 하에서 이러한 악의 씨가 출현하는 것을 봄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개조가 지난하다는 것의 증좌이며 아직도 우리 국민 가운데 구악을 탈피치 못한 자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조시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대 모화사상을 터전으로 관인사회를 형성하여 일부 사류는 극히 비생산적이고 관념적인 공론의 자존 망대로 일을 삼았으며 서로 당파를지어 갖은 모략 중상을 일삼았고 이래서 이조 정치는 국가 민족을 빈곤과 낙후성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해방 후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근대 합리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선택하기는 했으나 이조 중세적인 방법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자유당 정권의 정치적 부패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는 땅에 떨어지고 무법과 위장 사상과 가짜가 횡행했던 것이다. 5·16혁명은 바로 이 위장 민주주의에 대하여 바른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한 혁명을 사명으로 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 혁명은 널리 국민적인 정신 혁명에까지 발전돼야 할 소이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정신 구조의 표리로 되는 것은 상식인 것이며 우리의 인간 개조라는 것도 결국은 합리적이고 판단성이 있는 지적인 질서를 가지는 인간형에 대한 기구에 다름 아닌 것이고 거기에 자기자신을 발견할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의 추구는 바로 우리 사회를 저열한 위장 행위로부터 탈각하고 무엇보다도 공동 협조를 통하여 우리네 생활에서 빈곤과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와 행동에 대한 체념적인 자연 관조적 경향인 동양적 타성이 우리 고유정신의 한 측면이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운명을 타개해 나가는 새로운 개척 정신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 1월 5일 자)

☆이기적인 병에 걸린 국가 사회는 반드시 망해 왔다.
-정부 시무식에서의 박 의장 담화를 보고서-

1962년의 업무를 일제히 개시하는 시무식에서 박정희(朴正熙) 의장은 올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 재건의 해임을 명심하고 최고 회의는 혁명 정부의 심장부이니 모든 면에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①혁명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솔선수범할 것 ②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철저히 할 것 ③ 특권의식을 버릴 것 등의 세 가지 시책을 지적했으며 '혁명 정신이나 혁명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는 성했고 사리를 앞세우는 나라는 망했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및 '자기 직분 이외의 월권행위나 국민의 빈축을 사는 특권 의식을 갖는다면 이것은 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행동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말은 최고회의나 정부 직원의 가슴 속 만을 파고드는 말은 아니다. 사실상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성했고 한나라 백성이 모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졌을 때 그 나라 그 백성은 반드시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는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개인의 권리가 국가라는 기관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라고 하여 사리를 국가의 리익보다 앞세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착각은 또 없을 것이다.

남이야 살든 죽든 나라야 망하든 흥하든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자기를 가장 현명하게

적당한 휴식과 오락은 인간을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게 하는 청신제인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사회에는 아직은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모르고 울어야 할 때 울줄 모르는 중용지사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감정의 정당한 발산조차 거부하며 순란한 성의 화폭 위에 약동하는 생명의 무표정한 화석 위만을 그리고 있는 화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편만하게 존재하면서 좀처럼 살아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불식되어야 할 우리의 따분한 유산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마음의 허리띠를 푹 풀어 놓고 한껏 웃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는 전우들의 다정한 일면을 느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데서 우리는 원숙해지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새삼 놀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소개하는 몇 가지 영내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은 이러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 시도의 하나다. 아무쪼록 많은 활용을 바란다.

보호하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자기를 망치는 어리석음은 없는 것이다.
이익적인 행동이나 심정은 정치, 사회, 경제 등 큰 문제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싹트는 것이며 마치 무서운 콜레라 병이 한 잔의 불 속에서 퍼지듯이 공산주의를 불러들이는 이기적인 망국병도 이웃과의 말다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우선 자기 마음속의 이기적인 사리의 요괴를 경계해야 한다.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 이기적인 병을 내쫓지 않고는 혁명 정신이나 혁명 공약이 한 마디로 요약되는 국가를 위한 봉사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이기적인 사회는 반드시 망하고 지금까지 망해 왔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즈음에 우리는 무엇이 가장 무서운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한일보」 1월 5일자)

월간 중요 국제 시사 요약

☆소련과 알바니아간 단교

중공의 지지를 받는 공산권 내의 소국 알바니아가 대담하게도 그들의 종주국인 소련의 수상 후루시초프를 레닌의 배신자라고 공박함으로써 후루시초프의 보다 더한 노염을 산 것만은 사실이었으나 알바니아 공산당수 '호자'에 대하여 그의 놀랄만한 대소 반감에 세계는 관심을 가진 바 있었는데 지난 12월 10일 주소 알바니아 대사관은 소련 당국으로부터 알바니아 외교관의 출국을 요구하며 양국의 국교가 단절되었음을 통고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스탈린주의 말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후루시초프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스탈린주의를 공산주의의 전통적 노선으로 삼고 있는 알바니아 공산 정권에 대한 압력, 즉 당수 '호자'의 실각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되거니와 소·알의 이와 같은 알력의 표면화는 1948년 6월 유고슬라비아가 소련 공산당 노선에 반기를 들므로써 코민포름으로부터 축출된 이래 또 하나의 공산권 내부 분열을 입증하였다.

그런데 동단교가 있기 약 2개월 전 후루시초프는 제22차 소공산대회에서 알바니아 공산당은 스탈린주의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공산 진영의 단결을 파괴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는데 이에 대하여 알바니아 공산당은 후루시초프야말로 레닌을 배신한 수정주의자라고 정면으로 반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무성은'그것은 어떤 큰 뜻을 가지는지도 모르나 공산주의의 제도상으로 볼 때 아무런 뜻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평하였다.

☆유엔 총회에 있어서의 한국 문제 토의

제16차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토의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괴뢰 대표의 참석을 봉쇄하는 전략을 성공시켰다. 유엔 총회 정치 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부터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토의에는 다음의 4개 결의안이 제출되었던 것이다.

①한국 동란 참전 15개국 결의안=이 결의안은 한국의 통일을 민주적 대의 정치의 형태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수립하고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업무를 계승시키며 한국 통일에 관한 여러 유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②외몽고 결의안=이 결의안은 유엔 총회가 한국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남북한 대표를 동시에 토의 석상에 초청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수하라는 내용.

③미국 결의안=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표만을 표결권 없이 한국문제 토의에 초청하자는 내용.

④태·희결 의안=이 결의안은 제15차 총회 때 미국 대표가 제시한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는 조건하에 북한 대표를 참석시키자는 조건부 북한 대표 초청안이며 태국 및 희랍이 제안한 외몽고 결의안에 대한 수정 결의안이다.

같은 달 14일 좌기(左記) 4개 결의안 중

그리고 이번 영내 오락은 시기가 겨울이니만큼 실내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몇 개 추려보았다.

1. 얼굴 그리기

△[개요]두 팀에서 교대로 한 사람씩 눈을 가리고 나와 차례로 지정된 얼굴의 일부분을 재주껏 앞에 있는 종이와 흑판에 그려 넣는 놀이다.

△[인원수] 한팀이 네 사람 이상 열 명 정도가 알맞다. 그러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얼굴을 더 세분하여 그리게 하거나 팀을 늘이면 된다.

△[준비할 물건]

①분필 또는 연필 두 개

②흑판 한 개 또는 종이(클수록 좋다) 두 장

③수전(손수건도 가함) 두 장

△[방법]

①리더가 흑판에 같은 크기의 얼굴 바탕을 두 개 그려 놓는다. 흑판(또는 종이)에서 약 5M 앞을 출발선으로 하고

②각 팀에서 한 사람씩 교대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나와 자기편 얼굴에 지정된 부분의 그림을 그려 넣는다.

△[주의]

①이때 그림 분량은 사람 수에 따라 적당히 얼굴을 세분하고 그림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눈→코→입→왼편 귀→눈썹→오른편 귀→주름살→수염.

②경기자가 출발선에서 그림을 그릴 때까지 절대로 흑판을 보아서는 아니 되며 관중도 자기편이라 하여 코치하면 안 된다.

에서 태·희 결의안이 63대18 기권19 불참 3표로써 가결되자 정 위의장 알젠틴 대표 마오·아마데오씨 는 한국대표의 즉시 참석을 선언하였는데 이날 부표(否票)를 던진 국가는 공산권 10개국 외에 쿠바, 아프가니스탄, 자유중국, 기니아, 인도네시아, 이락, 말리, 유고 여러 나라였다.

15일, 한국대표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최덕신 외무부장관은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공산 진영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과 대한민국은 민주통일 국가건설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며 자유세계 우방 각국의 협조 있기를 희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이어 20일에 재개된 토의에서는 북괴(北傀) 참석을 완전 봉쇄하는 미국의 결의안이 54대17 기권 22로 채택되었는데 같은 법의안의 내용은 '본위원회는 북한의 회답 없음이 유엔의 기능과 권위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북한 대표는 본위원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같은 결의안의 채택은 사실상 북괴 대표의 참석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다.

☆중공(中共)의 유엔 가입 패배

12년 동안 끌어온 북경 정부의 유엔 가입 문제는 제16차 유엔 총회에서도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의해서 단절되었다. 즉, 지난 12월 15일 유엔 총회는 소련의 제안인 이른바 중국 대표권 대체문제를 표결하였는데 찬 36 반 49 기권 20으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가맹은 과반수 다수표로써 가결되는 것이나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는 중대 문제로 간주하여 3분의 2 다수표가 있어야 한다는 미국안이 채택됨으로써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중공의 유엔 가입 표결 방식을 중대 문제로 인정하자는 이 예비적인 절차상의 미국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61대 34 기권 7이었다. 따라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표수는 103표의 3분의 2 즉 69표를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도, 고아를 무력 점령

인도는 지난 12월 18일 새벽 인도 서해안에 있는 3개 지역의 포르투갈의 식민지 고아, 다망, 디우를 동시에 일제히 진격하여 불과 30시간만에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다. 전기 3개의 포르투갈 령은 포르투갈이 해양국으로서 한창 그 위세를 떨치던 16세기에 그들의 식민지로 만든 것인데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자 인도는 같은 식민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양국간에 그 협정이 있었으나 타협을 보지 못한 채 오늘까지 끌어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네루 수상은 전격적인 군사 행동을 한 것이다. 인도군이 행동을 개시하자 미국, 영국 등은 인도에 대하여 군사 행동의 중지를 호소하였고 살라자로 포르투갈 수상은 협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고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네루 수상은 이를 거부하고 무력 점령을 강행하였다.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 미국의 중재, 살라자로 수상의 협상 제의가 완전히 무시되자 포르투갈 정부는 즉시 같은 문제를 유엔 안보 이사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전 포르투갈 영내에 거주하는 인도인을 억류하는 한편 그들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포르투갈의 안보제소를 즉각적으로 지지하였고 즉시 소집된 안보리는 포르투갈의 항고를 7대2 기권2로서 채택하고 토의에 들어갔는데 포르투갈 대표가 인도는 계획적으로 고아를 침공하 였다고 비난하자 인도 대표는 안보 이사회가 포르투갈로 하여금 고아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미국 대표는 인도의 침공은 분명히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하였고 영국, 터키 대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제 문제해결에 무력을 행사함은 개탄할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소련 대표는 식민주의를 청산치 않은 포르투갈은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외신에 의하면 인도는 같은 침공에 대하여 소련의 원조를 약속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방인 중에 있는 소련 최고 회의 간부 레오니트·브레즈네프는 인도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표명한 바 있었으므로 네루 수상은 그로부터 원조의 확약을 받고 군사 행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관측은 미국이 만일 안보리에서 고아로부터 인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기된다면 소련은 이를 봉쇄하기 위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외교 전문가들의 통일된 견해가 그것이다.

고아는 면적 3370 평방 킬로이고 인구는 약 62만, 고프라,



△[승부] 두 팀중 전체적으로 보아 우수한 그림을 그린 편이 이긴 것이다.

△[평]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놀이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보기에는 쉽게 그릴 수 있을 듯해도 막상 그려보면 바로 코, 입, 귀를 맞출 수가 없다. 코가 눈 위에 있기도 하고 눈과 입이 키스하는 데는 폭소가 연발할 수밖에 없다.

△[응용] 그림 내용에 변화를 가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2. 벙어리 놀이

△[개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등에 써 붙여진 별명을 말 이외의 제스처만으로 다른 한 사람이 알아맞히게 하는 놀이다.

△[인원수]—20명 이상 50명까지 같이 즐길 수 있다.

△[준비할 물건]

여러 가지 별명을 쓴 16절지 정도의 종이와 등에 이를 달 수 있는 핀 같은 것 약간.

△[방법]

①인원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서 교대로 두 사람씩 나와 경기를 진행한다.

향료 소금 등을 수출하며 유명한 중개 무역지다. '다망'은 면적 148 평방 마일, 인구 약 6만, 어업 조선 소금 생산으로 유명하다. 디우는 섬과 항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만 4천여 1535년에 포르투갈의 침공으로 식민지가 되었다.

서방측은 고아에 있어서의 인도 군사 행동을 비난하고, 포르투갈 3개령으로부터 인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으로 사멸되고 말았다. 이로써 소련의 거부권 행사는 99차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안보리의 아아 3개 회원국은 포르투갈 3개령을 인도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안은 서방측에 의해서 부결되었으나 소련은 이 아아 3개국 안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로서 사실상 유엔은 고아 사태에 대하여 이렇다 할 해결점을 발견치 못하고 인도의 고아 등 침공은 하나의 기정 사실로 인정됨으로써 유엔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련을 겪는 것이다. 유엔은 평화를 보장해야하며 식민지주의를 배격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고아 사태를 다루는 궁극적 입지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서부 뉴기니아 문제

고아에 대한 인도의 군사적 침공이 감행된 바로 다음날 즉 12월 19일 인도네시아의 스카루노 대통령은 네덜란드 령 서부 뉴기니아를 무력 수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동남아 지대는 더욱 떠들썩하였다. 스카루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총동원을 내리면서 서 뉴기니아에 인도네시아의 국기를 꽂는 데 전 국민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의 실천 사항을 밝혔다.

①파푸아 피뢰 정권을 수립하려는 네덜란드의 기도를 좌절시킬 것.
②인도네시아의 조국의 일부인 서 뉴기니아에 적백색의 인도네시아 기를 올릴 것.
③자유 그리고 우리 조국과 우리의 국민을 방위할 총동원령에 응할 태세를 갖출 것.

이와 같은 스카루노 성명이 발표되자 인도네시아 공군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여 뉴기니아와 인접한 동부 영공을 봉쇄하고 같은 지역에 새로운 사령부를 설치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네덜란드도 이에 대비하여 뉴기니아 주둔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일방 정부는 유엔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카루노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서부 뉴기니아에 독립 정부를 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호소한 케네디 미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회답에서 네덜란드가 그와 같은 도발적 행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 무력 행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1950년 4월 반둥 회의 이래 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수카루노 정부가 그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서부 뉴기니아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와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11월 헤그 원탁 회의에서 서부 뉴기니아의 귀속 문제는 동 협정조인 후 1년 이내에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에 위임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뉴기니아 주민은 인니족이 아니며 뉴기니아 개화 정책은 같은 지역을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통치하여 왔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적임국이라는 주장하에서 유엔 헌장에 의한 비자치 지역으로 규정하고 통치해 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측은 헤그 협정이 뉴기니아의 영토 주권을 무조건 인도네시아에 양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56년 2월에 이르러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인도 연합 헌장을 파기한다고 통고하는 동시에 서부 뉴기니아의 쟁취를 목표로 삼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57년 11월 아아 19개국, 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여 이것이 부결되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자산을 접수하여 국유화하였고 1959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 14주년 기념 석상에서 전 국민은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는 서부 뉴기니아를 쟁취할 국민운동에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스카루노 대통령의 연설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관계 악화에 박차를 가하여 드디어 6년 8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서 대 네덜란드 국교 단절 선언에까지 이끌어 갔던 것이다.

☆소(蘇)·백국(白國) 제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

벨기에 사베나 항공 회사 소속 칼라벨르·제트 여객기가 1월 8일 이란 국경 지대 상공에서 소련 제트 전투기에 의해서 공중 납치되었다. 동기(同機)는 도착 예정지인 이스탄불에 도착하기 1시간 반 전 즉 오후 5시 25분에 소련 비행기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무전을 두 번이나 쳐왔다고 알려졌다.

---

②그중 한 사람(A)에게 게임 리더는 별명이 쓰인 종이를(예 엿 장수) 등에 붙여준다. (물론 당사자가 보든가 미리 알면 안 된다).
③나머지 한 사람(B)은 A에게 말은 하지 않고 몸짓만으로 엿장수 흉내를 냄으로써 서로 하여금 알아 맞추게 한다.
④이때 A는 세 번까지 대답할 수 있으나 세 번째도 못 맞추면 실격이다.

△[주의]
①별명 내용이 당사자에게는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
②별명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추잡한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승부] 많이 알아맞힌 편이 이긴다.

△[평] 아마추어 병어리들이 만들어 내는 제스처들이 재미있다. 따라서 리더는 가급적 재미있는 별명을 만들어야 한다.

(예) 깨엿 장수, 바람난 과부, 엉터리 성악가, 왕초 거지, 부잣집 며느리, 펜싱 선수, 부정축재자.....등등 △[응용] 경기자의 수준에 따라 알아 맞히는 편이 대답 기회를 조절할 수도 있고 시간차에 따라 점수차를 두어도 좋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알아 맞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쌍을 같이 출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본란 투고 환영

보다 재미있는 게임을 알고 계신 분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정훈감실 정훈과「미사일」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체(人體)와 방사선(放射線)

핵실험(核實驗)에 의한 인류의 공포는 제거되어야 한다

구경섭(丘京燮)



세계 제2차 대전 말기 즉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때 단 두 개의 원자 폭탄으로 인한 일찍이 인류가 상상도 못했던 두려워할 만한 피해와 1954년 1월 태평양상의 핵실험에서 생긴 낙하진으로 처한 마샬섬 주민들의 피해는 인류에게 방사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갖게 했던 것이다.

요즈음 몇 달부터 소련이 계속적인 메가톤급의 강력한 핵실험을 행하여 각국의 비난을 받았고 방사선과 죽음의 낙진에 대해 인류의 전 신경이 집중되어 방사선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1953년 11월 1일 당시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씨는 유엔 총회의 연설에서 원자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즉 원자로 건설과 방사선 동위원소를 각종 공업, 농업, 의약 및 축산 등에 평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각종 산업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며 또한 그 이상의 활용으로 우리 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임에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방사선에 대한 성질과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면서 지나친 공포심과 반면 이에 대한 무관심한 행동과 소홀한 취급 등은 주의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핵폭발은 그 폭발 형태 즉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공중, 표면, 지하, 수중폭발로 구분되어 각각의 효과는 상이하게 된다.

전형적인 공중 폭발 시 발생하는 에너지 분포는 열효과와 폭풍 효과가 각각 50%와 35%이고 초기 핵 방사능 효과와 잔류 핵 방사능 효과는 각각 5%와 10%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의 예를 보면 원폭 피해 중 그 대부분이 열과 폭풍에 의한 상해였으며 방사선에 의한 피해는 괄목할 것이 못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사선에 의해 인체가 입을 수 있는 장해는 전시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빈번한 핵폭발실험에 의한 노출, 방사능 물질의 취급 혹은 직업적인 노출자의 건강 관리 등 중대한 문제이다.

핵폭발 시에 방출되는 방사선은 대별(大別)하여 초기 핵 방사선(Initial Nuclear Radiation)과 잔류 핵 방사선(Residual Nuclear Radiation)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방사선은 X-Ray와 비슷한 일종의 전자파인 Gamma-ray, Neutron, β-입자와 α-입자로 구성된다.

이런 방사선은 생물체의 구성 원소인 원자를 ion화하여 결국 생물체의 조직을 파괴시켜 중요한 각 장기의 조직에 치명적인 장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초기 핵 방사선은 핵 폭발 후 최초의 1분 동안에 방출되는 방사선이고 주로 Gamma-ray와 중성자를 방출한다. Gamma 선과 중성자는 비상 거리가 길고 강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신체를 X선처럼 투과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핵 방사선에 의한 생물체의 장해는 무기의 위력, 핵 폭발점부터의 거리, 방패물 등에 의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폭심에 가까울수록 생물체에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도 많아지며 치명적인 피해에 접근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방패호 없이 20 KT (KT란 TNT 1000톤에 해당하는 핵무기의 단위)의 핵폭발이 있었다면 초기 핵 방사선으로 인하여 상해로부터의 안전 거리는 약 miles이며 폭심에 접근할수록 더 위험하다.

또한 초기 핵 방사선에 의하여 장해는 신체 외부로부터의 노출에 기인하며 노출된, 선량의 다과, 노출시간과 노출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방사선 노출량이 미량이라도 그 노출된 세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나 다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또한 단위 시간 내의 노출 선량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변화는 빠르고 방사 선량이 적더라도 장시간 노출 시 신체 조직의 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생물학적인 장해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출된 방사 선량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전신에 조사되어 올 경우이고 각 조직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르다. Bergonie 와 Tribondeav 씨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방사능에 대한 감수성은 그의 재생 능력에 비례하고 그 조직의 분화 정도에 반비례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직의 재생 능력이 클수록 그리고 미완숙 세포일수록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은 크다는 것이다.

각 세포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의 순서는 아래에 기록한 것과 같다.

1. 임파구(淋巴球) 2. 과립성 백혈구 3. 기초 세포 4. 폐포 5. 담관 세포 6. 현장(賢藏)의 세관 세포 7. 내피 세포 8. 결체 조직

9. 근세포 10. 골세포 11. 신경세포

아직도 방사선 노출 치사량과 신체적 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최소량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구구하나 하여간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유해 가능성이 0 이하가 되는 최대 허용 노출량이 규정되어 있다.

X-선 및 방사능 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현재 정해지고 있는 선량은 0.3r/week 혹은 0.1r/day이다.

이와 같은 노출량은 계속적인 노출에 관계되는 것이며 군인으로서 전시 노출량은 전술적 양상에 따라 아주 상이하다.

다음 표는 방사선 노출량에 의한 신체의 장해를 대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잔류핵방사선은 핵폭발 1분 후에 방출되는 방사선을 의미하며 핵무기 내에 있었던 미분열 방사성 물질과 핵 분열로 산출된 분열 생성물인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말한다. 이 외에도 감응방사선이라고 하며 핵폭발 시의 주위 환경, 즉 흙, 바다, 대기 중의 여러 가지 원소가 대부분 중성자 포촉(捕促)으로 떠인하여 방사능 동위원소로 변하여 방출한다. 잔류방사선 혹은 감응방사선은 중성자를 방출하지 않고 Gamma-선, β입자와 α-입자 등을 방출한다. 이와 같은 방사능 물질은 폭발 주위의 물질과 섞여 원자운에 따라서 고공에 올라가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 무거운 입자일수록 빨리 낙하하게 된다.

소위 이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인 죽음의 재(Fall out)인 것이다. 이 낙진을 국지적 방사능 (Local fall-out) 낙진과 세계적 방사능 낙진(World wide fall-out)으로 구분하는데 국지적 낙진은 그 비상 범위가 비교적 좁고 무기 위력이 큰 핵폭발일지라도 풍향에 따라서 폭발 원점으로부터 200~300 miles 이상은 넘지 않는다.

초기 핵 방사선은 신체의 한 방향으로만 조사(照射)하는데 비해서 이 국지적 낙진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조사되며 핵폭발 후 2-3년은 2-3주 동안이 위험하고 방사선의 강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감소 속도는 점차로 늦어져 몇 년이 지나도 방사선을 갖고 있다.

반면 세계적 방사능 낙진은 국지적 낙진보다도 더욱 미세한 입자로 장기간 고공에 잔류하여 바람에 의해서 더 멀고 넓은 지역 즉 지구의 거의 전 표면에 분포되는 것이다.

핵폭발이 지구 표면 및 지하에서 일어났을 때 국지적 낙진의 의의는 크며 다량의 층벽이 원자운에 따라 고공으로 상승하며 핵폭탄의 대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핵폭발은 대기권에서 행하여지고 KT 급 (Kiloton) 핵폭발에 있어서는 미세한 방사능 입자는 거의 대부분이 대기권 내에 잔류한다. 이 입자의 대기권 내 잔류량이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은 2-3주이며 일반적으로 약 4~7주에 폭발 지점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구상에 분포된다.

메가톤급 핵무기의 핵폭발 시 설진은 대기권을 지나서 성층권에 도달하여 낙하하지만 미세 입자는 성층권에 잔류하여 매년 그 10% 정도가 하강하고 이 잔류 미세 입자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약 5년이나 걸리며 계속적으로 서서히 지구 표면에 널리 방사 물질을 낙하하게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을 두고 우리에게 위험한 잔류방사선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세상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가?

평화시의 핵실험이나 전시의 핵폭탄의 사용으로 오랜 기간동안 잠재적으로 장해를 일으키는 분열 생성물 중 가장 많고 중요시되는 방사선 동위 원소가 일전 보도된 것과 같이 Cesium-137과 Strontium-90이며 Cesium-137은 이의 반감기가 30년이고 생리적 반감기는 140일이며 γ선을 방출하고 인체의 혈액과 근육에 분포된다.

Strontium-90은 반감기가 28년이고 β-선을 방출하며 이 Strontium은 화학적 성질이 Calcium과 비교하여 생물체에 없어서는 아니 될 원소 중에 하나로 주로 뼈에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잔류 핵 방사선에 의한 효과도 초기 핵 방사선의 효과와 유사하며 특히 상이한 것은 β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에 의한 장해와 신체 내부에 방사선 물질이 들여올 수 있는 위험성의 차이이다.

만약 낙진 속의 β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물질이 피부에 접촉되었다면 β입자는 투과력이 없지만 ion화 시키는 힘이 γ-선보다 배나 됨으로 소위 β-화상을 초래한다.

1954년 3월 마샬섬에서 행해진 실험의 결과를 보면 핵 폭발 후 약 5시간 내에 백색 분말과 같은 放射能 물질이 낙하하기 시작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일기가 더운 까닭에 가벼운 옷차림에 맨발로 옥외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 백색 분말 상의 방사능물질이 주민들의 피부에 접촉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24~48시간 내에 피부가 타는듯한 기분을 느꼈고 이와 같은 증상은 1-2일 후에는 감퇴 내지 소멸하였으나 약 2-3주일 후에는 피부의 털이 빠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증상은 노출 후 9개월 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완쾌하는 데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

방사선에 의한 외부조사도 물론 위험하지만 신체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감으로 야기되는 위험도 중요한 문제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미세한 낙하진은 이로써 오염된 식물이나 물을 사용하거나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거나 혹은 피부의 상처 등을 통해서 신체 내에 침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폭발 후 24시간의 가장 위험한 기간에는 낙진 입자의 직경은 10micron (0.001cm)인 까닭에 거의 폐에로의 침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침입된 방사능 미입자는 그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신체의 각 부위에 분포하여 물리적 자연 붕괴 과정과 생리적 추출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체내에서 각기 특유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마샬섬의 예를 다시 보면 주민들은 약 2일간 오염된 음료수와 식물을 부지중 섭취한 바 폐를 통한 흡입보다도 경구적인 섭취의 결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 조직에서보다 위장관에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분포되었음을

노출 시의 주 증상 방사선량

노출 후 시간	치사량 700r이상	중간치사량 300r~550r	생존가능량 100r~250r
1주	2~3시간 내에 초기, 구토 및 설사	2~3시간 내에 토기, 구토 및 설사	첫날에 토기, 구토 및 설사
	어떤 경우에서는 무증상(잠복기)	무증상 (잠복기)	무증상 (잠복기)
2주	설사. 출혈. 자반. 구강과 후두의 염증. 발열. 무력증 사망 (사망률100%)	탈모 식욕 감퇴 전신 쇠약 발열 출혈 자반 안면 창백 구강과 후두의 염증 설사 무력증	탈모 식욕 감퇴 전신 쇠약 후두염 출혈 자반 안면 창백 설사 중 정도의 무력증
		중환 시는 사망 (사망률 50%)	다른 심한 합병증이 없으면 약 3개월 내에 회복 가능.

검출할 수 있었다.

방사능물질로는 odine-131, Barium 140, Strontium 90 등이었다고 한다. 폭발 6개월 후 오염된 오줌의 검사에서 이와 같은 동위원소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더욱이 Strontim-90 같이 물리적 혹은 생리적 반감기가 긴 방사능원소도 검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낙진에 의한 신체 내부에 있어서의 생리학적 효과는 아직도 불명이다. 그러나 신체 내부에 들어온 방사능물질의 양, 성질, 침입경로, 분포되는 각 조직, 생리적 반감기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며 마샬섬에서의 결과로 볼 때 핵 폭발 시 외부로부터의 조사에 비하여 피해 효과는 아주 적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주의를 한다면 낙진의 체내 침입으로 인한 위험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발달된 공기 및 공기 중에 함유하고 있는 미지 방사성 물질 혼합물의 최대 허용 농도는 아래와 같다.

제2표

모체 β 및 γ선 방출물, α선 방출물

공기 $0.2\times10^{-9}\mu c/c.c$ $0.2\times10^{-11}\mu c/c.c$

물 $10^{-7}\mu c/c.c$ $0.4\times10^{-7}\mu c/c.c$

제2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강도로 많은 양의 방사선에 전신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나타난 효과를 급성 효과(Acute effect)라 하며 반면 급성적인 증상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방사선일지라도 여러 번 반복하여 노출되면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만성효과(late effect, cbr-onic effect)라고 한다.

이 효과의 증상은 주로 백내장(Caaract), 재생불능성빈혈증(Aplastic Anemia), 백혈병(Leukemia) 및 발생학적 효과(Genetic effect)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인에게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해로운 일일 것이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으로서 우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X-선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의학적으로 진단, 치료 및 연구용으로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사용되고 있다. 비탄 의학적인 목적 이외에도 농공업, 축산업 등 모든 과학적 분야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끝으로 핵실험으로 인한 모든 인류의 공포는 하루 속히 제거되어야 할 문제이며 방사성동위원소의 전적인 평화적 이용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로 방사선 단위에 대하여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한다.

큐리(Curie): 방사능의 단위로써 매초당 개의 붕괴를 일으키게 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1큐리라 하는데 라디움(Ra) 1gr이 1초간에 붕괴하는 수에 해당한다. 1/1000큐리를 1미리큐리(mc), 백만분의 1큐리를 1 마이크로큐리(μc)라 한다.

Rad (Radiation absorbed dose); 피조사물질 단위 질량이 전리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고 흡수선량 1Rad는 100ergs/gr이며 미리 Rad(mrad)는 1/1000 rad이다.

렌트겐(r) : X-선과 γ-선 방사선량의 단위이고 기타 전리방사선에 관한 단위는 아니다. 방사선이 어느 물질에 조사되어 그 물질에게 얼마만큼의 전리 능력을 주는가를 표시하는 단위로써 0.001293gr의 공기 중에 1정전단위의 전기를 띤 음양 이온을 생기게 하는 X-선이나 r선의 양을 1r (roentgen)이라 한다. 1r의 1/1000을 1mr, 1mr의 1/1000을 1r이라 한다.

rem(Roentgen Equivalent, ml an) : 인체렌트겐 당량이란 뜻으로 1ren은 X-선 혹은 γ선 1r을 인체에 조사하였을 때 생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내는 타전리방사선의 흡수량을 말한다.

포대령(砲大領)과 그 주변
=고 이기련 선생=

이근우(李根雨)



두부랑 파랑 북어 같은 찬거리를 사서 자건거 뒤에 달고 귀가하는 〈포대령〉.
사심 없이 강직한 성품, 깊고 넓은 세계관의 시야, 물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학자적 기질, 불의에 굴하지 않은 맹렬한 정의감, 그리고 수하의 청년들과 곧 잘 어울려 다니는 소박한 동심의 주인공인 그는 분명히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이었다.

기억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군인을 쓰되 가능하다면 공군의 이야기를 희망한다는 편집자의 부탁이었으나 필자는 불행히도 공군과는 별로 사귀어 보지 못했기에 부득이 딴 얘기를 메꾸어 볼까 한다.

× × ×

포 대령의 얘기를 쓰기 전에 미리 밝혀둬야 할 것은 필자가 지독한 건망증이란 점이다. 우선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름도 외우질 못하는 것이다. 특히 술자리에서 만났을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구각 비포로 밤새껏 술잔을 나눈 초면 인사를 한 달 후에 만났을 때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다가 "실례지만 어디서 뵈온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이렇게 창피스러운 꼴로 맞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의 인명사에 대한 건망증은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끔씩 드나드는 술집 색시 이름이 송월이었는지 옥화였는지를 똑똑히 구별하자면 최소한 서너 달은 다녀야 비로소 뇌리에 등록이 되니 말이다.
이러한 나의 건망증은 본의 아닌 오해를 사고 "무례한 놈"'거만한 자식" 따위의 욕을 얻어먹어 왔으니 이것도 자업자득의 소치로 체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포 대령에 관한 나의 회상에 시대와 장소 및 당시의 시츄에이션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라도 이미 고인이 된 포 대령이나 그 밖의 선배 지우 제씨께서는 나의 후천적 고질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 믿으며 기억의 실마리를 더 들어 보기로 하겠다.

× × ×

참으로 장황한 서두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포 대령이 목로주점에서 얼큰히 취해서 털어놓는 인생론, 세계관, 역사관 등 그칠 줄 모르는 '토론'에 비하면 오히려 간명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은 이미 망해 들어가고 있단 말야. 저 썩어가는 고깃덩이, 노망한 영도자의 꼴을 보라. 저 급조 재산을 보라. 저것들이 오십만 국군을 다스리는 현역장성 아무개라니 배꼽이 간지럽지 않겠나? 저 양키 시장은 또 뭐야? 도대체 식민지라는 게 따로 있나? 바로 이 코리아가..... 이 자식아 술을 들어라. 멍청하니 서 있지 말구!
포 대령의 경세지론은 술잔과 비례하여 더욱 고조되어 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의 입에서는 어려운 철학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독일어 발음이 튀겼다. 휴전이 되고 서울 환도로 세상이 어수선한 무렵의 대구 향촌동 뒷거리에서 였다.
포 대령이 자주 들던 막걸리집은 백진 다방 맞은편에 있었고 그 집 간판도 대포집이었다. 포 대령은 어둡사리가 낀 대포집에 앉아서 대포를 기울이며 대포를 쏘았다. 술이 거나할 때마다 으레 그가 한마디씩 하는 인용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대통령.-
포 대령 자신의 주석에 의하면 그가 한참 일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오더니 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오더란 것이다. 사병들의 다리는 거의 동상이 되고 보급이 잘 안 되어 주먹밥 구경을 하기 어려운 때였다고 한다.
-그 노인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야. 그리고는 하늘에서 보내주는 위로와 격려의 육성을 몇 마디 남겨 놓고는 십 분도 못되어 또 휭 날아가 버렸지. 사병들은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 산등성이 저쪽으로 잠자리처럼 날아가 버린 그의 모습을 맥없이 쳐다보고만 있었지 뭐야.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통령"을 발설할 때는 언제나 그 어조에는 노여움과 희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유독 이승만 노인 얘기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뇌까렸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잘 알 수가 없다. 아니 그뿐 아니라 포 대령 자신에 대해서도 실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나는 이미 고인이 된 포 대령의 연령, 출생지, 군대 경력, 가족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물어본 일이 없다. 다만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이북에서 김일성대학의 강사로 있다가 남하했다는 것, 6·25 때는 1선 포병 지휘관으로서 용명을 떨쳤다는 것. 그의 계급 이 대령이라는 것 포 대령은 그의 별명인 동시에 애칭이고 본명은 이기련이라는 것 정도였다.
포 대령이란 닉네임의 유래에 대해서도 캐어 본 적은 없으나 아마도 그가 포병 장교였다는 것과 대포술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주가였다는 점에서 천구들이 붙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튼 나는 포 대령을 직접 만나뵈옵기 전에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인 구상씨가 대구의 일간 Y일보에 그에 관한 짤막한 글을 실렸기 때문이었다. 내용은 군인 R대령이 시장에서 두부랑 파랑 북어 같은 찬거리를 사서 자전거 뒤에 싣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였다. 그 당시 M신문 문화부에서 일하던 나는 그 청렴하고 청빈한 R대령이란 누구인가 싶어 알아본 결과 R대령이 바로 포 대령이라는 사실을 전문했던 것이다.
자세한 기억은 못 되나 포 대령을 처음 만난 것은 휴전 직후 대구 동성로에 있는 속칭 감나무 집이란 주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집은 주로 피난 문인이 모여들던 곳으로 당시 공군종군작가원장인 마해송 선생을 필두로 조지훈·최인욱·최정희·장덕조·구상·박귀송·왕학주·홍영의·최태응·박훈산·김종문제(諸) 씨 그리고 대구 문인 신동집·태양균·김종길제씨, 거기에 문인들과 가까이 지내던 대구 언론인 등이 무상출입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포대령의 첫인상은 과묵호담, 바로 그것이었고 술주정도 처음엔 구경하지 못했다. 그 후 구상 시인과 자리를 함께한 자리에서 포 대령은 두주급의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면서 고성방가는 그칠 줄 몰랐다.
포 대령과 술자리를 함께하는 도수가 부쩍 늘어감에 따라 나는 말 없는 가운데 차츰 그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그의 의심 없는 강직한 성품과 깊고 넓은 세계관의 시야, 물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학자적 기질, 불의에 굴하지 않는 맹렬한 정의감, 수하의 젊은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는 소박한 동심이 모두 놀라움과 외경을 불러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광 또한 남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전쟁 때 대포를 끌고 후퇴하던 당시의 무용담 일장이 끝나면 으레 2차 3차로 주당 청년을 거느리며 이 골목 저 골목 목로집을 찾아 헤매며 통금시간이 지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항상 그의 포로가 되었다. 서툴게 도중에서 자리를 뜰라치면 즉석에서 대갈 일성 만류를 당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모두 머리끝까지 술기가 돈 후 거리로 나섰다. 대구의 중앙통이 비좁다고 갈지(之)자 걸음의 도당이 휩쓰는 꼴이란 남 보기에 좋은 장면은 못 되었을 것이지만 술 취한 본인들은 비길 데 없는 무아지경이었다. 삼삼오오로 떼지어가던 주붕들은 어느새 하나둘씩 앞서가고 포 대령과 필자 두 사람만이 뒤에 쳐졌다. 한국은행 십자로에 이르렀을 때 포 대령은 갑자기 나를 부둥켜 안았다. 그것은 굉장한 완력이었다. 나는 숨이 꽉 막힐듯해서 몸을 비비 꼬았으나 그의 반석 같은 품 안에 서는 도저히 헤어날 재간이 없었다. 그는 나를 껴안은 채, 길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데굴데굴 뒹굴기 시작했다. 1회전할 때마다 하늘에 총총한 별들이 번갯불처럼 망막을 스쳤다. 노상을 달리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시꺼먼 두 그림자를 용케도 피해나가는 것을 짐작할 만큼 한꺼번에 술이 깨버린 나는 목 메인 소리로 SOS를 외쳤다. 그러나 그는 들은 채 않고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 발음의 단편들인지도 모른다. -지구 덩어리다 지구! 껍데기! 핥아라! 마구 문질러라! 지구야! 우린 여기 있다! 존재한다! 핫핫하... 따뜻하다.
그 다음날 저녁 포 대령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러나 어젯밤에 있었던 기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눈치였다. 그날 밤 포 대령은 나에게 군대 양말 한 켤레를 주었다. 포 대령은 은 우리들에게 물건을 기꺼이 주는 것을 일종의 취미(?)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은 N군 S형 P씨 등 내가 알기에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대개는 입다 남은 군대 내의 셔츠 팬티 장갑 등속이었으니 어지간히 줄 것도 없었던 모양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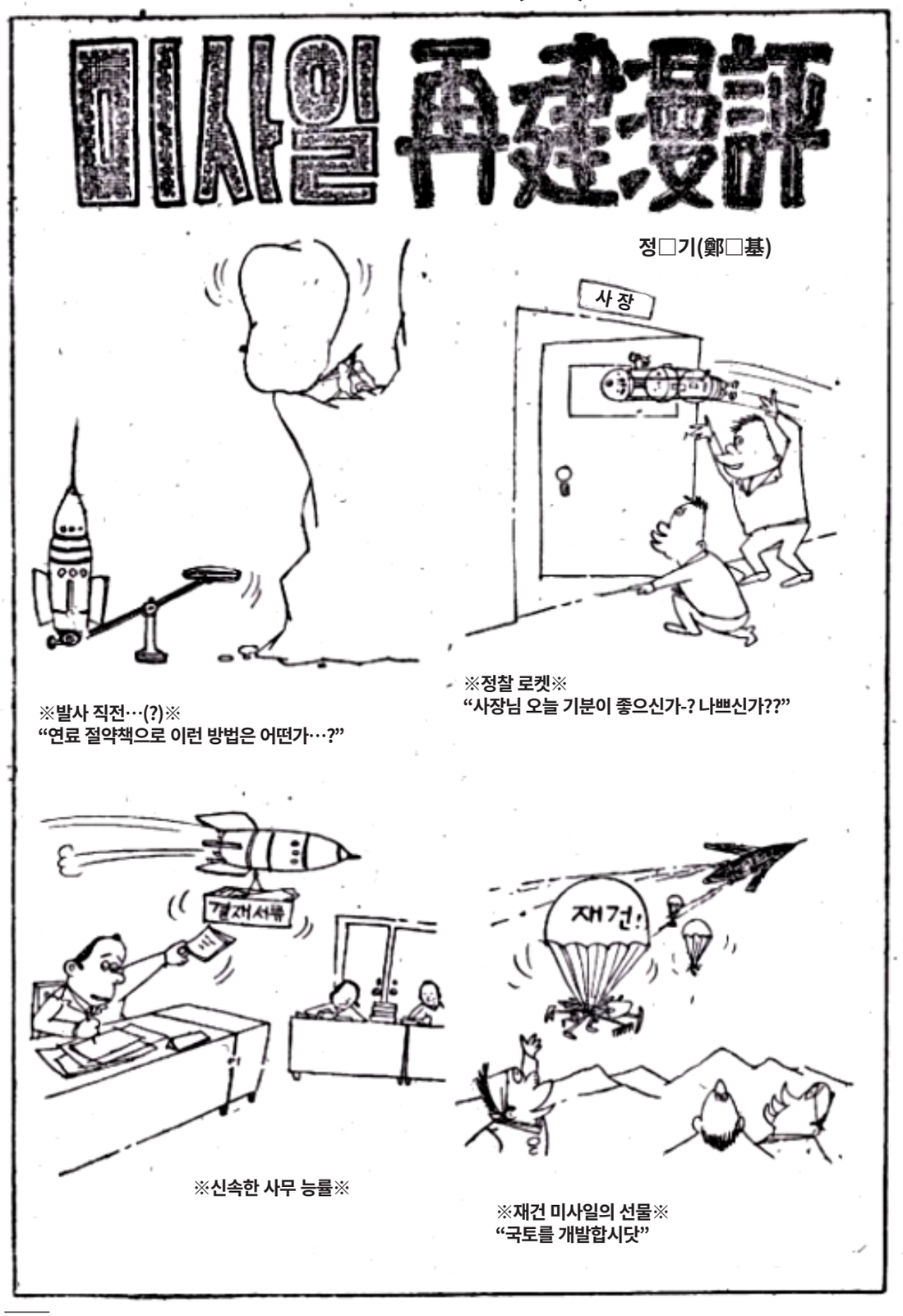
우리 주당의 영도자 포 대령이 1선 지구로 전위되어간 것은 아마도 1958년도인가 생각된다. 지금은 역시 고인이 된 양화가 이중섭(李仲燮)씨가 대구성모병원에서 앓고 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병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선하다.
그 후 포 대령이 제대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줄곧 서울서 낭인 생활을 계속했다 한다. 재작년 여름 내가 때늦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명동 거리에서 그를 만났다. 초라한 양복에 고무신을 끌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지사인 듯한 데가 있어 더욱 회구의 정이 깃들었다.
포 대령의 주량도 여전하다. 그 포 대령 - 이기련 예비역 대령이 뜻밖에도 서울 노상에서 객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주간「새나라」사 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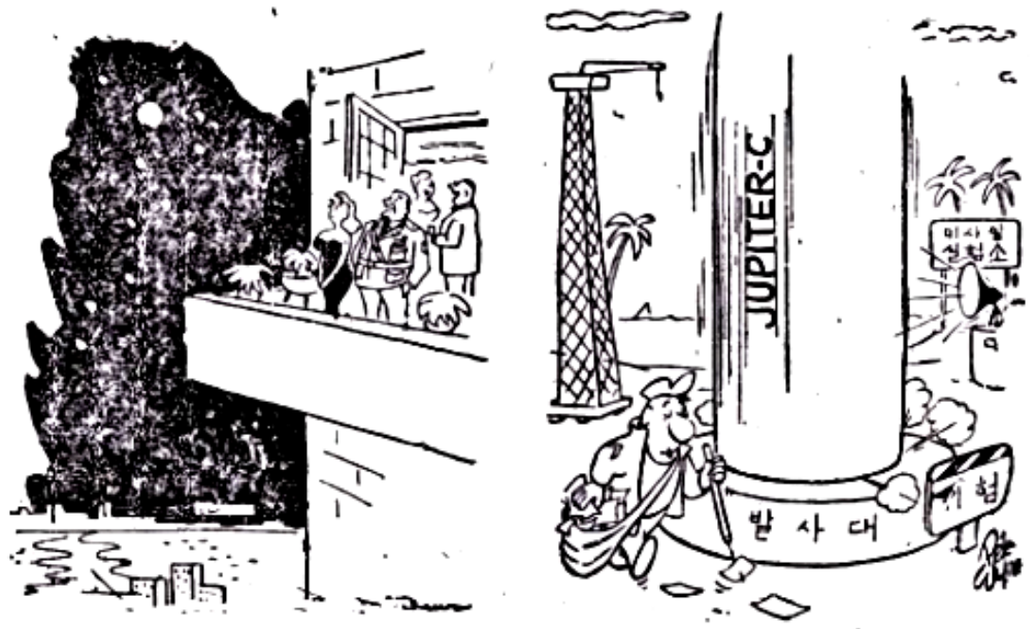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공자를 철학자라고 부르는 데는 별로 이론이 없다. 또 오늘날 영국의 G.E. Moore나 Ludwig Wittg enstein을 철학자라고 부르는데도 반대할 사람은 적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무어 뷔트겐슈타인이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철학자는 아니며 무어나 비트겐슈타인은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학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이 근평적으로 다르며 그들이 사용한 방법도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목표로 삼은 것은 인생에 있어 가치의 왕국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첫째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였다. 한편 비트겐슈타인이나 무어가 철학의 목표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의 근본을 묻고 그 흔들림 없는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이들에 있어서 첫째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냐에 있다.

-김태길(金泰吉)-

미사일 재건 만평(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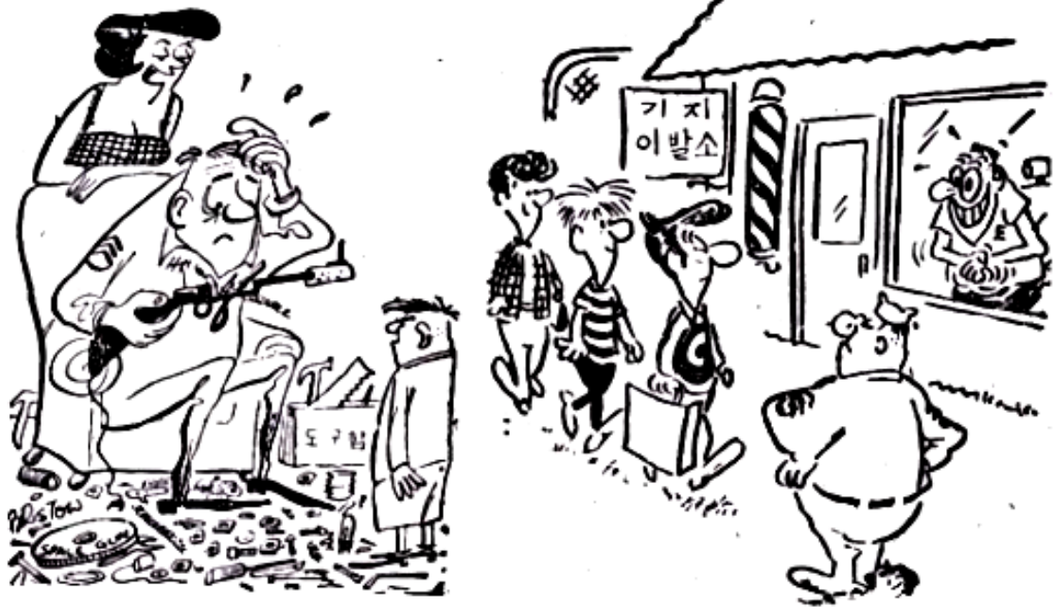


해외 걸작 만화



'당신은 달을 보면 센치해지겠지? 그러나 우리들 로켓 전문가에게는 밥통에 관한 문제야!'

'10초, 9초, 8초, 7초, 6. 잠깐! 발사 중지!'



'그래도 아버지가 무장 기술자란 말이죠?'

'이크! 수지 맞았다!' ~신병 입대일~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④

자유의 원리

김낙봉



자유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이것은 미국의 패트릭·헨리가 부르짖은 말이다. 존 스튜어드·밀은 그의 「자유론」가운데서 '인간에게 있어 의식 다음으로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철인 스피노자는 '정치의 참된 목적은 자유의 실현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고래로 민주주 의적인 사상가나 정치가 또는 압박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인 것 같은 인식을 공언하여 왔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자유의 참된 의의를 파악하여 그것의 남용에서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라면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면에서는 자기를 스스로가 지배하는 상태이며 소극적으로는 다른 것으로부터 강제 또는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정의다. 자유의 내재적 의의는 의지 또는 폭력으로서가 아니고 이성의 지배에 복종하는 데 있다. 이성이 자타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들은 참된 자유일 수 있는 것이다. 의지가 이성의 실천 용구로서 사용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성의 지배야말로 자유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제쳐 놓고는 참된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외적 또는 광의의 사회적 자유와 구별되는 내적 자유에 관해서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고 자기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될 때 우리들은 내적인 정신적 자유를 갖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기를 스스로가 지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이 뜻을 캐내자면 이와는 정반대의 자기 상실 또는 자기의 노예화라고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타인의 언설 명령 또는 사회 관습 등에 그저 맹목적으로 무자각하게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매사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퇴를 결정할 수 없는 즉 사고력을 타인에게 맡겨 놓은 것 같은 사람도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나 본능, 충동, 욕망 또는 감정에 반사적으로 덮어 놓고 행동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맹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소유욕, 권력욕 또는 명예욕에 지배되는 사람도 이것 또한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흔히 의지라고 불리우는 욕망이나 감정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똑같이 타인의 언설이나 명령 또는 사회의 관습에 따르는 경우라도 복종의 내용 그 자체가 자신이 판단해서 합리적이며, 선한 것이며, 당연히 복종해야 될 것이라고 스스로가 납득해서 복종할 때는 그 사람은 자기를 지배한, 혹은 자기를 소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복종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의 복종은 결국 자기의 이성이나 양심에의 복종임이 틀림없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인 이상 수시로 여러 가지 본능, 충동, 욕망 또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다. 즉 금전욕, 권세욕, 육체적 욕망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모욕을 당하면 분개도 하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이를 욕구나 감정을 이성의 판단력 또는 양심을 행사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선에서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자유를 갖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즉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과의 구별은 명백한 것이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란 항상 욕망이나 감정에 지배되어 이성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만 그것의 도구로서 쓰는 사람이다. 즉 그 사람은 의지 우위관의 실천자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자기를 스스로가 지배하는 사람은 이성 우위관의 실천자인 것이다. 자기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의 즉 다시 말해서 의욕의 노예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성의 노예라는 말이 없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우리들의 내심의 자유는 이성 우위관의 실천에 의해서 이성의 규범력을 행사해서 감정적 욕구를 지도하는 것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내심적 자유는 때로 양심의 자유, 이성의 자유, 또는 도덕적 자유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은 특히 내적 자유에 관해서 논술한 것인데 모름지기 자유는 내적 외적을 불문하고 다 이성의 지배에 복종하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적 자유 즉 이성 또는, 양심의 자유가 일체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고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일체의 외적 자유는 요컨대 양심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자는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다. 즉, 외적 자유의 보장이 없는 우리는 내적 자유를 함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 자유를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엄격히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풍부한 내적 자유의 함양을 게을리하는 국민에게는 자유의 남용에 빠지게 된다. 자유권이란 윤리적으로는 인간이 이성 또는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에 관하여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안 될 제2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불리는 외적 자유는 개인적, 시민적 자유이거나 정치적, 경제적 자유이거나 그 자신에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되느냐 하면 인생의 목적인 도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자유란 다시 말하면 인격 완성의 도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유이며, 인격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이다. 단지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적 여러 기능을 행사하고 발휘하기 위한 자유이다. 만약 나에게 선악을 취사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인간다운 도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적 자유의 실천은 인격완성의 도덕 생활의 모습이며, 외적 자유는 이것을 위한 불가결의 도구이며, 수단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부르는 외적 또는 사회적 자유의 의의와 한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유에 관하여 다음으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자유는 본래 개인의 인격에 귀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참된 자유 향수의 단위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나 단체 간에 있어서 평등이 운위되는 것처럼 단체의 자치권 또는 독립권을 의미하는 국가의 자유라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라던가 노동조합의 자유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구의 차용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우리들이 소속한 단체가 자유라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행동에 있어서 또는 자기 주위의 타인이나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이상 우리들에게는 자기 실현의 자유는 존재치 않는 것이다. 자유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경우처럼 흔히 단체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확보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자유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며 개인을 떠나서는 자유는 의의가 없다고 하는 진리에 착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국가나 그밖에 단체가 자유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인에 대하여 압제적이어서 각 개인에게 자유가 없는 한 그 단체의 자유는 자유로서의 참된 의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단체의 자유는 각 개인의 종국적인 자유를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그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자유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희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자유의 본질에 관련시켜 끝으로 강조하여야 할 점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양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자유라는 사실이다. 철인 에머슨이 '우리는 각인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하는 가장 큰 자유를 허용하는 상태를 요구한다.'라고 말한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것으로서 평등의 입장을 떠나서 참된 자유는 있을 수 없다. 만약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다른 사람이 향유할 수 없는 자유를 인정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난다. 어느 개인 또는 계급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특권인 것이다. 타인의 자유와 양립하지 않는 자유는 무질서와 혼란의 자유이지 참된 자유는 아니다. 나의 자유가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편화되고 사회 질서와 양립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는 다른 나의 자유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한정을 부여하는 것이 법의 임무다. 여기에 있어서 자유와 법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들이 사회인으로서 향수하는 일체의 외적 자유 (광의의 사회적 자유)를 각 개인에게 저마다 똑같이 보존하는 기본 조건은 각인에게

같은 억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억제가 없다면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부자유할 것이다. 가령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받은 자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은 그가 수시로 용인하는 정도와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향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종해야 될 법이 있어서만 비로소 성립된다. 법은 나를 억제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도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을 타인의 전단적 지배나 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법은 각인에게 자유를 권리로서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문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각인이 향수해야 될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참된 자유는 법에 복종하는 데 있다. 우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자유는 있어도 법을 초월한 자유는 없다. 법을 유린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다.

법은 이와 같이 사회적 자유를 보존하는데 불가한 것인데 법이 자유의 보장으로 되자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째 요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사람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만 그밖의 것으로는 결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 지배, 법 우월 또는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 속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관념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역사적으로는 법치주의에의 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법의 공평한 적용을 꾀하고 법치주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재판권의 독립으로서 누구라도 용이하게 호송하고 변호할 수 있는 더욱 간이한 재판 수속 같은 요구로 되어 나타난 것도 또한 필연적 사실이라 할 것이다.

법이 자유의 보장으로 되는 둘째 요건은 법 그 자체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각인의 자유를 구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이 그것에 복종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지배-지배의 주체와 객체와의 일치-라는 의미에 있어서 자유의 현현으로 될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에의 투쟁이 일면에 있어서 국민 자신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한 입법 참가권의 요구로 되고 다수결 및 정치적 평등원칙의 확립으로서 나타난 것도 또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제8항에 '법은 일반 국민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들 대표자에 의해서 법제실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가능한 한 다수의 의지의 구현일 것을 요하지만 그 의지는 어디까지나 이성의 표현인 합리적 의지가 아니면 안 된다. 다수의 의지가 그저 단지 다수의 의욕 또는 힘을 표시하는 데 끝이라면 그것은 법으로서의 형식은 갖추었다 할지라도 법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의 구현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상 말한 자유의 여러 특질은 자유의 개념이 개인의 무한 가치관이나 나아가서는 이성 및 동정성 우위관의 논리적 귀결임을 안다면 더욱 잘 수배될 것이다.

개인의 무한가치관이란 모름지기 각인은 타인의 그와 똑같은 권리와 양립하는 한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인 도덕 생활을 추구하는 정대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생 목적의 달성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성 또는 양심을 자유로이 행사하고 표현하는 상태가 약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및 신앙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소위 기본적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절대 요건이다. 이러한 자유가 없이는 인격을 완성시키고 인간다운 도덕 생활을 영위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권은 인격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것의 억압은 인격의 침해로 생각되는 것이다. 인격의 고유 가치가 인정된다면 이들 자유권은 인격에 고유한 당연한 권리 즉 양도될 수 없는 자연권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격의 존엄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여러 권리도 또한 필연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갖는 신성하고도 불가침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격의 고유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들 권리를 불가침의 것으로서 보장할 아무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자유의 개념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의 무한 가치관에서 발전하였고 또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인격의 존엄성이 부정되고 개인이 다만 수단으로서 취급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정치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관념은 전혀 없고 그것은 당연해 부인되는 것이다.

자유 개념은 이성 및 동정성(同情性)우위관에서 직접 연역할 수 있다. 즉 이성우위관이 의미하는 선량한 생활이란 행위가 충분히 발달된 이성 또는 양심에 의해서 항상 지배되는 생활을 말한다. 따라서 그 가운데는 모든 개인이 이성을

자유로 행사하며 완전히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당연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유는 이성의 작용이 아니면 이성의 작용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한 것처럼 이성 우위의 생활은 이성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는 실천할 수 없으며 양자는 실천적 면에 있어서는 일체화된 생활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즉 동정성우위의 기독교도의 생활도 이성의 자유로운 행사와 완전한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 실천할 수 없고 따라서 동정성우위관 속에도 당연히 자유의 개념이 함축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고래로 무엇 때문에 불가양 불가침의 자연권으로서 되어 왔는가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의 본질이 이성의 표현에 있는 소이도 납득되었을 것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강제 및 그 극단적 형태인 폭력이다. 자유가 이성 및 동정성의 표현인 것처럼 강제 및 폭력은 의지의 표현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적 자유 사회의 근본정신이 사랑 또는 관용에 있으며 치자와 피치자와의 관계가 다 같이 이성의 표현인 설득과 승락과의 관계에 있는 소이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독재 전제 사회의 근본정신이 증오와 불관용의 절대주의에서의 치자와 피치자와의 관계가 의지의 표현인 명령 및 강제와 절대복종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앞에서 평등의 추구는 인간성의 표현이며 따라서 이것을 부정하는 특권적 질서는 힘으로서 강제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체제임을 말했는데 자유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자유의 욕구도 다 같이 인간 자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인간은 도저히 행복하게 될 수는 없다. 자유 억압의 사회제도는 세계 역사가 이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성을 억압하는 강제력 또는 폭력으로서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모두가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사회다.

자유와 책임

자유 있는 곳에 반드시 이에 상응한 책임이 부수한다. 또는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것이다. 이런 말은 흔히 듣는 말이다. 자유는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모두 권리로서 법률상으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자유에는 책임이,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부수하느냐 하면 그것은 요컨대 자유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우선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들려줄 수 있는 권리뿐만은 아니고 타인의 의견을 들을 의무도 포함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 할 것을 거부하고 누구도 타인의 의견을 들을 아량이 없다고 한다면 앞에 말한 권리는 성립될 턱이 없다. 즉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들려주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같은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성립된다. 다른 사람의 같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같은 자기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언론의 자유는 결국 자타의 복지 증진에 자(資)하기 위해서 의견의 교환으로 진리 또는 진리로 생각되는 것을 발견코자 하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휘시키는 곳에 언론 자유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소위 악덕 신문기자나 잡지기자들이 종종 저지르는 것처럼 이것을 남용하여 공갈이나 협박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폐해는 직접 피해자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횡행하면 올바른 세론을 하고 책임 있는 다른 언론기관의 정론까지도 불신의 길로 인도하여 드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자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이상은 다만 언론 자유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나 다른 자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자기 보존적인 자유는 당연히 책임에 의해서 한정된다. 무책임한 자유는 자기모순, 자기 파괴적, 무질서 혼란 허위의 자유다.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에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 즉 사회 질서와 양립하도록 행사하는 책임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는 보편화되지 않으면 진실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우리들이 향유하는 자유는 이러한 보편적이며 사회인으로서의 다른 개인의 그것과 공통되는 자유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자유의 상호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 사회 질서는 문란해지고 자유는 필연적으로 사멸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번 책임은 인생의 목적인 도덕 생활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선의 실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책임이다. 자유는 자유를 절멸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수단으로 해서 자유를 보다 충실하게 보다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공공복지의 증진이며 선의 실현이며 이것으로써 각인의 도덕 생활의 발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책임을 다하는 곳에 자유 보존의 법칙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무시하고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의 남용이다. 자유를 남용해 나간다면 자유는 필연적으로 파괴되고 사멸하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자유와 책임의 불가분한 관계를 대략 더듬어 보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를 옹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당연히 자유의 남용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비방이나 외설한 언사나 허위 보도를 취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안을 해치는 결사나 파업권은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의 남용자가 존재하는 이와 같은 억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자유 보존의 법칙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방법으로 결정된 다수의 의지를 표시하는 법으로서 부과되는 한 이러한 억제는 자유의 증진은 될지언정 제한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법으로 억제되는 것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니고 자유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자유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참된 자유는 오히려 증대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임무는 자유의 남용을 증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자유의 존속과 증진과의 조건을 발견해 나가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자유가 증진적으로 유지되는 한 민주주의 사회는 보다 참되고 선량한 사회로 또는 보다 정의의 사회로 점진적이지만 접근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값은 그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자유에 대한 전술한 책임 관념의 증감에 비례해서 자유도 또한 증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및 각 단체 사이에 책임 관념이 최대한으로 증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있는 전부 또는 대부분의 법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정부의 기능도 거의 없어도 될 만큼 축소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태가 아마 마르크스가 말하는 소위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어 국가가 고사하는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접근하는 확실한 방법은 사회 각 구성의 자유 또는 공공복지에 대한 책임 관념의 증대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산업의 공유화는 하등 책임 관념의 증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하더라도 책임 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한 자유는 증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유화된 산업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독점 산업으로 되어 버리고 독점하는 이기적 남용으로서 그들이 사회 일반을 착취하는 것이 고작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오류는 그저 산업을 국유화하기만 하면 그대로 자유가 증진된다고만 생각했지 소위 사회주의 성공에 불가결한 사회 도덕의 근본적 변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에 있지 않은가 본다. 산업 국유화의 기구 그 자체 속에는 사람들의 책임 관념 증대를 보장하는 하등의 묘약도 없는 것이다. 공공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 관념이 증대하지 않는 단순한 산업의 국유화는 자유나 사회 정의의 아무 보장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관계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법칙은 개인이 사회에 많이 흡수되어 사회화된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더 한 층 엄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아직도 산업혁명을 경험치 못하고 기계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 반면에 책임이나 의무를 그다지문제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한 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는 대소는 있을지라도 전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철도 종업원의 무책임한 파업으로 받는 타격은 다만 그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모든 산업이나 생활이 크거나 적거나 타격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화 기계화로 우리들 각인의 생활이 사회화되고 상호의존이나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각인에게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히 사회 전체에 대한 각 개인의 책임이나 의무관이 증대하는 데서만 자유는 보다 잘 확보되는 것이다. 17, 18세기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만을 문제로 삼으면 족했을지도 모르나 우리들은 오늘날 책임이나 의무라는 면에서 자유나 권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나 권리가 보지될 수 없는 사회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현(李東賢) 역술

공산주의(共産主義) 하의 평등(平等)



1. 공산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등하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참말인가?

결코 이론가나 이론가의 탁상에서 고찰된 결과로 된 것이 아니고 대중의 혁명적 창조물이라고 할 소비에트 연방 건설의 각 단계에서 이미 획득한 투쟁과 건설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소비에트 헌법에 의하면 모든 시민의 지위는 평등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평등의 원리는 소비에트 러시아나 다른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나 실천되지 않고 있다.

평등의 원리가 실천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련에서는 경제적 차등에 의한 계급 구분이 날카롭게 세분되고 있다. 예컨대 공산주의 사회에서 높은 급료를 받는 분자들과 일반적인 노동자 농민 사이의 수입의 차등은 적어도 개인 기업하의 어떤 사회보다도 큰 것이다.

1920년대에는 어느 정도 소비에트 지도자들이 평등주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 것 같다. 처음 관공리들과 근노자들은 숙련, 비숙련을 막론하고 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과 봉급 구조가 생산 활동에 자극을 결하고 있음이 분명해지자 1931년 스탈린은 이러한 임금의 평균화를 폐기하고 노동성적에 따라 임금 액수에 차이를 둠으로써 생산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 규정을 만들었다.

1930년대 이래 높은 임금노동자와 낮은 임금노동자 사이에는 점점 간격이 넓어졌고 이들과 관료 계급 사이의 그것에도 간격이 늘어만 갔다.

따라서 이러한 간격은 각 개인이 수입 수준에만 생 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지배 집단이나 계층에 의하여 향락되는 사회적 은전이나 특권에 있어서도 대단한 차이를 노정하게 되었다.

2. 소비에트 러시아에 있어서는 각 계층의 수입은 어떠한가?

적어도 소련 사회에는 다섯 개의 뚜렷한 계급 또는 계층이 존재한다.

최상부를 이루고 있는 계층은 소련의 지배 계급이다. 정부와 당의 고위간부 및 최상부의 군 장교로 이루어지는 이 계층의 연간 수입은 50만 루불 또는 그 이상이다. 이에 속하는 계층은 수백 가족에 불과하다.

그 다음 둘째 계급은 중요 부서의 관리와 장교, 지도적 예술가, 작가, 과학자, 기타 얼마간의 지식층 그리고 대국가 기업체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되는 약 5백만 명으로 이들의 연간 수입은 10만 내지 20만 루불이다.

셋째 계급은 당의 하급 직원, 기사, 전문 기술자, 집단농장과 소규모 공장의 관리인 그리고 약간의 스타하노프 또는 높은 능률의 노동자로서 이들은 평균 2만 루불의 연간 수입을 갖는다.

이상 세 계급은 대체로 소련의 3대 고위 계급을 형성하는데 이에 속하는 인원 총수는 소련 인구의 약 10% 미만이다.

넷째 계급은 소위 노동자·농민 대중으로 소련인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만일 이들이 한 해 동안에 8천 루불을 벌 수 있다면 행운을 잡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수입은 성인 2명과 같은 수의 어린이를 가진 도회지의 일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금액이다.)

게다가 보통 반 숙련노동자는 월 6백 내지 7백 루불을 받으며 비 숙련인 경우에는 이의 반액밖에 못 받는 것이다. 이 사회의 맨 밑바닥을 형성하는 제5계급은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죄수들이다. 이들은 수입은커녕 아무런 사회적 은전도 입을 수 없다.

3.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의 계층 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산당에 의해서다. 공산당만이 각 개인에게 은전을 주거나 특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삭탈할 수 있다. 수입의 차이에 따르는 계급의 분화도 공산당의 전권에 의한 1차적 계급 조작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또 이를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다.

4. 공산주의 국가에는 보시나 자선이 존재하는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보시나 자선을 퇴폐한 자본주의

사회의 유속이라고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사회에는 어디나 걸인들이 유랑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5. 공산주의 지배하의 국가들에게도 여론이 존재하는가?

소련 정부의 기관의 볼셰비키는 언젠가 말하기를

'여론은 소비에트 시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사회생활의 법칙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법에 의해서 준비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에서 여론은 단지 공산당의 허가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고 공산당의 지도하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나 행정당국자에게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상의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소련 사회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비록 그들이 입으로 크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소련에도 여론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러한 국민의 숨은 의견(여론)들은 공산주의 지배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지하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0메가톤의 핵폭발로서 전 세계 인류의 분노를 사서 일으킨 소련의 핵폭발 재개를 소련이 당초 소련 국민에게 비밀에 부친 것도 이러한 여론의 반동을 두려워한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국민들의 감정이야 어떻든 그 의사를 무시하고 모스코바의 노선을 충실이 따르고 있는 한 공산 지배자들과 국민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이론은 공산주의의 밑에서도 항상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소련 지도자에 의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민감하게 나타난 바 있다. 정직한 여론이 이들 위성 국가의 작가, 학생 그리고 그 공업 노동자들에 의해서 표현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곧 공적 정책의 한계를 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1956년 10월 폴란드나 헝가리의 극적인 봉기에 앞서 발생한 언론 자유의 파도는 심각한 것이었고, 특히 폴란드에서 시작된 신문과 폴란드 공산당의 반소 감정의 폭발은 당의 동요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국가 경제에 대한 비판으로 강화된 것이었다.

또한 정부의 교체와 생활 개선, 그리고 민주주의적 자유의 실행 등을 요구하는 헝가리 의거는 광범한 학생들의 시위에 의해 촉발되었던 것이었다.

결국 혁명적 운동이 하나의 힘으로 집결되었을 때 그것은 곧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라는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다.

당시 모스코바로 하여금 혁명을 진압함에 있어서 야만적 무력수단에 호소하는 스탈린 주의적 방법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은 이러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6. 소비에트 연방에 있어서 다른 민족성을 가진 국민들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소비에트 헌법은 말하기를

'소비에트 연방 인민의 권리 평등은 민족 인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불변의 법칙임. 인민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소속으로 하여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특권의 설정도 또는 마찬가지로 인종적 내지 민족적 배타성, 증오, 경모의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됨.'(소련 헌법 제123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특별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연방에 있어서의 평등한 인민의 연방은 1920년 초기 이래로 엄격하게 억압되어 왔다.

볼가강 하류 지역과 중앙 아시아에 있는 수백만 불교도와 회수도는 박해를 받아왔고 그들의 민족적 전통은 파괴되어 왔다. 발틱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고 있다.

한편 모스코바는 러시아인-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주민-에 대한 민족적 우월성을 인정하여왔다.

모스코바의 신문 이즈베스치아는 1946년 3월 16일 언급하기를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인민은 대 애국전쟁(2차 세계 대전)에서 대러시아인에 의하여 수행된 결정적 역할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러시아인이 아닌 여타의 15개 인민에게 본받아야 할 모형으로서 추장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령 내에 있는 모든 비러시아민족의 고유한 토착 문화는 대러시아민족의 모형에 체계적으로 고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연방 구성 공화국들 가운데서 가장 넓고 또한 가장 인구가 조밀한 곳이다.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그의 수도로 하고 있는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련방의 가장 우세한 연방 구성원이다. 이러한 우세한 공화국이 있고 또 이에 각 공화국의 역사와 문화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개개의 민족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강제되는 한 민족 간의 평등의 원칙도 문자상의 장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세계신문(世界新聞) 이야기⑤

호주편

김기점(金基漸)



호주에는 50개의 일간지와 약 500에 가까운 비일간지가 있는데, 약 4백만 부에 가까운 발행 부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보다도 높은 신문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전국지가 없으며 또 이 나라 신문은 <런던>의 신문보다도 많은 영국 황실 관계의 기사를 게재하는 영 본토의 뉴스를 다량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지면의 약 60%가 광고로 메꾸어진다는 것 등의 특징을 띄우고 있다.

신문의 보급률은 그 나라 국민 문화 수준의 척도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맹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문의 구매자는 많은 것이다. 보급 역시 이에 따라 많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밖에 국민 문화 수준의 척도로서 다른 영역과 분야의 것도 있으며 또 한 국민 경제가 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스·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호주는 영토에 비해 인구는 불과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약 1천만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호주에는 일간보가 50개나 되고, 5백에 가까운 기타의 비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총 발행 부수가 약 4백만 부에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나라의 신문 보급률은 미국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개의 일간지 가운데 15개 지는 각 주의 주 정부 소재지인 여섯 대도시 즉 시드니, 멜버른, 프리스벤, 아드레드, 파쓰 그리고 허버트 등지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이의 발행 부수가 각기 10만부 이상이고, 개중에는 50만 부를 넘는 것도 있다.

이 15지의 발행 부수만 치더라도 총합 3백만 부를 돌파하고 있어 호주의 신문 발행 수의 거의 전부가 여섯 대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다시피 한다.

이밖에 35개는 지방 소도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지이며 이 지방지 가운데 제일 발행 부수가 많은 것이라야 2만 5천~3만 부정도이고 적은 것으로서는 불과 수천 부에 지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기타 비일간지의 대부분은 주 1~2회 발행 정도의 소지방지로서 발행 부수를 본다면 수백 부에서 수천 부를 헤아릴 정도의 작은 신문인 것이다.

다음으로 호주신문의 일간지는 조석간 주6회 발간되고 있고, 일요일은 휴간함으로써 대도시에 있어서는 일요 신문이 대단히 발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요 신문은 7개지 정도이고 이의 총 발행 부수는 150만 부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나라의 신문은 대부분이 대도시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유력한 일간지로서는 메트로폴리탄 데일리와 지방 소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또는 비일간의 푸로빈샬·페이퍼 그리고 썬데이 뉴스 페이퍼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주요 신문과 신문사를 들어 본다면 대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력한 일간지의 발행자들로서, 호주 신문 발행자 협회를 조직하고 있었으며, 이 협회가 1948년에는 내부 분열로써 별도로 호주 신문 평의회가 생겼다.

그러나 1958년에는 다시금 양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현재에는 다음의 10개사가 호주 신문 평의회 하에 가입되고 있다.

이 10개사가 발행하는 신문과 그 발행 부수는 별표와 같다.

그러면 호주의 신문에 대한 특색을 들어 보건대, 이 나라에는 전국지가 없다는 것이고, 호주의 정치의 중심은 연방 정부의 소재지인 수도 캔버라나 이 캔버라 수도에는 불과 5만 인구의 신흥지로, 그곳에는 일간지인 캔버라 타임스와 주간지인 커몬웰스·오브·오스트라리아·가젯트의 소신문이 발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유력지라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주의 중심 대도시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각주 대도시간의 거리가 수백 수천 리이나 떨어져 있는 탓으로 각 도시의 신문은 각기 도시나 각주지를 분포 세력 범위로서 되어 있을 뿐이다.

이럼으로써 유력지라 할지라도 대지방지로서의 면모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 유력지 퍼스의 웨스트·오스트라리안, 멜버른의

헤럴드·에이지, 시드니의 모닝 헤럴드, 프리스벤의 크리아·메일 등지는 외전도 잘 싣고 있으며, 외전 가운데도 제일 많은 것은 영 본국의 뉴스인 것이다.
원래 호주인의 90%는 영국계이며 지금에 있어서도 영 본국을 호주 사람들은 홈(Home)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일례로서 T.V 프로의 마지막 장면에는 영국의 여왕이 화면에 나오고 있으며, 영국 국가가 연주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신문은 영 런던의 신문보다도 많은 영국 황실 관계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영 본국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는 못하여졌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두터워졌으며, 아시아 지역의 관심도 높아짐으로써 국제 기사의 균형이 다소 바뀌어져 다각도로 변화가 풍부한 내용의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들인 것이다.
신문 체제를 본다면 이 나라 신문의 일간지의 반 정도는 모두가 다부로이드판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신문사 간의 경쟁인 것이다.
각 도시 가운데서 가장 신문사 간의 경쟁이 심한 것이 시드니시인 것이다.
이곳에는 1831년에 발간되어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는 신문으로서 가장 긴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모닝 헤럴드를 위시하여
「데일리·테레그래프」, 「데일리·밀리」, 「데일리·싼·헤럴드」와 조간이 3개지 석간이 3개지, 이밖에도 일요 신문이 3개지가 서로 경쟁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모두가 신문 출판 사업에 대단한 기세로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모닝 헤럴드」사, 「데일리·테레그라」사, 「미라프」사 등 3개사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에까지 손을 뻗치고 사운을 걸고, 경합하고 있는 것은 볼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곳에서는 1개 신문사에서 조간과 석간에 발행하고 있는 멜버른의 「헤럴드」사 같은 데서는 조석간 별개의 편집 진영을 갖추고 있으며 상호 경쟁적으로 각기 별개의 편집국을 두고 취재 상의 작전도 상호간에 있어 누설되지 않게까지 심뇌를 쓰고 있다든가 같은 사건의 진실이라도 조간과 석간에서 전혀 다른 각도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절대로 동일한 사진은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흥미 있는 편집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조석간을 경영과 인쇄가 동일한 신문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이 나라의 신문계를 본다면 신문사 간의 경쟁은 심하나 우리 한국의 신문과 같이 그리 판매 보급에 있어 간혹 억지를 쓸 정도의 경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나라 신문사에서는 특정한 자기사의 보급소나 보급원은 갖고 있지 않으며 각처에 각사의 신문을 똑같이 취급하는 판매소가 있어 독자가 동일한 판매소에서의 각종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문사 간의 경쟁은 지면과 사업의 경쟁에 그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특히 스포츠 행사의 후원이라든가 어린이·콘테스트의 주최 등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일간신문의 대부분은 10항~18항의 지면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지면의 60%는 광고로 메워져 있다. 더구나 안내 광고가 많이 실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일류지인 경우 1단 1촌의 광고료가 50씨링, 우리나라 돈으로 약 6, 7천 환이고, 안내 광고는 1행에 5백 환 정도이다.
호주의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력지 15개사는 외전을 입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1935년에 AAP(Australian Associated Press)라는 통신사를 창립하였으며,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에 지사를 개설하고 있고,며,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에 지사를 개설하고 있고,

-25면에서-
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우한 전우를 돕는 상호 부조 운동은 이 정비대대의 찬란한 전통과 같이 확고히 뿌리 밝혀졌다.
그래서 작년 말에만 하여도 최상사, 정문관, 김상사, 송문관, 김준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그 외에 무의탁 사병 위로회, 영내 사병의 영화 관람 등 수다한 사업을 하였다.
특히 정비대대의 오락실을 10 전투 비행단에서 손꼽히는 것으로 밖에서 보면 꼭 소공주가 살고 있는 궁전 같은 인상을 주는 예쁘고 아담한 건물이다.
이렇게 밖에서 보아 산뜻한 오락실은 내부에 들어가 보아도 마찬가지로 아담스럽게 장식되어 있다.
상품의 진열로 예쁘게 되어 있지만 벽에 붙어있는 상품의 가격표가 한층 오락실다운 맛을 돋우어 준다.
오락실에는 장기, 바둑 등의 오락기구와 전축, Radio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곳은 산돼지들의 안식처이며 건전한 오락을 장려시키는 도장이기도 하다.
그 외에 장병들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씩 각 작업장 대항의 운동 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 중에 있다.
전투 작전 훈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대장 이하 전 장병이 주야로 분투하고 있는 정비대대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10전비장병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목표에 100% 육박시킬 것을 다짐하는 대대장 전 중령은 이제 대대 주변에 포푸라와 여러 가지 형태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져서 작업 능률을 올리는데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고 교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대 후 최소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운동의 전개, 수획물로서 민간 투자 사업, 그리고 기지 주변의 부락과의 자매 결연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오늘도 정비대대의 산돼지 용사들은 재건을 위해 꿋꿋이 전진하고 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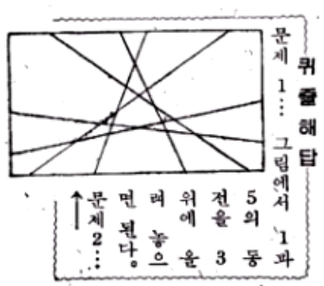
로이타, AP, UPI, The Times, New York Times 등의 통신을 본국에 송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극동 지역의 뉴스의 중요성이 증대함으로써 1946년 말에는 뉴질랜드의 통신사와 공동으로 로이타·트라스트 산하에 가입코,
현재 AAP Reviters라고 칭하고 있다. 본사는 멜버른시에 있으며, 런던과 뉴스의 지사 외에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홍콩, 사이공, 동경 등지에 지국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내 뉴스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방사가 합동 출자로 설립한 AUP(Australian United Press)라는 통신사가 있다.
AUP는 본사를 시드니에 두고, 캔버라와 멜버른에 각 지사가 있으며, 국내 각지에 통신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호주의 통신으로서 AAP Reviters사와 AUP사가 있어 외전과 국내 뉴스를 전국 각 신문사에 배수신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의 통신사와는 그 시스템에 있어도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신문 관계의 단체를 살펴보건대 전술한 바 호주 신문 평의회가 유력지의 발행자들이 신문 단체로서 있는 외에 지방지의 단체로서 호주 지방 일간지 협회(Austarlian Provincial Daily Press)와 호주 지방 신문 협회(Australian Provincial Press Association)의 2개의 단체가 있다.
그런데,
호주 지방 일간지 협회는 지방 일간지의 소유자 간에 조직된 단체이며 1936년에 창립되었고 이 협회는 영연방 신문 연맹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정례 대회를 개최하여 가입 회원 사
에는 월간 회보 가제트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본부를 멜버른에 두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음 호주 신문 협회는 각주 지방 신문 협회의 연합체로서 1906년에 창립된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관계 단체인 것이며, 약 400에 달하는 군소 지방 신문사가 산하에 있고, 본부는 시드니에 두고 있다.
이상 말한 3개 단체는 모두가 신문 발행자나 경영자의 단체이며, 호주에는 가장 유력한 기자의 단체가 있다.
즉 호주 신문 기자 협회(Australian Jounalist Association)인 것이다.
이 협회는 1911년에 기자의 노동 조합으로서 결성되어 창립 50주년 기념 축제를 가진바 있는 단체로서 현재 이 나라 각 주의 신문기자는 태반이 이 협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회원 수는 5천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나라의 기자의 노동 조건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호주 신문 평의회와 호주 신문 기자 협회와의 2가지 사이에 체결되어있는 노동 협약은 4장 46조로 되어있는 상세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에서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2장의 최저임금, 견습사원, 해고에 관한 조항인 것이다.
기자의 최저 임금은 A·B·C·D. 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4단계의 기자에 대한 대우 구분을 각기 이에 속하는 기자의 수로 나누어 본다면 1개 신문사에 소속되어있는 기자의 수효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며 예컨대
100명의 기자가 있는 신문사에서는 A는 15명, B는 50명, C는 18명, D는 17명 이와 같이 각 단계로 사람 수 할당 비례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A는 전체의 15% B는 50% C와 D는 17.5% 이러한 원칙 하에 기자의 급람표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 할당 비율로서 A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특별 A 4명 이상의 경우에는 그 중 3분의 1은 특별 A의 급료를 안배하여야 되게끔 되어있다.
다음은,
특별 A·A·B·C·D의 각 단계의 최저 임금의 내용을 본다면 각 주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1960년 5월에 개정된 요금표에 의하면 가장 낮은 다스마니어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조간지 근무 기자의 주급을 표시함)
특A=42폰드16실6(한화 약 12만 환)
A=37폰드17실6(한화 약 10만 환)
B=33폰드 3실 (한화 약 8만 환)
C=27폰드 1실6(한화 약 6만 5천 환)
D=22폰드 7실6(한화 약 5만 5천 환)
그런데 이 표의 기자의 급여액은 호주의 타 산업의 급여 수준에 비교하여 볼 때 높은 비율인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나라의 기자에 대한 대우가 잘 되어있다는 점과 많은 신문이 보급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언은 아닌 상 싶다.
호주의 신문기자는 입사하여 4년간은 견습의 대우로서 일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간의 급여는
1년간은 최저 급여의 50%이며
2년째는 60%, 3년째는 75% 4년 되면 85% 이러한 서률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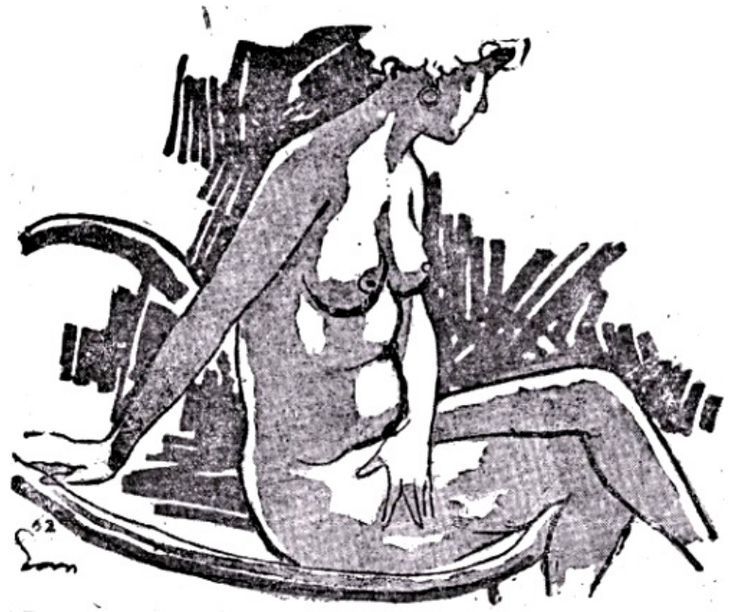
승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사원인 경우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경우에는 견습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는 신문사도 있다.
그런데 기자를 해고할 경우 우리 한국의 실정과는 유난히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자 해고에 앞서서 입사 이래 반년 미만인 기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그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예고 기간은 견습 기자인 경우에는 2주간 D급과 C급에 대해서는 4주간, B에 대해서는 8주간의 예고 기간을 가져야 하게 되어있으며, A기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1년 미만인 때는 8주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때는 12주간 10년 이상 근무한 A급에 있어서는 16주간의 예고 기간을 가져야만 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 나라에 있어서의 기자의 지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자 처우의 조건은 더한 층 호주 신문의 건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나라의 신문과 관련하여 간단히 라디오와 텔레비(TV) 등의 방송 사업을 살펴본다면,
공공 방송과 민간 방송의 두 가지 경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 방송은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mmunication)가 담당하고 있고 민간 상업 방송은 주로 각지의 신문사가 담당하고 겸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영국의 월즈·프레스·뉴스, 미국의 에디터·앤드·퍼블리쉬에 상당하는 신문 업계인, 뉴스페이퍼 뉴스가 있어 격주 금요일에 시드니에서 발행되고 있다.
또한 동지는 매호별로 라디오, TV 외에 관한 뉴스 부록이 딸려 있어 방송계 동향과 소식도 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공군 중령·공본 공보과장>

별표(Ⅰ)
1. 오스트라리안·콘소리 디텟트·프레스사(시드니)
데일리·텔레그래프 (조간 315,000부)
썬데이·텔레그래프 (일요간 558,000부)
우멘즈·위클리 (주간 835,000부)
위켄드 (주간 348,000부)
2. 미라· 뉴스페이퍼즈 (시드니)
데일리·미라(석간 260,139부)
썬데이·미라(일요간 355, 322부)
3. 더·헤럴드·앤드·위클리·타임스사(멜버른)
헤럴드(석간 646,407부)
위클리·타임즈(주간 170,804부)
스포팅·크로브(주간 158,595부)
썬·뉴스· 픽토리알(조간 563, 153부)
리스너·인·앤드·TV(주간 142, 412부)
4. 데이빗·싸임·앤드·컴퍼니(멜버른)
에이쥐(조간 166,746부)
5. 퀸즈랜드·뉴스 페이퍼즈사(프리스벤)
크리아·메일(조간 235,697부)
썬데이·메일(일요간 299,281부)
6. 텔레그래프·뉴스페이퍼사(프리스벤)
텔레그래프(석간 162,261부)
7. 아드버타이저·뉴스페이퍼즈사(아드레드)
아드버타이저(조간 184,040부)
싸우스·오스트리아·썬데이
메일(일요간 213,121부)
크로니클(주간 24,424부)
8. 뉴스사(아드레드)
뉴즈(석간 116,818부)
뉴 아이디어(주간 189,504부)
9. 웨스트·오스트라리안·뉴스페이퍼즈(파쓰)
웨스트·오스트라리안(조간 155,006부)
데일리·뉴스(석간 95, 504부)
컨트리맨(주간 15,630부)
10. 데이비즈·브라더사(호버드)
머큐리(조간, 47,343부)
싸타데이·이브닝·마크리 (주간 24,877부)

-83면에서-
이겠습니다. 이 말은 독창력을 유발하는 환경을 우리 주위에 만들자는 뜻입니다. 모든 부대에서 형식적으로는 독창적 활동을 요구하면서도 기실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백안시하는 기현상이 도처에서 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드리고 협조하며 육성하는 건설적 분위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견은 나오기가 무섭게 좌절되고 그 다음부터는 표면화되지도 않을뿐더러 문제의식마저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필자는 여기에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빌려 우리 공군 내에서만이라도 우선 독창적 사고를 유발할 분위기의 조성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강조했거니와 사기를 고도로 높이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다음 호에 구체적으로 고찰하겠습니다.





나상(裸像)이 있는 화원

그림·글 이순재(李舜在)

여원 혈관에
가만히 손을 얹히면
맥박은 그대로 뛰고
1962년
분명히 살아있는 나를 본다.
올해-
나이가 몇 살?
만으로 따지면?
부질없다. 그걸 따져본들.
흐려지는 꿈이 새로울 수 없다.

××

나상을 쏘아본다.
뜨거운 피가 흐르고
탄력 있는 정열이 압박하는 누드.
눈이 부시고 현기증이 난다
어서-
팔에 손에 힘을 주어야겠다.

××

나상의 환영이
내 심장으로 스며든다.
팔과 손에 힘이 돌고 혈맥이 뛴다.
공백 속에 선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머리, 팔, 유방, 둔부, 다리.....
모든 선이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부푼다.
어서 그 화원을 찾자.

E 중위에게

모윤숙(毛允淑)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라고들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언덕바지엔 때아닌 파란 빛깔들이 누런 떡잎 새로 입술을 내밀고 있군요. 날씨조차 그전과는 다르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살던 세계와 그 어제의 모든 일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E 중위의 들창 밖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세상 풍경은 그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변하고 바뀌는 순서 없이는 진보랄까 발전이랄까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생의 원리인가 합니다.

나는 요새 어떤 밤엔 생각이 조용해지질 않아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못 자면서까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실을 퍽 즐거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우리들의 생이 그 머문 곳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인생을 보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자극이나 충동 없이 우리들의 혈관은 잠만 자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새것에 대한 창조의식이라든가 낡은 것을 바꾸어 놓을 아무 준비가 없는 그 날. 그 날을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 버리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지리멸렬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들은 딱 질색인 모양이면서도 어떻게 엄두를 못 내서 이 현실을 그대로 끌고 왔단 말입니다. 생활풍습. 사고방식 행복의 관념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거개 병들고 낡아 빠진 누더기같이 되어 버렸지요.

E 중위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들의 적은 애국심, 또 허울 좋은 자선심 같은 것이나 인간 서로의 지지리 못난 질투 중상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진실을 잃은 거짓 작용들은 아찔아찔하게 위험한 고빗길을 가고 있었지요?

E 중위!

이런 오랜 누더기 속에서 서로를 쳐다 보면서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무슨 변동이 있었으면 하던 차에, 정말 어리둥절할 정도로 높고 멍든 어제를 깨치는 함마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함마 소리였지요. 잠자던 의식과 판단의 기틀이 이 소리에 깨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 중위께서도 이 함마를 용감히 부축하여 낡은 세대를 항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우리들의 환경을 볼 때 일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에 너무 의존하였고 아무런 변화 없이 몇백 년을 살았던 습성에서 좀 기분이 휘둥그레지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프랑스 영국 미국 그 어느 나라를 보아도 몇 번의 자아 투쟁 자기 항쟁을 거치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어설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 생존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옷에 묻은 더러운 때와 그 동네와 마을에 소독약을 뿌리고 소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들이 나서 그 법대로 국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땀 섞인 노력들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E 중위도 아시다시피 이 외부의 변화들이 참말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면도 이 기회에 우리가 입술을 깨물고 단행해야 되겠단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변화나 건설은 법과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 용이한 일이지만 이제 남은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정신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이룩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어 스스로 서고 스스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은 명령이나 법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들은 과거에 너무 막 살던 마음씨들이란 말씀이죠. 늘 남의 나라에 눌려 살던 버릇이라 그런지 혹은 우리의 오랜 할아버지 적부터 꽉 박힌 몹쓸 습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눈칫병이랄까 쭈뼛쭈뼛 자기 자신을 어느 방향에 놓아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라든가 자기 인권을 스스로 죽여가며 무슨 지위나 돈, 같은 것을 까닭 없이 쳐다보는 무책임한 숭배심이라든가 도시 인간의 존귀성을 잊어버리고 살어 버릇 했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떳떳한 산과 하늘과 땅을 가지고도 무슨 열등감의 화신들처럼 남의 눈엔 보여졌단 말씀이지요.

또 왜 그렇게 우리는 젊으나 늙으나 의뢰심이 그처럼 강해서 제 힘은 아끼고 친척이나 상관이나 가까운 친구의 힘을 빌어서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무시무시한 박테리아균에 사로잡혀 인간 본연의 생명을 상실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의 근본 목적을 모르고 무슨 핑계에 의존해서 살다가 가 버리면 그만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민족은 마음의 생기가 없고 진심을 배반하게 되니 참 큰 일이란 말씀입니다.

E 중위!

벅찬 희망과 기운찬 청춘을 소유하고 계신 E 중위에게 참고 삼아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지금 말한 그것입니다.

정신의 기초를 바로 잡는 기틀을 마련해서 민족 전부가 즐겁게 이 일을 손잡고 나가도록 말입니다.

너무 법과 명령만 중대시하면 우리 국민은 순하고 비판 못하고 쫓아가기만 잘하는 국민이라 뻣뻣한 기계처럼 돼 버려서 자유와 인권을 처리할 줄 몰라질 우려가 있으니 그것도 큰일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관용과 이해와 인간애를 꼭 끌어안는 정신의 주인공으로서 온 국민을 포섭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외부 수정과 내부 융화가 한 덩어리가 되어 나가도록 되었으면 하지요.

E 중위!

너무 싱거운 말을 많이 했군요. 참 요새는 얼마나 높이 나르십니까?

그저 자꾸 날으라고 권합니다.

높이 멀리 가슴을 내밀어 무궁한 정을 안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힘차게 드높이 날아 주십시오.

어느 일요일이라도 좋습니다. 한가한 뚝섬 벌로 한번 나오십시오. 김치와 된장국은 언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필자·시인>

<수필>

군인

어효선(魚孝善)



나는 군인 경험이 없다. 일제 때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것도 받지 못했다. 몸이 약했기 때문이다.

중일사변(일지사변)이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을 일으켰다. 지원병제도가 징병제도로 바뀌었다. 끝판엔 한국청년을 일본군대로 막 끌어 갔다.

그래서 부모는 늘 걱정을 했다.

"저 약한 위인이 군인을 가면 어떻게 배겨낼까?" 고.

내가 그때 위궤양에 걸리지 않았던들 나는 일본 군인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일본 군인 노릇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다가 힘이 부쳐 죽었을는지도 모른다.

나에게도 징병검사 영장이 나왔다. 인력거를 타고 징병 검사장엘 나갔다. 위궤양 환자라 벌거벗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뱃가죽이 등에 맞붙었으니까. 덕분에 징병검사에서 병종(丙種)으로 떨어졌다. 징병관 앞에서

"병종"

하고 복창을 하니까 징병관이 토끼눈으로,

"너 같은 놈은 애저녁에 죽어버려."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좀 창피했다. 그러나 나는,

(이놈아 죽을 병은 아니다. 몸만 추스리면 80안엔 안 죽겠다.)고 속으로 욕하였다.

한날 징병검사를 받고 갑종으로 합격한 친구 B는 해방되던 해 7월에 입영하였다.

입영하기 전날 우리는 맛 모르는 술을 먹으며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그때 B는

"내가 가긴 가도 어떡하든지 도망해 오겠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순 없다."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다.

B가 입영한 지 한 달만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B의 소식이 궁금했다. 어디가 있을까? 죽지 않고 돌아올까? 궁금하다 싶으면 B의 집엔 찾아가서 소식을 묻고 끌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였다.

그러자, 그 해 9월에 B가 군복에 군화를 신고 돌아왔다. 우리는 또 술을 먹으며 다시 만난 기쁨과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였다.

나는 B가 입고 온 군복과 신고 온 군화가 탐이 나서

"나도 갈 걸 잘못했어. 양복과 구두가 생기는 것을....."하고 농담을 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징병 나이를 넘겼다. 대한민국의 군인될 자격을 잃었다. B는 국군에 들어가 법무관 소령까지 되었다가 나와서 지금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

나는 제2국민병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직업이 교원이었기 때문에 소집이 보류되었다. 이래저래 군인될 팔자는 아닌 모양이다.

군인 경험이 없는 것이 한이다. 몸이 작고 깡말랐는 데도 행동이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몸의 균형이 잡히지를 않아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에도 꼴이 보기 흉하다.

군인 갔다 온 사람은 다르다. 행동이 민첩하고 몸의 균형이 잡혀 미끈하다. 걸음걸이도 씩씩하다. 생활이 규칙적이다. 일을 하는 데도 결단성이 있고 시원스럽게 잘 해낸다.

교원 노릇할 때 가르친 녀석들이 어느새 자라서 군인이 된 녀석이 많다. 길에서 웬 군인이 내게 경례를 붙인다.

"선생님께 배운 xxx입니다."

말씨나 행동이 씩씩하다. 얼굴을 뜯어보면 어렸을 땐 그렇지 않던 녀석이다. 군대 덕이다.

군인된 녀석이 나를 찾아오기도 한다. 나는 군대라는 곳을 알고 싶어서 꼬치꼬치 캐묻는다.

군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해낸다는 것이다.

구서주간에 쥐 잡은 이야기를 들었다. 쥐덫은 물론없고 막대기 하나 없이, 그러니까 맨주먹으로 쥐를 다섯 마리나 잡았다는 것이다. 우리 네 집에서는 쥐덫을 놓고 쥐약을 뿌려 놓아도 얼른 잡히지를 않는데, 맨손으로 어떻게 잡았을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어휘는 없다."고 한 나폴레옹의 말이 곧 군인정신인 것을 비로소 알았다.

나에게 결단성이 없고, 일을 척척 해내지 못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군인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생각하면 군대에 못 간 것이 정말 한이 되고 국군이 마냥 부럽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도 젊은이는 군대에 가야 한다. 군대 생활은 참으로 높고 귀한 경험이요, 군대는 이 정신을 넣어 주는 특수학교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자신의 행복은 물론, 우리나라가 번영하리라고 믿는다.

군인을 나라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국토방위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또 국토방위가 국민의 의무이지마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정신교육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필자·수필가>

시(詩) 무명전사(無名戰士)를 기리는 노래



박희진(朴喜璡)

타고난 별의 가열(苛烈)로 말미암아
영웅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무명전사를 기리고 싶은 마음
오, 천지신명의 마음,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꽃, 아직 아무도
이르러 보지 못한 산골에 엉긴 구름,
무슨 전쟁으로, 무슨 무기로
그것을 없이 하랴, 산더미 같은
탱크에 짓밟힌들 잡초가 죽겠는가
무명전사를 기리고 싶은 마음
오 천지신명의 마음, 이름도 없이
싸워서 죽는다고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다. 꽃으로, 구름으로,
가장 선하디 선한 사람의 핏줄로
되살아 무명을 이어가리, 하필
싸움터 뿐만이랴, 인생 도처에
이름도 없이 싸우다 죽는 사람을
기린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

박희주(朴喜柱)



군복을 입었던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저대로의 추억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훈련소 시절의 생활일 것이다.

만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의 군인 생활을 통해 보더라도 역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훈 련소 적일 것이다.

군복을 처음 입고서 어리둥절해 있는 판에 벼락같이 다닥친 무시무시한 점호 또는 유머러스한 기합에 혼났던 일들은 이제도 잊혀지지 않으며 자주 입에 오르는 화제가 된다.

대전.

항공병학교-.

시원스레 트인 활주로를 옆에 낀 병아리 항공병의 산실에서 나의 신병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도 이제 어언 5년 전.

처음으로 내무반에 들어갔던 날, 내무반장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첫 내무교육을 했었다.

"이것이 무슨 빛인가?"

내무반장이 한 후보생에게 칠판을 가리키며 물었다.

"검정빛입니다."

그 후보생은 별것을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내무반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그렇다. 지금까지 이 칠판은 검정 빛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칠판의 빛은 흰빛이다. 귀관들은 이 칠판 빛을 흰빛으로 느껴야 한다."했다. 말하자면 군복을 입은 그날부터 지난 모든 경력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백지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처음 이 말을 들을 땐 그저 직업군인의 유니폼 히스테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처럼 두렵던 점호에도 익숙해지고 군복을 몸에 맞추어 입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군복에 맞추어 입을 줄 알게 되었을 무렵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보니 이 말이 성서에 나오는 구절 이상의 명언이라 느껴졌다.

칠판의 검은 빛을 흰빛으로 느끼는 것과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우리 보라매의 장대한 힘이 비롯한다고-.

군인 생활의 ABC인 이 비상식적인 상식은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의 하나다.

◇

몇 달 전 31 TAC GROUP의 P 대령과 좌석을 가졌을 때 일이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P 대령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

"1할 이자로, 단돈 1만 환을 꾸어주고 따진다면 복리로 계산해 나간다면

<수필>

10년 후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답이 구구했다. 50만 원에서부터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백만 원대-. 허나 P 대령의 말은 의외였다.

"천만에! 놀라지 말아요. 10년 후엔 10억 원이 넘는답니다."

모두 이 말은 믿지 않았다. 나도 반신반의로 있다가 한가한 어느 날 심심풀이로 계산해보니 과연 단돈 1만 원이 1할 이자 복리로 10년이 지나면 10억 원이 넘었다.

또 하나-.

신문을 마흔 번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지만 이것 또한 굉장한 숫자가 나온다.

신문지 한 장의 두께를 0.05미리미터라 치더라도 한번 접으면 미리 그것을 다시 또 접으면 0.2미리 이와 같이 열 번을 접으면 25센치 스무 번을 접으면 28미터 서른 번을 접으면 무려 25키로미터, 마흔 번을 접으면 놀랍게도 2만 6천 키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두께가 된다. 아무리 큰 종이라도 대 여섯 번 접으면 이상 더 접을 수는 없지만 계산으론 그러한 숫자가 확실하게 나온다.

말이 2만 6천 키로미터이지 그것은 지구의 둘레를 세 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가 된다. 신문지 한 장을 마흔 번 겹쳐 접음으로써 그 두께가 그렇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단 1만 원의 이자가 10년에 10억 원이 넘고 불과 0.05미리미터의 두께인 신문지를 마흔 번 접은 두께가 지구를 세 번이나 돌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도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의 하나가 아닐까.

◇

해방 후 B-29가 하늘 높이 하이얀 선을 그으며 날으는 것을 경악 찬 눈초리로 보던 것도 이제는 마치 머언 전설처럼 생각 키운다.

비행기를 좋아하는 것은 5, 6세 난 어린이에서 칠십 노인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감정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행기 소리만 나면 사람들의 눈초리는 으레 하늘을 향한다.

더더구나 그것이 태극 표식 선명한 우리 비행기라면 제트기가 아니고 잠자리 비행기라도 대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투기는 한번 타보지도 못한 채 제대한 지상 파일럿 출신의 한 사람으로 한 대의 비행기가 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대로 짐작할 수 있지만 여기엔 또 하나 깃들여져 있는 힘이 있다.

'붕붕'하는 연습기거나 소리도 나지 않는 제트기거나 푸른 하늘에 그 찬란한 은익을 나타내었을 때.

-10원만 달라고 어머니 치마 끝을 붙잡고 칭얼대다가도 밖으로 뛰어나가 두 손을 마구 흔들며 환성을 지르는 어린이들의 기쁨에 찬 눈초리.

-우물가나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비행기를 좇아가는 처녀와 부인들의 눈초리.

-논과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과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걷던 도회인 그리고 마을 밖 나무 그늘에서 곰방대를 등에 꽂고 장기를 두던 노인들의 눈초리.

이런 여러 눈초리가 푸른 하늘에 흐르는 하이얀 점을 뒤쫓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비행기가 그처럼 날개를 날개를 솟구쳐서 하늘 위를 달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작용되는 기계의 힘이나 가솔린의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그처럼 축복에 어린 또한 그처럼 대견스러운 빛이 가득 찬 수많은 눈초리의 앙상블에서 온다는 것.

이것 또한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의 하나다.

<필자·「아리랑」지 편집장>

<꽁뜨>

유니폼

고춘호



휴가증을 손에든 준(俊)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 벙글벙글 웃기만 하다가 취침나팔소리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모두들 휴가 간다고 떠들던 동료들은 다 잠이 들었는지 내무반은 별빛에 희미할 뿐 잠잠하다.

준이 공군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 바로 어제 같기만 하였다.

도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산골, 감나무 가지마다 빨갛게 달려있던 숙이 집의 감이며, 초가집 지붕마다 둥근 호박들이 누워있던 마을의 모습이 준의 잠을 자꾸 빼앗아만 갔다.

내일이면 차를 타고 동경의 나라 내 고장을 가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내일 아침이 몇 년이나 긴 세월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준은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의 진학은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준은 공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모처럼 공군이 하나 마을 앞을 지나갈 때면 그는 좇아가면서까지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더구나 옆집 숙이는 준을 보고 바보라고만 했다. 대학에도 못가고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지게를 지고 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준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숙은 언제나 찾아와서 사랑 찬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일학년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나는 고등학교는 못 갔지만 집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다닌 친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래."

하며 밤마다 귀찮을 정도로 묻기도 하고

"난 준이 다른 여학생하고 놀면 나는 울어 버릴래……."

어린이처럼 둥근 눈을 굴리며 시무룩해지던 숙이었다.

그러던 숙이가 준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집에서 어머니와 바지저고리를 입고, 지게를 짊어지고 일하면서부터는 자꾸 눈으로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집을 나가다 만나게 되면 피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준은 그런 이가 점점 더 좋아만졌다.

"나는 꼭 숙이한테 장가가야지!"

하며 혼자서 크게 웃어대기까지 했다.

그러나 숙이는 좀처럼 찾아 주지를 않았다. 준은 기다리다 못해서 한번 찾아가면, 숙은 모른 척하고 부엌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가을의 추수기라 벼들이 골목마다 쌓여져 있고 마을 사람들은 종일 일에 시달려 고이 잠들어버린 어스름한 밤에 준은 살며시 집을 나와 고요한 마을에 발소리를 남기며 숙의 집을 찾았다. 건너 마을 개 짖는 소리는 무섭기도 했다.

숙이가 있을까? 혼자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요란했다. 준은 숙이 방 뒷담을 가만히 넘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러나 준은 곧 발을 멈추고야 말았다. 방에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준은 가만히 엿듣기로 했다.

"나는 ×군은 싫더라."

숙의 목소리였다.

"그럼 ○군"

"아니"

"그럼 공군"

"응"

"하..... 숙은 공군한테 반했어."

웃음보따리가 터져 나왔다.

웃음소리로 보아서 이 마을 처녀들은 다 모였구나, 하고 준은 생각하며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아니, 그래 군인 중에서는 공군이 최고지 뭐니, 옷이나 모자나 다 근사하구, 또 다 대학생들이 들어간다더라."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공군을 못봤으니....."

"아니, 며칠 전에 마을 앞을 지나갔잖아? 그치 순아!"

"응! 그래 우습더라. 복실이하고 밭에 갔다 오는데 XX 몇 사람이 오면서 우리를 막 놀리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도망쳤더니 글쎄 돌을 막 던지잖아!……."

"하……"

모두들 배가 터져라고 웃는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또 큰길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공군이 하나 오지 뭐니, 우리는 또 무서워서 도망칠까 하다가 처음 본 공군이고 해서 언덕에 앉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더니 우리 앞을 지나면서는 살며시 웃지 않니."

"하……"

"아주 예뻤어."

준은 다시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기상! 기상-"

동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잠을 깨니 아침이었다. 준은 다시 한번 휴가증을 만져 보고는 다시 접어 넣었다. 마음이 괜히 바빠졌다. 푸른 제복을 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다가서서 모자를 써 보았다.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근사하다고 느껴졌다. 준은 깜빡 잊었다는 듯이 뛰어 사물함을 열고 넥타이를 내어 다시 거울 앞에 다가서서 깃을 치켜 올리고 매기 시작했다.

넥타이는 난생 처음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매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선규가 꼭 매어 주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깨끗이 맬 수가 있었다.

"숙이가 나를 보면 놀라겠지."

준은 매양 기쁜 얼굴로 동료들과 함께 기차를 탔다.

준이 버스를 갈아 탔을 때는 동료들은 다 헤어지고 없었다. 버스를 탔을 때는 기차에서와는 달리 자기만큼 옷을 잘 입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모두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숙이도 많이 컸을거야. 이젠 아주 처녀겠지.....예쁠거야."

준은 성숙해졌을 숙이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준은 입을 히죽이며,

"뭐 사랑한다구? 응!"

얼마 전의 숙이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나도 이젠 그런 건 상대 안 할래."

일종의 반항심에서 나와 버린 속말이지만 준은 어딘지 석연치 않아 다시 심각해지기까지 했다.

버스에서 내린 준은 사과 봉지를 하나 사 들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언덕길을 거쳐 마을 앞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서산에 걸쳐 있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날씨는 쌀쌀했다. 마을 앞에는 여러 꼬마들이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준은 저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이 놀던 것을 그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야! 나 준이야."

이때야 알았다는 듯이 놀라며

"야 준이 형님이구나 근사하다!"

하며 달려들더니 모자를 뺏어서 이 아이 저 아이 서로 번갈아 써보기도 하고 옷을 만지며 기뻐하고 있었다.

이때, 우물가에서는 여러 아낙네들이 물을 긷다 말고, 누군가 싶어 그대로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준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웃었다. 이때야 모두 알아보고

"어마- 준이구만."

하며 달려들어 손을 잡으며 야단이다. 준은 공손히 다 인사드리고 빠져 나오려는데 옆에 숙이 웃으며 곧 달려들 것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준은

"흥!"

하고 코만 실룩거려 놓고 모른 척하며 지나쳐 버렸다.

준은 갑자기 괴로워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기술교육단 인사처근무>

<수상(隨想)>

화폐 인생

김진원(金鎭元)

골동품 수집이란 말이 상투를 틀어 올리고 긴 곰방대나 터는 시골 할아버지들이 갖는 취미가 아니라는 이해가 가면서부터 내게는 부지런히 엽전을 긁어 들이는 호기심이 붙었다. 돈을 화폐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우기 전부터라고 기억이 되니까 꽤 오랜 역사가 있는 셈이 된다.

처음엔 제기 차는 데 이용된 엽전을 친구 꼬마들로부터 구걸 또는 압수(?)하는 데서 비롯했다.

다음 단계에선 친구들 집을 방문할 적마다 농설합을 뒤져내거나 벽장을 소제했다.

셋째 단계에 가선 엿 장사 아저씨들 엿판에서 헌 고무신이나 빈 병 넝마조각과 빠타 제를 실행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화폐의 역사를 상기하게 되고 다시 화폐의 이론적 근거와 그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서부터는 안국동 관훈동 골 동품점을 순례하기 시작했다.

이러는 동안 이런 게 있다고 넉넉히 내보일만한 것이 그리 많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생각나면 파랗게 녹이 슨 엽전들을 꺼내놓고 완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가까운 이조 말엽에 대원군이 경복궁 중수 때문에 만들어 냈다는 당백전은 꼭 돌맞이 어린애 손바닥만 하다.

이것이 그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인프라를 야기시킨 상평통보구나 생각하면 일말의 감회를 아니 느낄 수 없다. 이 구리 덩어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데 어디를 거쳐서 누구한테 돌고 돌았다가 내게까지 왔을까? 예나 지금이나 돈 귀하고, 돈 중하고 돈 욕심나고 돈 타령하고, 돈 벌려고 발버둥 아우성치긴 마찬가지였겠는데, 이 돈을 긁어 들이려는 탐관오리나 이 돈을 곱게 간수하려던 절약 미덕가나 이 돈으로 말썽을 부리던 그때의 위정자나 이 돈으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노하고 서러워하던 착하고 가엾은 사람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분명히 이 돈을 가슴에 품고 타계한 것이 아님에도 왜 인간은 돈 때문에 언제나 희노애락을 표현하여야 하는 가련한 동물이 되었는고?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 세월이 꿈이가 하노라」 하는 시조도 있지만 부귀 공명 영화와 인생의 덧없음을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저 한 평생을 돈 모으기에 급급해하면서 모략과 중상 허위와 부정에 가득 찬 서글픈 인생들에겐 돈 주고 사는 바꾸어 말해서 쓰는 돈 주고 못 쓰는 돈 받는 이 취미를 가져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인생을 보다 폭넓게 관조하고 그리하여 아량을 베푸는 삶의 보람을 찾는다면 저마다 제멋에 사는 이 세상에선 선뜻 화폐 인생은 참된 값어치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쓰는 돈 주고 못 쓰는 돈 사는 이 밑지는 인생이야말로 결코 덧없이 지나는 시간의 흐름만은 아닌 것이다.

<장교후보생>

〈수필〉

미(美)

김기종(金基煙)



사람은 누구나 '미'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아마 우리의 생활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다면 그처럼 쓸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름답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또는 사람의 손과 머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두고 미를 찾을 수도 있다.

계절이 바뀌는 데 따라서 자연의 미가 바뀌지지만 달라지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게 된다. 봄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여름도 짙은 초록색의 자연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또는 강한 생의 약동에서 미를 보게 된다. 가을의 가지각색의 채색된 나무와 맑은 하늘, 그리고 생생한 바람이 미를 꾸며준다. 겨울이라고 해서 회색빛 하늘 아래 찌푸린 날씨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눈이나 잔뜩 내리고 거기에 부드러운 햇살이 어루만져 줄 때는 백색의 미가 창조된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심미의 눈과 감정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누구나 이를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해 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음악으로 또는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 게다. 아니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이 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물론이다. 자연에만 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연을 모방하여 꾸며내는 것이 창조 활동일 것이다. 선과 원, 그리고 색깔을 써서 그림으로 미를 창조해 낸다. 인상파의 그림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눈을 만족시켜 주고 거기에서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것이 그림이지만 요즘은 추상파니 뭐니 해서 철학의 영역에까지 침범하고 있다. 귀로 듣는 미의 감각도 음악을 통해서 느끼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기는커녕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부조화음을 가지고 현대 음악이라고 떠들어댄다. 전자음악이니 하는 따위의 금속성 부조화음을 가지고 현대를 표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미의 개념도 이쯤되면 뒤죽박죽이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미술이나 음악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얼핏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과 그저 들어서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없는 것을 두고 좋다고 하고 이를 자랑한다고까지 하는 데는 정말 알지 못할 노릇이다. 무식한 소치로 돌려 두기로 한다.

하지만, 마음의 미라는 것이 말이 될는지는 몰라도 우선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파탄이 오기까지의 남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뜨거운 정열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그 뒤에 영원히 이어져 가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이 모두가 되어 버리고 말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의 아름다움과 눈과 귀를 통한 미가 겹쳐질 때는 미의 극치가 펼쳐진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만, 남자만의 세계에도 거기에 유니크한 미가 있다. 그 미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병영 생활이다. 흔히들 무미건조하고 거친 생활이 병영 생활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조용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우선 눈을 통해 들어 오는 질서의 미가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정되고 정지되어 있는 미라면, 병영 생활은 행동적인 미라고 할 것이다. 절박한 시뚜아숑에서 일어나는 사나이의 사랑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강열할 때가 있다.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서로 마주 보고 조용히 말을 주고 받으면서 마음을 서로 나눌 때는 미의 세계가 불꽃처럼 일어난다. 질서의 미뿐만 아니라 따뜻한 휴매니티가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운 것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찾아낸다면 그곳에 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일 게다.

〈장교후보생〉

수양록(修養錄)에서

장윤환(張潤煥)

〈수필〉



11월 15일

아침 청소 때 잔디밭의 낙엽을 쓸어모았다. 성급한 친구들은 일부러 낙엽을 만들어 내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마른 잎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손으로 따 버리기도 했다. 바람이 불면 조만간에 떨어질 나뭇잎이니까 미리 따 버리는 게 청소검사에 유리하기 때문일 거다.

모아 놓은 낙엽무더기 옆에 서서 이효석씨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글을 생각해 보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대한 어떤 체관이 스며 있었던 걸로 생각되었다.

시

학(鶴)

장성원(張誠源)

몇 겁을 두고 줄기찬 인고이기에
어쩌면 저리도 참하디 참한 눈빛으로
머언 신라, 신라—피는 신앙을 하얀 피로 밝히운
어느 순교자의 그 눈빛으로
꼬옥 사연 하날 묻어 두고 봄에 만연히 물오르는 하늘로 하늘로
아아라리 가슴을 문지르는 거.

산 넘어 저 산 넘어 푸른 물이 있고,
너의 핏줄 속에 몇 겹 식으로 열려오는
태초의 소괴(宵壞)를 울어예는,
차라리 선지피보담 더한 의미로 울어예는
절절한 그리움은
구름만 떠가도
달빛 같은 서러움으로 피어오르고,

가난이 흐드러지게 된 동구와 동구의 바다,
포성이 울어 간, 촉루가 빗발치던 골마다
너울 너울
바람 결에 하느적이는 저의 메아리에
하이얀 손수건을 날리는데
밤이면 밤마다
사운대는 별을 부르는
왼 몸에 자르르 흐르는
소심.

퍽이나 빛나던 크낙한 사랑의 미소를 잊고
이제는 홀로 사는 누님의 서러운 하이얀
옥향이여!

보라! 구만리를 난다. 구만리를 난다.
영검한 하늘의 사랑을 부르는 손짓.

구만리를 난다. 구만리를 난다.
이 왼 누리의 해인(海印)을 슬기롭게 바라보는 것인가.

고요로운 바람의 여울에
혼연히 나래하는 즈믄 해의 넋이여!

〈장교후보생〉

인생을 낙엽 위에 채색해 보았던 많은 선인들의 사상에까지 상념이 미치다가 친구들이 나뭇가지에 일부러 남겨 놓은 마지막 한 이파리에 시선이 멎었다.

O·헨리의 「마지막 잎」.

마른 잎은 굴러도 대지는 살아 있다

임어당의 글이다. 그리고 인간은 대지를 구르는 나뭇잎과도 흡사한 것.

이건 호머의 시구다.

거의 모두가 대자연 앞에 선 인간에 대한 체관이 흐르고 있다.

체관 뒤에는 인생에 대한 성실과 의욕의 숨어 있다. 성실한 의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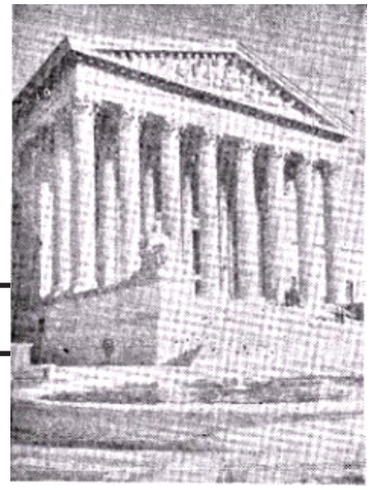
나는 짓밟고 있던 낙엽으로부터 조용히 워커를 떼어 놓았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다.

아무튼 잔디 위의 낙엽을 긁어 모으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마른 잔디밭에 눈이 덮이는 날 추위와 싸우며 다시 이곳에 내가 서 있을 것이며 잎 떨어진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날 그때쯤은 내게도 얼마쯤 숨이 트일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자. 그렇지만 앞날이 내게 어떤 것을 약속해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물론 실망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이미 광화문 앞에 묻어 버리고 왔으니까. 좌절감을 극복하라.

<세계 경이 순례>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市)

(워싱턴에 있는 미국 대심원)



나의 소년 시절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추억의 하나는 처음으로 워싱턴 여행을 하였을 때인데 그때 나의 나이는 열다섯 살이었다. 그때 대통령은 윌슨 대통령이었는데 나는 특별한 호의로 백악관을 방문할 수가 있었다. 나는 바로 대통령실에 인도되어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렸다. 나는 그와 악수를 하였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가 가장 위대한 인물 즉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윌슨 대통령은 나를 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묻기에 뉴저지의 로렌스빌 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하였다. 뉴저지는 그의 출생지이며 그는 그곳 주지사를 역임한 바도 있다.

대통령은 나를 보고 대학은 어느 학교로 갈 것이냐고 묻기에 나는 대통령의 출신교인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윌슨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며, 교수로도 있었고 총장도 역임한 것이다.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에 관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한 다음 나의 워싱턴 방문에 있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대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시면 화이트·하우스의 나머지 장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즉시 비서관을 불러 일반 사람들에게 견학을 허용하는 모든 방들을 나에게 보여주도록 일렀다. 나는 이때 이 백악관에 살면서 나랏일을 보아온 역대 대통령들을 머리에 그려 보았다.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영국군이 워싱턴시를 점령하고 백악관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매디슨 대통령, 그리고 항상 용감하게 투쟁하던 정력에 넘친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다음에 비극적인 4년간 이 저택에 살면서 합중국을 유지해 나가는데 고심한 링컨 대통령, 그 밖에 장군 대통령으로 존경받던 그랜트, 재선되어 빛나는 업적을 남긴 크리브랜드,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분들이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영도해온 사실들을 어렸었지만 생각해 보았다.

나는 백악관을 구경하고 나서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개회 중에 있는 상원을 보았다. 그때 아버지 친구로서 테네씨주 출신 상원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상원의원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 의원을 따라 식당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때 다른 네 명의 상원의원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내가 대통령을 뵈옵고 온 사실을 알자 이것저것 물어보는 가운데 그중 한 사람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 뵈올려고 몇 주일이나 벼르고 있는데도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금방 만나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요 다음에 또 네가 대통령을 방문할 때는 나를 꼭 데려다 다오.' 하면서 껄껄 웃었다.

나는 이들 정치가들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명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의원들이 우리 옆을 지나갈라치면 아버지 친구인 테네시주 출신 의원은 결코 상대방 의원의 성같은 것은 부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야 죠오! 이쪽으로 오게 젊은 친구를 소개하겠네. 이 아이는 지금 막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참일세.'

이렇게 해서 나는 20명 이상이나 되는 상원의원에게 소개되어 악수를 나누었는데 그중 열 사람쯤은 나에게 여송연을 주었다.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나서 나는 마운트·바논으로 가서 조지·워싱턴 묘를 참배하고 그가 살고 있던 집의 방을 구경하였다. 끝으로 가장 좋았다고 지금도 생각되는 것이지만 166미터 반이나 되는 워싱턴 기념탑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정부 건물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참으로 그때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데 대해서 커다란 자랑을 느꼈다.

그 후 나는 몇 번이나 워싱턴을 찾아갔다. 더구나 찾아갔을 때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불어가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누구라도 이 세계 경이에 관해서 어쩌니 저쩌니 말할 것이 아니고 워싱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은 뉴욕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비행기라면 금방 갈 수 있다.

우리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하늘 높이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얼마나 주의 깊게 교묘히 계획되었으며 그 계획이 충실히 실행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도시는 워싱턴의 기념탑과 같이 조지·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해서 명명한 것이다.

워싱턴 대통령은 그 당시 지도자 가운데서 이 나라의 훌륭한 장래의 성장을 예견하고 대국으로 손색없는 대연방 수도의 필요성을 통찰한 오직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을 수도로 선정하고 더욱이 프랑스의 기술자 란판 소령에게 부탁하여 자기 머릿 속에 그리던 설계를 기초로 해서 파리와 같은 화려한 도시를 만들게 하고 의사당의 초석을 세웠던 것이다.

그가 그의 모든 희망과 꿈이 실현된 오늘날의 워싱턴시를 보았을 때 기품 있고 장대한 미관으로서 다른 나라 어느 건물에도 지지 않는 의사당을 보았다면 분명히 기쁨과 만족에 찾을 것이다.

가로수가 서 있는 도로 쪽으로 세워진 일군의 대리석 건축물로서 그리스 사원을 연상케 하는 최고재판소, 그리고 순수함과 완전을 자랑하는 링컨 기념관, 또한 워싱턴시와 버지니아를 연결하는 포트막강에 걸려 있는 대리석으로 된 다리 그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에서 워싱턴 기념탑 앞을 지나서 의사당에 이르는 도로의 가로수만큼 장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본다. 높은 워싱턴 기념탑을 제하고는 아무 장애물도 없고 푸른 잔디와 광선을 반사하는 연못으로 장식되었으며 수목이나 훌륭한 정부 건물로 연결된 2키로 남짓한 전망은 실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전망의 하나일 것이다. 의사당의 정상인 둥근 지붕에 올라가 링컨 기념관 쪽을 보거나 또한 기념관의 둥근 기둥 옆에 서서 의사당을 올려다보더라도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보고 싶어할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이것으로 더욱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과거에 대해서는 더한 층 경의를 표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서는 보다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의 가로의 거의 중간 지점에 솟아있는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것은 워싱턴 자신의 영광스러운 기념탑이지만 워싱턴 자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첨탑은 미국 건조물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며 아름답다고 감탄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단순하고도 직선적이며 높고도 허식이 없는 나이로 설계된 것은 워싱턴 대통령 마음에 꼭 든다고 할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기념탑은 내가 써가고 있는 경이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웅적인 존대성을 가짐과 동시에 사람을 기념하는 어느 기념탑보다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애국자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늘까지 탑을 싸올려보라! 그래도 그대들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인격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그것을 튼튼한 영원의 바위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그의 명성보다 더 영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내 자신 이 기념탑을 상당히 여러 번 보았다. 태양광선이 눈부시게 내려 쪼이는 높푸른 여름 하늘을 배경으로 늠름하게 서 있을 때라던가 흐린 날 푸르스름한 진주 빛깔을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던가, 밤에 불빛 홍수 가운데서 별나라에까지 닿을 것처럼 심한 불기둥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장관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가장 친숙해지기 쉬운 광경이다. 그러나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을 보더라도 이 창검과도 같은 화강암 탑으로 해서 그 믿음직함과 염결(廉潔)로 하여 마음의 발분을 일으키곤 하였다.

나는 때때로 탐욕이나 무지나 부정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며 조지·워싱턴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모든 이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의 기념탑을 잠시라도 보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신조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흡사히 기념탑은 고상한 규율이나 공사를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미국을 오늘날과 같이 위대한 것으로 육성시킨 여러 제도를 파괴하려는 모든 적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하늘 높이 솟아있다.

이 기념탑만큼 훌륭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념탑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 기념탑이 우리의 수도를 지키고 있는 한 명예, 정의, 명령, 공정이 일반에게 골고루 미칠 것을 확신하여 마지않는다.

〈역자주-수도 워싱턴은 현재 인구 70만 정도로서 미국에서 열한 번째의 도시다. 여기에는 전술한 것 이외에 독립선언의 기초자이며 초대 국무장관이었고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제퍼슨을 기념하는 제퍼슨 기념관이 1943년에 세워졌으며 또한 세계 제일의 장서 수(840만 권)를 자랑하는 국회도서관이 있음을 첨언한다.〉

강하고 믿음직한 남아
-내가 사랑하는 부하-

투지가 강한 부하가 믿음직스럽고 살아있는 부하인 것 같다. 부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다. 실없는 바늘은 하나의 쇠일 뿐 아무것도 아니며 바늘 없는 실이란 또한 솜의 다른 형태일 뿐 찢어진 옷을 댈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약하고 끊어지기 쉬운 실은 싫다. 질기고 힘 있고 두툼한 실을 요구한다. 그래야 자신 있게 찢어진 국토를 꿰매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

무엇인가 시키면 겨우 하는 희미한 부하는 나약할 뿐이다. 무엇이고 진취성 있게 고난을 타개해 나가는 부하가 적든 크든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 ×

시키는 일에만 맹목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하는 또한 발전성이 없다. 이미 세워진 낡은 방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이디어(Idea)를 창출해 나가며 구세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반항하는 부하가 언제나 새로워서 혜성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부하는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능률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좋다.

× × ×

비굴하지 않는 부하를 나는 좋아한다. 자존심을 잃은 남아는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인간 쓰레기다.

그 쓰레기 속에서 금이 나올 리는 없다. 무슨 일을 하던 자존심을 잃지 않는 자는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부하는 상관에게 비굴하지 않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신병에게 폭력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정이 들게 된다.

× × ×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해도 사람은 기계화될 수 없는 살아 숨 쉬는 인간이다. 군복을 입은 부하라고 해서 상관의 도구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강하고 믿음직한 부하, 비굴하지 않고 자존심을 잃지 않는 남아다운 인간-이런 부하를 나는 사랑한다.

소위 곽성용(郭聖鎔)

독창력 테스트

1. 당신의 독창력 테스트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제 5분간에 이 연필 한 자루의 용도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발견하여 주십시오. 기발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것도 환영합니다.

열 가지 정도를 냈다면, 당신의 독창성은 비교적 녹이 슨 셈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15가지 정도면 보통입니다. 약간 더 노력하시면 보다 더 창조적인 두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20가지 이상이 되었다면 당신의 독창력은 쓸 만합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독창성에 녹이 슬었다고 해서 비관하시거나 불쾌해하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식적으로 노력만 하면 숨겨진 보물, 독창성을 개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독창성의 유발과 사기

우리는 사기(Morale)를 한 부대의 전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앙양책은 커다란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기 앙양책으로 흔히 나열하게 되는 것은 거개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을 다루는 것에만 시종하고 있습니다. 오락시설, 자유시간, 교양강좌, 회식, 군기, 체육회, 포상, 면담, 휴가 등등 세어보면 상당한 종류가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군사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인자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에는 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제 잘난 맛에 산다〉는 속언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특수한 조직체인 군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많이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배출구로 모든 욕구가 편협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소속집단에 안주하고 싶은 소속욕을 충족하고, 자기의 소속 집단에의 역할을 강력히 의식할 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않는 한 사기를 형성한다는 것이 오늘의 사회심리학자들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속감이라든가 동일화,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공헌 활동에 의해서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의견이라도 독창적인 안은 이를 장려하여 줌으로써 채택 여부에는 구애됨이 없이 성원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의 독창성 개발을 과제로 삼고 소론을 이어 가기로 합니다.

[연필의 용도]

(1)송곳 대용 (2)주사위 대용 (3)줄긋기용(나무토막 대신) (4)네 토막으로 잘라서 윷놀이 (5)머리 비녀 대용 (6)미운 놈 골려줄 때 (7)귀속 소제용 (8)육각형의 샘플 (9)불쏘시개 (10)장난감 칼 대용 (11)팽이채 (12)등긁기용 (13)화살 대용 (14)연필알은 흑색의





표본 (15)연필알을 긁어서 흑인 분장시 도료로 사용 (16)밀가루 국수 만들 때 미는 홍두깨 대용 (17)유리병 속 소제할 때 (18)창문 버티는 막대기 대용 (19) 화젓가락 대용 (20)자(尺) 대용 (21)지휘봉 대용 (22) 손가락 굵은 사람 자동전화기 다이얼 돌릴 때 (23)회초리용 (24)싸움 도구 (무기) (25) 내기할 때 (인지 하나로 부러뜨리기) (26)화학 실험 때 자료용 나무 대용 (27)상품의 경품용으로 (28)수기 막대기용 (29)북채 대용 (30)부채 손쥐개 (31) 펜대 대용 (32)실패 대용 (33) 값싼 화풀이 용품 (집어던지거나 분지른다) 등등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3. 독창성과 환경

인간의 두뇌 기능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흡수력(Absorptive Power)——관찰력, 주의력

②기억력(Retentive Power)——기억하고 다시 상기해 내는 힘.

③추리력(Reasoning Power)——분석하고 판단하는 힘.

④독창력(Creative Power)—— 아이디어를 내는 힘, 기지, 임기응변력.

①과 ②로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③과 ④의 기능으로 사고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은 ②와 ③에만 주력을 두고 관찰과 기억, 분석, 판단 등 기능의 발달에만 치중하는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군 교육도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①, ②, ③의 기능만 육성하는 데 그쳤고, ④의 기능 즉 가장 생산적이고, 요긴한 능력인 독창성의 개발에는 거의 등한시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독창적인 여러 천재들에 의하여 엮여져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몇 천재들의 힘에 의하여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세계적 천재가 고갈된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어찌 대(大) 비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의 특성은 독창력입니다. 그런데 천부의 재질을 지닌 천재의 출현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우리는 인공적으로 천재를 대량 생산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즉 교육에 의한 독창성 개발이고, 거기에 수반된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전자는 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지만, 우선 손쉽게 모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후자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70면으로 계속)

버스 안의 J대령
-내가 존경하는 상관-

작년 봄의 일이었다.

모처럼의 외출을 이용해서 몇몇 친구들과 더불어 수원 농대의 농업시험장으로 들놀이 가기로 했었다.

우리 일행 5명은 서울역 앞에서 수원행 버스에 올랐다. 자리를 잡고 앉자 이 얘기 저 얘기로 담소의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한 소년 행상이 빵 뭉치를 불쑥 내밀면서 '잡수세요'한다. '사세요'가 아니라 아주 독단적으로 잡수세요 하는데는 은근히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안사!'하고 빵 뭉치를 180도 방 향으로 휙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 소년은 다시 빙긋이 미소까지 띄우면서 잡수세요 하는 것이 아 닌가? 나는 하도 어이가 없고 또 약간의 의혹도 없지 않아 친구들의 표정을 살피는데 그 소년은 얼 핏 이렇게 말을 잇는 것이었다.

'저 뒤에 앉은 분이 잡수시라고 사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뜻하지 않던 J 대령님의 얼굴이 웃 음을 머금고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반동적으로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리자. '허허허 괜찮아 그냥 앉 게. 참 우리 집사람인데 인사하지!' 하는 것이었다.

J 대령님은 그 당시 내가 근무하던 본부의 xx 참모였다.

안양에서 하차하여 논길 사이의 신작로를 걸어가는 두 분의 뒷모습에서 나는 생활인의 훈훈한 인간미를 음미할 수 있었다.

후에 다시 생각해낸 일이지만 J 대령님은 왜 그의 지프차를 그때 이용하지 않았을까?-나는 이런 의문을 던져주는 상관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병장 조성훈

<세계를 움직인 책들>①

"여기에 들어있는 의견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일반적인 지지를 얻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태를 나쁘게 생각지 않는 오랜 습관으로 해서 표면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옳은 것이라 하고 습관의 옹호를 위해서 곧 무서운 비명을 지르는 것이 현황인 때문이다. 그러나 소동은 멀지 않아 가라앉는다. 이치보다도 시간이 자연히 많은 개종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조용하고 냉정한 말로서 시작되고 있는 이 조그만 팜플렛은 1776년 1월 10일에 모 영국인 저로 2쉴링짜리 47면의 소책자로 처음 간행되었다. 바야흐로 북미 동부 13주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대영 감정이 격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주전론자인 새무웰 ·애담스, 조지·행커크 등의 과격파와 영국왕에 충성하던 왕당원이 있었다. 조지 ·워싱턴, 벤자민·프랭클린, 토마스·제퍼슨 같은 이들은 영 본국에 대한 충성을 반대하는 측의 지도자들로서 분리와 독립의 사상으로 해서 주목받고 있었다. 제1회 및 제2회의 대륙회의는 다 같이 영국왕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만 그들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으로 끝났을 따름이었다. 이 혼란된 사상, 상쟁하는 의견과 충동, 상호 간의 알력의 한 가운데서 이 사건의 추세와 그 대략의 결말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11774년 12월 초에 벤자민·프랭클린의 소개장 한 장을 쥐고 신대륙에 상륙한 37세의 전직 수세리인 토마스·페인이다. 그는 신세계에 도착한 지 3년도 채 못되어 영어로서 쓴 최대의 팜플렛 저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사상 가장 많이 논해진 사람의 하나로서, 또 그 이름이 영령 미국식민지. 영 본국 및 서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두려움을 받고, 또는 증오되고, 칭찬되고, 숭앙되는 정치 선동가 내지 혁명가로서 일약 유명해졌던 것이다. <커먼·센스>는 간행을 보자마자 날개가 돋혀 3개월 동안에 12만 부가 팔리고, 그 후의 총 매상고를 합하면 50만 부에 달하며,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인구에 비례하면 3,000만 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사실상 전 13주의 식민지 사람치고 글을 깨친 사람은 거의 전부가 읽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즉각적인 충격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상이 <커먼·센스>와 비교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미식민지인에 대한 독립에의 오직 타협도 동요도 없는 투쟁에의 진군이었던 것이다. 혁명이야말로 대영제국 및 조지 3세와의 항쟁의 유일한 해결임을 선언한 것이다. "폭발이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고 페인은 선언하고 "바라노니 궁극의 분리로 나아가자, 고가한 것을, 법률의 폐지를 위해 우리는 지불해야 한다. 그 폐지야말로 우리들이 싸우는 그 모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한 도시, 한 군, 한 지방, 한 왕령의 사건이 아니다. 전미 대륙의 사건인 것이다.…… 또한 그것도 하루, 한 해, 한 시대에 관한 것이 아니다. 후세 자손의 운명이 이 성패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륙 결합의 파종기이다. 신뢰와 명예있는…… 대륙대의 허리띠는 너무나 늦추어져 우리들을 결속시키고 한데 뭉쳐주는 유일한 유대이다."라고 독립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일면 스스로 보아온 영국 왕정의 원시적인 만행이며, 정의가 압복되는 것이며 늘 들어오던 사람의 생득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없는 빈궁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수백만의 일반 국민과 기천의 왕후 귀족과 떼어내고 있는 넓은 간격이며 왕가의 부패와 우둔을 그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생각을 깊이 하자 페인은 인류에의 한없는 인민에 사로잡혔고, 민주 정체에의 사랑과 전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었다.



미국은 독립해야만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영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미국의 조국이다."고 갈파하면서 신대륙은 "박해를 받은 시민적 및 종교적 자유의 애호가들이 유럽의 도처에서 찾아오는 피난소이라"고 외친다. 나아가 영국과의 관계로해서 국제적 분쟁에 휩쓸려 들어감을 경고함으로써 조지·워싱턴의 경고인 세계 어느 나라와도 항구적 동맹을 피할 것"과 토마스·제퍼슨의 "모든 나라와 평화 통상 및 성실한 친교를 지키고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정책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 "솔직하고 단호한 독립에의 선언 이상으로 신속하게 우리들의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의 확신의 이유를 요약하고 그것의 네 가지 요인을 들고서 독립선언을 촉구한다. 즉 ①미국이 영국의 속국으로 간주되는 한 어느 타국도 분쟁을 중재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②미영의 불화의 해소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스페인·프랑스의 원조를 할 수 없으며, ③속국인 한 반란으로 볼 것이며, ④독립선언은 매우 유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일례로 단결하자 마치 대사령처럼 그것은 일체의 분쟁을 망각 속에 파묻어 버리고야 말 것이다. 민헌당이고 왕권당이고 그러한 이름을 없애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다른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도록 하자. 들을 것은 선량한 시민 솔직하고 과단한 친구 그리고 인류의 권리의 그리고 자유 독립 아메리카 여러 주의 지조있는 지지자라는 이름이다." 이것이 <커먼·센스>에 의해서 미국인에게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진 혁명적인 메시지의 결구이고, 타고난 선동가의 격정어린, 호소의 현실적이며 실천적 요지이다. [로버트 B 다운즈의 「세계를 개혁한 책들」에서 요약]

중공치하(中共治下)에 있어서의 지식인(知識人)



이글은 정죽원 저 「대륙국세여중공전도」(홍콩자유출판사간) 중 중공치하의 지식인의 운명을 분석화 부분을 택출한 것이다. 정죽원씨는 1949년 중공의 대륙 석권시 홍콩으로 탈출한 이래 소장(少壯)학자로 중공 문제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정죽원

1. 지식분자에 대한 중공의 정책

지식분자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이며 또 추진자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등 모두 지식분자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공산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지식분자는 예외없이 공산당으로부터 학대와 박해를 받는 공산 정권의 대립물로 되고 만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은 20세기 인류의 가장 심각한 비극의 하나이다.

중공치하의 지식분자의 경우도 결코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공이 아직 정권을 탈취하기 전에는 출신 여하을 막론하고 지식분자를 전면적으로 포섭하여 소위 그들의 혁명 대열에 참가시켰음으로 지식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초기의 중공은 노농계급의 대표라기보다는 지식분자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좋을 정도였던 것이다.

1939년 중공중앙위원회는 모택동이 고안한「지식분자를 대량으로 흡수하자」는 표어를 채택하고 점령 구역 전반에 걸쳐 이를 실천했다. 49년 중공 정권이 대륙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수십년 이래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마는 지식분자들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개혁에 희망을 걸은 것이 중공으로 하여금 여행의 성공을 이루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중공이 대륙에 정권을 수립한 후 지식분자에 대한 정책을 일면 포섭, 일면

개조의 방향으로 돌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380만으로 추산되던 이들 지식분자의 협력 없이는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소위 부르주아 또는 뿌띠 부르주아 계급 출신인 이들 지식분자의 사상과 심리상태가 공산주의와는 전연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을 철저히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중공이 선전한 것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에 이들 지식분자들이 틀림없이 반대하고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공은 정권을 잡자 사상개조니 문예정풍이니 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말살시키려 했다. 결국 포섭의 대상자는 숙청의 목표로 전락한 것이다.

사상개조라고 하는 이 세뇌 공작은 53년 이전에는 아직 고백과 검토 정도였지만 53년 이후에는 공산사회 특유의 사상 적발로 들어가 호적 사상으로부터 양수명 사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상이 숙청되었다. 5년 다시 유평백 홍루몽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호풍 숙정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등등의 운동은 공산주의 이외의 모든 사상에 대한 적발 비판과 개인주의 및 유심주의적인 모든 사상체계를 숙청함으로써 지식분자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포기시키고 레닌, 스탈린, 모택동으로 물려 내려온 유물주의를 준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확립하려 한 것이다.

부단한 공산분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숙청, 투쟁, 비판 검토 등으로 말미암아 대륙의 지식분자에게 과해진 타격은 도저히 글로써 전할 수 없는 것이다. 북경 사범대학교수 구춘(邱椿)은 소위 투쟁 대상에 올라 중공 당원을 보기만 해도 몸을 피했다. (57년 5월 27일「광명일보」) 서북목축수의학원 교수 □연웅(□延雄)은 사상개조의 과정에서 교사가 자기의 뺨을 때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도수가 클수록 학생들은 선생의 비판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7년 5월 27일「광명일보」) 이러한 중공의 방침은 지식분자의 자존심을 부숴버릴 뿐 아니라 자기의 꾀를 자각시켜 속죄의 기분을 가지게 함으로써 중공을 위하여 평신 저두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으로 인하여 55년 대륙의 학술계는 완전히 침체 상태에 빠졌다. 5년 1월 14일 중공 중앙 위원회가 소집한 지식분자에 관한 문제의 회의 석상에서 주은래(周恩來)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현저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A) 중공 내부에 철학과 사회과학을 독점하려는 사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의 말대로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장점을 염두에 두지 않음은 물론 심할 경우에는 비판도 듣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단순하고 조폭한 학자들에게 대해서 철학과 사회과학은 마치 생명을 잃은 듯이 잠잠하였다. 많은 학자나 작가들이 저술하거나 글은 발표할 수가 없었다. 문학에서는 이제까지 다작했던 작가, 예를 들면 노사(老舍), 파금(巴金), 조옹(曹禺) 등이 수년 이래 창작 활동을 중지하거나 조금밖에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공은 고전문학을 들추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따라서「홍루몽」이나「수호전」등 구소설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이 공백을 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과학에서는 제멋대로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부르주아 계급이니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니 하는 낙인을 찍고 있는 바 한방의는 봉건의학이고 서양의학은 부르주아 의학이며 미소린 학설은 사회주의적이며 멘델 몰간의 유전학설은 자본주의적이라는 식이었다. 교조주의의 속박 밑에 사람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었고 중공의 당팔고나 교조주의가 실린 땅이 아니면 행세할 수가 없었다. 유행 학설에 맹종하여 그것을 직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지식분자는 집필을 할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중공의 수뇌급 분자들의 말을 적당히 얼버무려야 했다. 중공 중앙 선전부 과학 연구 처장 우광원(于光遠)은 이 글 가운데 반 정도만이 근거가 있는 인용문이며 나머지 50% 중 40%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것이고 10%는 순전히 작자가 제멋대로 만든 말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대륙 전체의 학술사상은 완전히 숨통이 막혀 생기를 잃고 말았다.

B) 중앙간부의 지식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것이다. 주는 지적하기를 전위의 탈을 쓴 지식분자에 대해서 당이 벌을 주기 때문에 지식분자는 중공에 대해서 면종복배하고 있다. 고급 지식분자들 중 중공지지자는 40% 뿐이고 나머지는 중간분자 내지 반동분자라고 했다. 이 말대로 하더라도 고급 지식분자의 60% 이상이 중공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

C) 지식분자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사상개조와 반동분자 숙청 운동 중 여러 가지 박해와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일체 말이 없어지고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고통(費考通) 교수는 57년 3월「지식분자의 조춘」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전년(55년) 말 남경, 소주, 항주 등지를 둘러오면서 도중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으나 말하는 중에도 그들로부터 일종의 적막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적막감의 근원은 주로 사회주의가 전진하는 대오 가운데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자 지난날 다정하게 들리던 "담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지금은 무정하고 차갑게 들린다고 하는 한탄을 면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57년 3월 24일 인민일보)

이러한 기분은 대륙의 지식분자를 공허의 심연으로 몰아넣었고 그 의기를 극도로 침체케 했다.

이러한 적개심과 소침한 공기는 중공 정권의 확립과 발전에 대해서 중대한 위세였다. 특히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자 기술인과 관리인의 부족은 오히려 중공으로 하여금 고급 지식분자의 협력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 56년 1월의 중공 중앙위의 지식분자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에서 주은래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점하고 있는 지식분자의 중요성을 강조케 하였다. 주은래는 많이, 빨리, 잘, 안전하게(다쾌호생) 사회주의 건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분자의 적극적 노동과 노동자

농민 지식분자의 형제적 동맹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지식분자는 이미 우리나라 각 방면에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되었다. 그러므로 빨리 지식분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충분히 그들의 능력을 동원 발휘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과도기의 임무를 완성시키는 데에 있어서 불가결의 중요 조건이라고 성명했다. 주은래가 제안한 지식분자에 대한 신 정책에는 다음 3가지 점이 포함되어 있다.

①지식분자에 대한 대우개선에 관한 일이다. 중요한 일은 지식분자를 쓰는 법과 배치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의 전문기술 및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식분자들에게 대응할 만한 신임과 지지를 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 및 지식분자의 생활 대우를 개선할 것 등이다.

②계속해서 지식분자의 자기 개조를 도와주는 인이다. 그 목적은 지식분자들 가운데서 반혁명분자를 철저히 숙청하고 낙오분자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며, 중간분자들은 될 수 있는데까지 진보적 분자로 고치고 진보적 분자를 완전한 사회주의적 지식분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 개조의 길은 (a)사회 생활의 관찰과 실천 (b)자기 할 일의 실천 궁행 (C)일반 이론의 학습 등을 통하는 것이다.

③지식분자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고 공산당에 흡수하는 일이다. 주은래는 62년에는 당원이 고급 지식분자 총수의 1/3 전후를 차지하게끔 한다고 했다.

또 제2차 5개년 계획 끝에는 고급 지식분자 중에 진보분자가 이상을 점하고 낙오분자를 5% 전후로 감소하게끔 한다고 했다.(56년 인민수책 628P)

이상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서 중공은 지식분자의 대우를 국부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식용유, 육류의 배급인데 지식분자는 특별 배급을 받았다. 56년의 배급 개혁에서 고급 지식분자도 전반적으로 대폭적인 증급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개선은 중공에 대한 지식분자의 의혹심과 공포감을 아직껏 불식할 수 없었다.

침체된 학술의 경화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56년 4월 중공 중앙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모택동은 10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제출하고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서로간을 내걸기 시작하고 근본적으로 지식분자와 중공의 대립 상태를 일소하려고 하였다.

2. '명방(鳴放)'에서 '반우파투쟁(反右派鬪爭)'까지

중공이 명방 정책을 내걸 때에 그 최초의 동기는 행정적으로 문예 과학을 지도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치고 문예 및 과학과 정치를 나누어 문예 그 작자와 과학연구자의 독립된 사고, 논변, 창작, 비판의 자유를 주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조주의의 끈에 속박되어 있던 사상을 풀어놓아 대륙의 학자들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당초의 생각으로는 명방정책은 학술과 문예에만 한정하고 정치적 영역까지는 별 심산이 아니었다. 56년 5월 26일 북경에서 당선전부장 육정일(陸定一)은 과학 및 문예공작자에 대해서 발표한 강화 가운데서 계급사회에서는 문학, 예술 및 과학공작은 모두 계급 투쟁의 무기로 되지만 문학·예술 및 과학 연구는 정치와 전연 같지는 않다. 정치 국사은 계급의 직접적 표현 형식이지만 문예와 사회과학은 비교적 완곡한 계급 투쟁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보아도 중공의 소위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분명히 학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적게 라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방정책 실시에도 지식분자는 일관해서 이에 의문을 품고 명철보신(明哲保身)을 상책으로 여겼다. 56년 전반부터 동년 말까지 학자들이 취한 태도는 마치 비효통이 전술한 논문「지식분자의 조춘」가운데서 논한 바와 같았다. 즉 백가쟁명에 대해서 지식분자는 열심이다. 마음은 타오르고 있지만 입은 아직껏 대단히 굳다. 이에서 그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것은 올개미다. 사상 상황을 조사해 놓고 다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정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명의 제1단계는 나융기(민주동맹부주석, 삼림부장)가 57년 3월 18일 정협회의에서 말한 대로 일년 이래에 학술사상면에 백화제방을 제방한 것도 적었고 백가쟁명에 쟁명하는 사람도 대단히 적었다.

56년 후반 폴란드 렁가리 사건 등이 발생하자 대륙의 지식분자의 감정에 급격한 동요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공산 진영의 전도에 비관적 관측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 혁명 위원회 중앙 위원 좌파분자인 등초민은 57년 3월 8일부 북경「광명일보」에 이것을 분석한 일문을 발표하고 헝가리 동란 발생 전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힘이 자본주의를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 동란 후 소련과 각 사회주의 국가 간에는 어떠한 종류의 융화할 수 없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영과의 힘의 비교에 대해서도 일부의 사고방식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등초민은 다시 헝가리 동란 후 그 사람들은 민주 자유의 절대화를 요구했고 또한 시민 민주 독재에 반대하면서도 당의 지도를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그중에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세하에서 모택동은 지식분자의 기분을 풀 적당한 단서를 주고 내부 혁명의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7년 2월 27일 최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인민 정협 제2기 제3회의 대표 400명을 회의에 초청, 여기서「즉각적으로 인민 내부의 모순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라고 하는 제목의 강화를 발표했다. 모택동의 이 강화는 정협 대표가 인용한 어구에 의하면 전연 지식분자가 안심하고 명방을 할 수 있게끔 고무 격려한 것이었다. 그 제일 분명한 표현은 알고 말하지 않는 일이 없고 말해서 다하지 않는 일이 없다. 말하는 자에는 죄가 없고 듣는 자는 경계만으로 충분하다. 비판이 있으면 이것을 고치고 없으면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보증이다. 다시 모택동은 현재 중국은 아직껏 뿌띠 부르주아

계급이 우세하다. 뿌띠 부르주아가 있으면 뿌띠 부르주아 사상이 있다. 사상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압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부르주아 계급부터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만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추진하는 일 뿐이다. (57년 3월 13일 상해「문회보」 발표한 등초민의 논문)라고 하는 의향을 말했다. 모택동이 당시의 예측으로써는 지식분자는 벌써 8개년 간의 사상개조를 경험하고 있는 고로 언론을 개방하여도 중대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식분자는 모택동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고무 격려를 받은 위에 모택동이 주석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보증에 반해서 스스로 신용을 잃어버릴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57년 4월 중공 중앙 선전 공작회의 후 명방은 정식으로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공 통일 전선상 작품는 5월 이후 스스로 민주당파인사및 지식분자들을 놓아놓고 좌담회를 연달아 열었다. 중공 기관는 지금까지의 예를 깨뜨리고 좌담회의 전 발언 기록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 이에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명방에 대한 지식분자의 신뢰감는 높아갔다. 지식분자는 8년 동안 그들의 울분을 풀 곳이 없었던 고로 일단 공개발언의 기회를 얻자 강하가 무너진 것 같이 넘쳐 나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식분자의 명방은 57년 6월 초에 최고조에 달했다. 중공의 폭정을 공격하는 각종 언론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각지의 대학은 불길같이 타올랐다. 6월 상순 북경대학, 남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천진남개대학, 상해복단대학 등 각 대학에서 학생의 반공운동이 일어났다. 난주 대학생은 공공연하게 교장(중공원)을 파면했고, 6월 12일, 13일 양일에는 호북성 한양(무한삼진의 하나)에서 1,000명 가까운 중학생이 행진 데모를 하고 타도 모택동의 표어를 써 붙였다.(57년 8월 6일 인민일보) 중공의 소위 소 헝가리 사건이 폭발한 것이다. 중공은 정세가 급함을 알고 쟁명의 종식을 명령하고 소위 반우파 투쟁을 전개했다.

반우파 투쟁 전개 후 명방의 기간중 중공에 대하여 공격 발언을 한 지식분자는 전부 우파로 몰려지고 잔혹한 숙청이 계속되었다. 말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약속은 말하는 자는 모두 죄인)으로 일변하였다. 반우파의 제1단계는 장라동맹 일소가 중심으로 이것은 각 민주당파 멤버에 대한 종합적인 숙청이었다. 중공은 장라 양씨와 왕래하는 인물을 위협하고 먼저의 차입을 (중공을 비판한 일) 반환하고 그들이 중공의 대륙 점령에 발표한 글이나 주장도 숙청의 대상으로 했다. 다시 장내기 장백균, 저안평동의 처자를 위협하고 남편과 부친을 숙청하였다. 다음 숙청된 자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중공이 결정한 죄상을 공공연하게 인정할 것을 강요했다. 반우파의 제2단계는 당외로부터 내로 향하고 명방의 기간에 당외우파분자에 동정한 당원 간부도 계속하여 숙청되었다. 당력 10년 20년의 많은 중요 인물들도 우파분자라는 죄명으로 숙청을 당했다. 문예계에서는 정령(丁玲), 풍설봉(馮雪峰), 숙간(艾乾), 영광양(英光陽) 등 당당한 사람들과 중공 미술학원장 강풍(江豊), 안휘문연주석 대악(戴岳), 음악가 류설암(劉雪庵) 영화 감독 오조광(吳祖光) 등 수십인, 성시당위관계에서는 절강성위상무위원겸성장 사문한, 부성장 양사일팽서림감숙성위상무원 손전재(孫殿才), 부성장 진성의(陳成義), 청해성위상무위원겸성장 손작빈(孫作賓) 등 수십인, 군대에서는 중공군총정치부문화부장 진기(陳沂)등이었다. 전 대륙의 지식분자치고 이 총숙청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휩쓸려들지 않는 자가 별로 없다. 인민대학, 남경대학 등의 각 대학에서 우파분자로 지목된 자는 700여 명에 달했다.(58년 2월 14일 「인민일보」) 중공공안부장 나서경(羅瑞卿)이 58년 1월 당기관지 「학습」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55년 7월부터 57년 10월까지 겨우 1,800만 인의 직원 노동자 가운데서 반혁명분자 10여 만인, 보통 반혁명분자 6만 5천여 인, 정치경력에 문제가 있는 인물 177만 인 그 중 문제가 중대한 자 약 13만 인을 검거했다. 이들 반혁명 인물로 지목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57년 후반에 반우파 투쟁 때에 검거되었던 꽃들이다. 이 반우파 투쟁에서 숙청당한 사람 수는 적게 보아도 5만 인 이하는 아닐 것이다. (「학습」 반월간 58년 제1기)

명방 운동의 종결은 지식분자에 관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반우파 투쟁에 이어서 중공은 지식분자에 대해서 한 층 엄격한 노선을 강요하면서 장단기간에 지식분자들을 노동자로서 소위 보다 빨갛게 보다 전문적인 새로운 공산분자로 만들어 내려고 기도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김병성 역〉

<편집후기>

「미사일」 10호부터는 지면을 88면으로 증면하게 되었으며 「코메트」의 잠정적인 휴간에 따라서 종전의 「코메트」의 내용의 일부를 종합 수록하게 되었다. (민)

× ×

냉정한 현실 분석에 의하여 오늘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결코 비약에의 계기는 마련되지 않는다.

권두논문「한국 혁명과 역사의 전조」와 특집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하여」는 이러한 의미에서 귀중한 논고들이 아닐 수 없다. 바쁘신 중에도 집필의 노고를 사양치 않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증면을 계기로 부대 순회 〈장병란〉을 신설하고 또 취미, 오락기사를 대폭 늘였다. 성원을 바란다. (문)

× ×

★길가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공군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고 묻기에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니까 그 친구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다. 결국, 아틀라스나 타이판이 아니고 미사일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만드노라고 구차한 설명을 해야만 했다.

자! 하루빨리 우리도 하늘을 나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와야겠다. (현)



(상)미 제5공군부 사령관 수덜랜드 소장은 지난 1월 19일 본부로 장 참모차장을 예방하였다.



(중)지난 1월 13일 전 참모부장은 군풍기단속기간을 맞이하여 본부 강당에서 과장급 이상 장교에게 특별 훈시를 하였다.



(하)지난 1월 20일 코리아 · 하우스에서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쓰 대령에게 소파상(小波賞)이 수여되었다.

미사일
월간 10호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공군대령 주정호
인쇄처·공군교재창
인쇄인·공군대령 김석환
공군본부 정훈감실



일텃길

아득한 태고 적부터

줄기찬 삶의 오욕이 지나온

새벽길을

일터로 향한 농부의 정열이 간다

황금빛의 내일을 위한

또 하나의 고통이 간다

미 사 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